





#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재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 제12·13대 횡성문화원장 이·취임

지난 7월 8일, (제11,12대)김광수 원장님에 이어 (13대) 박순업 원장님이 취임했음.



횡성문화원(12,13대) 이·취임식



횡성문화원(13대) 박순업원장님



황성문화원(13대)원장 및 임원



강원도문화원연합회장 및 시,군문화원장

갑오년이 저물고 을미년이 밝아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지인 횡성문화 통권 제29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횡성문화원장  
박 순 업

우리 산하에도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겪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명주실 꾸러미처럼 긴 세월을 면면이 오늘날 까지 이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이어갈 이 땅입니다.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이 고장에 살면서 남긴 의미 있는 자취들을 우리는 향토사라고 부릅니다. 그 자취들은 사라져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향토 구석 구석에는 조상들이 살다간 가치 있는 자취가 많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더 흐르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전국에 이 방대한 것을 국가나 저명한 역사학자가 다 발굴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향토사는 뜻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발굴 선양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까지 ‘횡성문화’를 스물아홉 번째 발간하면서 묻혀있는 귀중한 향토사가 재조명, 향토지에 실릴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9호에도 향토의 귀중한 숨은 이야기들이 실리게 되어 또 하나의 귀중한 향토지가 탄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과 현원명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호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12.

횡성문화원장 박 순 업

## 격려사 | Congratulatory Message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황성의 맥과 얼을 이어가는 소중한 문예지인 「2014 황성문화」가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군수

우리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오신 박순업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집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시간적으로 동일선상에 위치한 개념으로 역사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잊혀진다면 결국 우리민족을 지탱하는 민족정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성문화는 황성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지로서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황성문화원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노력을 해오셨고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성장의 든든한 밑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황성문화가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가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다시한번 발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 12.

황성군수 한 규 호

역사와 문화의 우리 고장을 황성군민에게 올바르게 전해 주고 황성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황성문화2014』가 발간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올바른 자료 발굴 등을 통해 『황성문화2014』가 발간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성문화원 박순업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군의회 의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문화가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란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고유문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민족 구성원들이 터를 잡고 있는 郷土史에서 기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 속에 우리 황성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이번 『황성문화2014』 발간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어가야 할 소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황성문화2014』가 과거 황성의 독특한 문화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현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미래의 지혜를 찾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황성군민들에게 우리들이 대대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황성에 대한 사랑과 역사 의식을 움트게 하며, 황성의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황성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 황성군민의 가슴속에 드높은 자긍심을 일깨워 향토 사랑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황성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의 일념으로 우리 황성의 文化史를 한편의 책으로 집대성하기 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황성군의회 의장 한 창 수



# Contents

## 문화 비전 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격력사 | 군수

축사 | 의장

## I. 향토문화의 연구

\* 조선 초기 각림사의 번창과 그 의미 | **홍주민** | 12

\* 조선 인조 대(代) 이인거 난(亂)에 관한 소고 | **진연호** | 37

## II. 향토문화숨결

\* 강원무형문화제 “횡성희다지소리”, “장송모도자연구원”을 찾아서 | **박현숙** | 60

\* 횡성지역 향토사료발굴 조사를 다녀와서 | **김동정** | 72

\* 강림면 부곡2리 곧은치 · 솔거리마을 산신제 | **이영식** | 88

## III. 문화융성 학습정보

\* 전통유학과 정신문화 진흥 | **김인규** | 102

\* 선진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발상전환의 지혜 | **현원명** | 127

## IV.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섬강(蟾江) 이야기 | **유승희** | 148

\* “과리”의 재발견 | **한상균** | 158

\* 기록은 추억이 되어 | **김미애** | 180

\*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 **홍인희** | 184

\*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 풍수원성당 | **윤병철** | 191

## V. 문화탐방기행

- \* 호남 문화권 전주와 익산을 답사하다 | **조기동** | 200
- \* 2014년 관외 전통문화 학습현장을 다녀와서 | **이송운** | 212
- \* 황성군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 218
  - **조은지**(황여고), **박주영**(황여고), **윤미강**(민사고), **이예주**(민사고)

## VI. 문예마당

- \* 포도에세이 | 황성호에 탈곡기 소리를 듣다” | **정재영** | 236
- \* 시조 | 빙열백자 氷裂白磁 | **김성수** | 244
- \* 시 | 어릴 때 사계절 I, II | **진광수** | 245
- \* 수필 | 은퇴 설계사” | **최보정** | 247
- \*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7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 252
  - 산문 | “무지개 처럼” | **박우영**(황성초6)
  - 동시 | “무지개” | **이현아**(공근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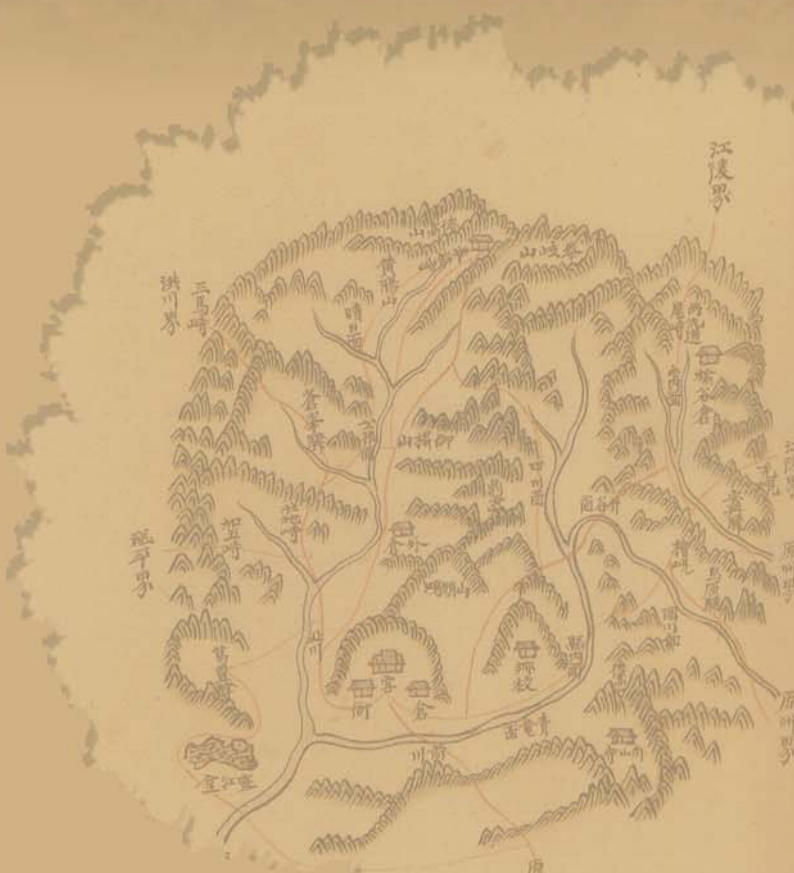
## VII. 문화원소식

- 문화사업실적 | 256
- 문화원 회원명부 | 270

# I. 향토문화의 연구

\*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 홍주민

\* 조선 인조 대(代) 이인거 난(亂)에 관한 소고 | 진연호



조선 초기

# 각림사의 변창과 그 의미



\*홍주민

## 1. 서론

태종 이방원이 어린 시절 운곡 원천석에게 학문을 배운 곳으로 알려진 각림사는 흔히 치악산 동쪽에 위치한 사찰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림사가 있던 ‘강림’이 1962년에 횡성으로 편입되면서 오늘날 그 정확한 주소지는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이다. 횡성군 강림면은 동쪽으로는 영월군 수주면, 서쪽으로는 원주시 소초면, 남쪽으로는 원주시 신림면, 북쪽으로는 안흥면과 각각 접해 있어 사방으로 푸르른 숲이 우거지고 청정한 계곡물이 가로지르는 때 묻지 않은 비경이 펼쳐진 곳이다. 또한 강림면의 월현리와 부곡리에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1908년 전후로 순국한 의병들이 잠든 의병총이 자리해 있어 이 곳이 애국의 고장임을 증명한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림면은 현재 법정 3개리인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로 나뉘는데 그 중 강림리는 1·2·3·4·5리로 분리되어 강림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강림리는 신라시대에 ‘각림’이라 불리었는데 그 이유인 즉 각림사(覺林寺)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하여 1913년부터 1914년에 걸쳐 행정구역 폐합정리(廢合整理)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창지개명(創地改名)’으로 현 강림2리 1반에 속하는 마을 ‘노고소’, 강림4리 1반에 속하는 마을 ‘노

들', 강림리 1반에 속하는 마을 '선계', 강림4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태종의 수레가 넘었다하여 이름 붙여진 '수레넘이',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을 '창말' 그리고 '가이천', '노평', '보거내' 까지 총 8개 마을이 합쳐져 '강림리(講林里)'라 불리게 되었다.<sup>1)</sup>

다시 말해 현 강림리의 뿌리는 바로 각림사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 뿌리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아주 오래전엔 청명한 황성 하늘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났을 각림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없어졌고, 빼어난 사찰이 위치했던 자리엔 지금 강림교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강림우체국이 들어서 있으며, 그 주위에는 민가 몇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저 강림리에 있는 소공원 내의 시비(詩碑)와 사지(寺地)의 표지석만이 그 존재를 희미하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각림사의 정확한 창건연대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림사 터 부근에서 연화문(蓮花文) 수막새를 비롯하여 선조문(線條文)·격자문(格子文)·수지문(樹枝文)과 기하학적 문양의 평와편(平瓦片)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창건된 사찰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각림사는 고려시대를 거쳐 태종 이방원이 중창(重創)한 이래 조선전기까지 번창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중건된 흔적 없이 『여지도서(輿地圖書)』<sup>2)</sup>, 『관동지(關東誌)』<sup>3)</sup>, 『관동읍지(關東邑誌)』<sup>4)</sup> 등에 '금폐(今廢)'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18세기말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廢寺)된 것으로 보인다.<sup>5)</sup> 때문에 각림사는 적어도 6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강림리의 지명유래 사찰'이라는 단 한 줄로 요약 기록되고 있다.

1) 橫城郡, 『황성군지』 下, 황성군, 2007, 2017쪽.

2)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成冊)한 전국 읍지(邑誌). 55책. 필사본.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監營誌 6, 兵營誌 7, 水營誌 3, 統營誌 1)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다.

3) 19세기 전반에 강원감영에서 편찬한 강원도 지리지. 강원감영 영지와 26개 군현의 읍지, 이 읍지를 정리한 총록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강원도의 도별 읍지이다.

4)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강원도내 각 읍의 읍지를 총괄 수록한 읍지. 7책. 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 편찬시기가 각각 다른 6개 읍의 읍지를 민족항일기에 필사한 1책으로 된 『관동읍지』가 규장각 도서에 있는데, 내용이 소략하고 조잡하며 빠진 부분도 많아 읍지로서의 자료 가치는 미약하다.

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문화사, 1995, 177쪽.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고, 각림사는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승려 신조가 있었던 곳으로써, 태종 이방원이 유년시절에 수학한 곳으로써, 더불어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가 설행된 곳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 II. 여말선초의 각림사 동태

### 1. 행승(倥僧) 신조(神照)

각림사 모습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지만, 이기의 『송와잡설』을 통해서 태종에 의해 중창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위성(原城)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띠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는데,』 현릉(獻陵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절 남쪽으로 3~4리쯤에 용추(龍湫)가 있고 그 위에 대암(臺巖 대바위)이 산에 기대어서 있는데, 현릉이 때때로 책을 끼고 바위 위에서 읊조렸다 한다.<sup>6)</sup>

이처럼 황폐한 모습을 지녔던 각림사에 대해서 여말선초의 시기를 살았던 춘정 변계량(1369~1430)은 『춘정집』의 추보(追補)에서 각림사를 각림정사(覺林精舍)라 지칭하였다. 여기서 정사(精舍)란 학문을 베풀고 정신을 수양하는 곳이란 뜻으로, 초기에는 승려들의 수련을 위한 사찰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문란한 정치에 회의감을 느낀 문신들이 산속에 은거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사찰에서 학문에 정진하게 되었고, 정사는 학문 수학을 위한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송와잡설에서 각림사가 띠집 두 어칸 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찰이면서도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의 기본 구조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여말선초 각림사는 사찰

6)이기, 『송와잡설』

의 기능을 잃고 공부할 공간만을 갖춘 정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림사가 역사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태종과 원천석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보다 먼저 각림사와 연결되는 사람은 ‘신조’라는 승(僧)이다. 각림사에서 기거하며 황폐한 사찰을 지키고 있던 그는 태조 이성계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조선개창의 주역이 된 인물이다.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려라!” 이성계의 이 한마디는 새 시대를 여는 한 걸음이었다. 고려 말, 문권세족의 배는 부풀었고 머리는 이익에 사로잡혀 둔해졌다. 민심은 더 이상 고려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통하여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 건국의 결정적 계기는 위화도 회군에 있었다. 『고려사』에서 공양왕은 이 회군에 참여한 신하들을 공신으로 녹훈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가짜 임금 신우(辛禡)가 제멋대로 불법을 행하다가 무진년(1388)에는 최영(崔瑩)과 함께 요양(遼陽)을 침범하려고 하는 바람에, 장차 우리나라는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죄를 얻게 되어 사직(社稷)의 존망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성계가 전 시중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앞장서 대의를 내걸고 장수들을 설득해 회군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직을 안정시켰으므로 그 큰 공로는 산하가 마르고 닳도록 잊기 어렵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해 협력한 문하시중(門下侍中) 심덕부(沈德符), 전 판삼사사(判三司事) 왕안덕(王安德),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지용기(池湧奇), 평리(評理) 배극렴(裴克廉)·윤호(尹虎), … 봉복군(奉福君) 승(僧) 신조(神照),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경보(慶補), 전 황주목사(黃州牧使) 조희고(趙希古), 전 원주등처병마절제사(原州等處兵馬節制使) 경의(慶儀), … 등 45명을 모두 공신으로 임명하노니 해당 관청에서는 포상의 의전을 절차대로 시행하도록 하라.<sup>7)</sup>

이 같은 기록은 조선 건국 후 정공신(正功臣) 다음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7) 『고려사』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1390) 4월 24일.

내린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그렇다면, 공신으로 봉복군(奉福君)<sup>9)</sup>에 봉해진 신조(神照)란 누구이며, 어떻게 녹봉될 수 있었을까?

신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그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조는 여말선초의 천태종(天台宗) 승려로 처음에는 각림사(覺林寺)에 있었다.<sup>10)</sup> 용력이 뛰어나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sup>11)</sup> 궁중에 자유로이 출입하였고 왕실과 국가의 복을 비는 대법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양왕 때에도 총애를 받아<sup>12)</sup>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종군하여 회군에 기여하면서 공양왕이 공패(功牌)를 내리고 노비와 땅을 하사하여 현재 경기도 수원의 만의사(萬義寺)에 주지로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신조는 볼품없는 각림사에서 시작하여 공민왕에서 태조 이성계까지, 여말선초를 아우르던 인물이었다.

## 2. 신조와 태조 이성계의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민왕 때부터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조는 태조 이성계와 위화도 회군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성계와 신조의 관계는 공민왕 시해 후로 소급된다.<sup>13)</sup> 신조는 공민왕의 시해혐의를 받았는데,<sup>14)</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신조를 하옥시킨 인물은 이인임이었고 신조가 친분을 두고 있던 인물

8)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왕명으로 내리는 증서로서 처음에는 일일이 필사하여 제작하였으나, 점차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목활자 및 목판으로 인쇄하게 되었다. 신조의 이름이 기술된 증서는 똑같이 1395년 윤9월에 책록된 정진(鄭津)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과 이화상(李和尚)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다. 두 문서가 제작된 1395년(太祖 4)에는 녹권을 필사 혹은 목활자 및 목판으로 인쇄하였는데, 두 문서는 이 중 필사본으로 제작한 것이다. 두 녹권에 수록된 개국원종공신은 모두 105명으로 원종공신 증추원부사윤방경의 예에 따라 발 30결과 노비 3구씩 상급(賞給)하였다. 본 녹권과 동종의 것으로 진총기개국원종공신녹권, 최유원개국원종공신녹권이 현존하고 있다.

9) 기록에서는 봉복군과 봉리군이 혼용되어 있음. 본고에서는 봉복군으로 통일함.

10) 『연려실기술』 권1 태조조 고사본말, “옹비어천가”

11) 『고려사』 권115 열전28, 「이색」; 권9, 「양촌집」, 권12 기 「수원만인사축상화엄법회종목기萬義寺祝上華嚴法會衆目記」, 안정복 「동사강목」, 신해년 공민왕 20년(1371).

12) 정음(井邑)의 백성 왕익부(王益富)는 지용기(池湧奇)의 아내와 재종형제가 되는데, 용기의 집에 드나들면서 스스로, “충선왕의 서증손이다.” 하였다. … 왕에게 총애 받는 중 신조(神照)는 평소부터 용기와 잘 지냈으므로, 왕에게 은밀히 이리기를, “진하를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공은 오로지 용기에게 있습니다.” 하니, 왕이 특별히 죄를 사면하였다. … 『고려사』 권114 열전 27, 「지용기」; 『고려사절요』, 권35 신미 3년(1391).

13) 황인규, 『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세력 기반』, 한국불교학회, 2001, 16~17쪽.

14) 갑신일에 환자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 홍륜(洪倫) 등이 왕을 시해하였다. … 이인임(李仁任)은 중 신조(神照)가 상시 대궐 안에 있으면서 원력이 있고 간사한 꾀가 많으므로 난을 일으켰는가 의심하여 목에 가두었다. 조금 후에 병풍과 만생의 옷 위에 뿌려진 피 흔적을 보고 만생을 목에 가두어서 국문하여 그 진상을 모두 알았으므로, 드디어 홍륜 등을 목에 가두었다. … 『고려사』 권131 「홍륜」, 『고려사절요』, 권29 갑인 23년(1374).



이 지용기라는 사실이다.<sup>15)</sup> 『수구보수과인 이인임은 개혁과인 이성계에 의해 축출된 인물이며, 지용기는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과 공양왕 옹립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조는 이성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리라 추정되며, 그 계기와 시기가 공민왕의 시해혐의를 받은 직후였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어 황인규의 논문(「고려말 이성계의 불교계세력 기반」)은 “신조와 이성계의 친밀함이 치악산 각림사에서 양자가 함께 머물렀다는 사실이 방증한다”<sup>16)</sup>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방증자료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중종(中宗)때 편찬된 것으로 이전 성종(成宗) 때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증보(增補)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이전의 자료인 『팔도지리지(八道地理誌)』, 『동문선(東文選)』 등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즉 『동국여지승람』에서 참고한 자료들 중 『세종지리지(世宗地理誌)』<sup>17)</sup>를 비롯한 기록에서는 각림사를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 수학한 절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태조(太祖)’라 기술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타자인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 원문에는 ‘태종’으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황인규의 논문에서 신조가 이성계와 각림사에 머무르며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논지전개는 자료의 잘못된 해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이성계와 신조의 사이는 서로의 교우관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이후 같은 길을 걸었고, 무엇보다 전장을 함께 지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키워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왜구를 격퇴한 해주전장(1377)에서 신조는 승려로

15) 『고려사』 권114 열전 27, 「지용기」; 『고려사절요』 권35 신미 3년(1391).

16) 각림사(覺林寺) 치악산의 동쪽에 있다. 우리 태조(太祖)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 임금의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고로(古老)들을 불러다 위로하였다.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고을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세·부역 따위를 면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원주목 불우각림사.

17) 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 가기 40리 이다. 선종(禪宗)에 붙이었고, 전지 3백 결(結)을 주었다.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 때 글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황성에서 무예를 연습하다가, 이 절에다 연(鸞)을 머무르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였다. 『세종지리지』 강원도 원주목 각림사.

서 비록 고기를 먹지 않지만, 손수 고기를 베어 술안주로 이성계에게 보시하였다.<sup>18)</sup> 또한 1388년에는 이성계를 따라 요동정벌에 참여하여 위화도에서 회군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홍무(洪武) 무진년(1388, 창왕 14)에 병화(兵禍)가 일어나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조공(昭公 곧 신조 스님)은 완산(完山) 이시중(李侍中) 이성계를 가리킨다)의 휘하에 있으면서 능히 장상(將相)들과 큰 계책<sup>19)</sup>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켜 회군(回軍)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켜 오늘날 중흥의 왕업을 만들어 놓았다.<sup>20)</sup>

이로 인해 신조는 승려로는 유일하게 공신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신조와 이성계는 공민왕 시기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였고, 결정적으로 해주 전장에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증명으로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을 본거지인 개성이 아닌 멀리 떨어지고 산세가 험한 강원도에 위치한 각림사에서 수학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기를 계산해 보면 1377년 해주전투 이후 불과 2년 뒤인 1379년에 이방원이 각림사에서 수학하였다.<sup>21)</sup> 이를 미루어 보아 각림사는 신조가 이성계에게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한 보답의 장소이자, 서로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증표의 장소였던 것이다.

18) 8월, 왜적이 서해도(西海道)의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구(侵寇)하니 원수(元帥) 찬성(贊成) 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助戰)하기를 청하매, ... 태조는 대우전(大羽箭)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僧) 신조(神照)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실을 볼 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찼다. 적군이 곤경(困境)에 빠져서 죽을힘을 내어 충돌(衝突)하였다. 『태조실록』 권1 충서 신우 3년(1377) 8월 ; 『고려사』 권133 열전 46 「우왕1」, 우왕 3년(1377) 8월 ;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3년(1377) ; 이정복 『동사강목』 16상 을묘 정사년 전폐왕 우 3년(1377).

19) 이 계책은 밀물시간을 알고 미리 건너도록 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2, 2006, 116쪽

20) 권근, 『양촌집』 권12 기 「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

21) 태종이 각림사에 수학하였다는 것은 후술한다.

### III.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

#### 1. 태종 이방원과 각림사

신조와 이성계의 관계에 대한 증표로 각림사에 보내진 어린 이방원은 이곳에서 다년간 공부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방원의 각림사에서의 수학기록

왕조	년대			시기	사건 내용
	년	월	일		
태종	10	12	20	1410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향(香)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14	9	14	1414	원주 각림사에 거둥하였으니, 잠저 때 옛날 공부하던 곳이었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 홍초(紅麴)를 각각 3필씩 주고...
	17	2	2	1417	... 원주의 각림사는 내가 나이 어렸을 적에 유학(遊學)한 곳이므로, ...
	17	2	27	1417	...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싯적에 놀던 것과 같다. ...
	17	7	5	1417	... 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간다. ...
세종	1	11	9	1419	... 상왕이 활과 화살통 하나씩을 여러 절제사 및 사복관에게 주고, ...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
	3	3	8	1421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 주지(主持) 석휴(釋休)가 와서 알현하니, 쌀 2백 석을 하사하였다. 각림사는 상왕이 임금이 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이며, 휴는 일찍이 시중드는 공로가 있었다.
	17	5	20	1435	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 옛날에 태종께서, 각림사가 예전에 노시던 땅이므로, ...
	17	5	21	1435	... 대개 각림사는 태종께서 예전에 노시던 땅이라 하여 중하였고, ...
성종	2	11	22	1471	... 각림사는 바로 태종께서 소년 시절에 독서(讀書)하던 곳인데도 오히려 아울러 헐파시켰습니다. ...

※ 출처: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이 외에도 여러 자료의 기록에서 태종이 어린 시절에 각림사에서 수학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22)</sup> 또한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등극한 후에도 끊임없이 각림사에 애정을 갖고 그리워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은 태종이 각림사가 위치한 황성지역에서 무려 3회의 강무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강무(講武)는 조선시대 국왕의 친림 하에 실시하는 군사훈련으로서의 수렵회

22) ...지금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는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태종이 등극하기 이전에 책을 끼고 다니며 휴식하던 곳이며, ...이의, 『성호사설』 권12, 「원곡 인사문」

원성(原城) 치악산(雉岳山) 동쪽에 각림사(覺林寺)가 있다. 처음에는 띠집 두어 칸이 숲속에 황폐하게 있었는데, 헌릉(獻陵 태종의 능으로 태종을 지칭)이 즉위하기 전에 오가며 머물렀다. 이기, 『송와잡설』

각림사(覺林寺) 치악산의 동쪽에 있다. 우리 태종(太宗)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서 글을 읽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강원도 원주목 불우 각림사.

를 일컫는다. 강무를 시행한다는 것은 국왕이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국왕의 위엄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강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태종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던 1403년(태종 3) 이후부터이다. 태종은 건강이 극히 나빠진 말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봄·가을에 강무를 시행하여 재위 18년간 모두 23회를 실시하여 평균 10일 정도를 머물렀다. 이 중 강원도를 강무장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7회에 달하였고, 황성지역은 1414년(태종 14)과 1415년(태종 15) 가을과 1417년(태종 17) 봄에 강원지역 강무의 반을 지냈던 곳이다.<sup>23)</sup> 이 중에서도 태종이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1417년 봄에 실행된 강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태종의 처음 의중은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를 방문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신하들은 강무는 예로써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를 정지하고 전조의 폐단을 낳았던 불교의 처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라 하며 반대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태종은 뜻을 굽히지 않고 각림사로 향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는데, 그 소(疏)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욕이 생각하건대, 거동(舉動)은 임금이 대절(大節)이므로 명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엿드려 보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 제도를 본받아 매양 봄·가을에 강무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예(禮)로써 거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도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覺林寺)로 행차하고자 하니, 신 등은 아직 알지 못하겠으나, 무슨 일 때문에 부도(浮圖)의 처소에 행행하려 합니까? 또 전하의 일신(一身)은 자손 만세(子孫萬世)에 취하는 바가 되는 즉 더욱 명분 없이 거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번 각림사에 행차하심을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상소(常所)에 순행(巡幸)하심으로써 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대호군(大護軍) 조치(趙蓄)를 횡성(橫城)에 보내어 강무장(講武場)에 얼음이 녹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게 하고, 이어서 명하였다.<sup>24)</sup>

23)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5(조선전기편), 강원도, 2012, 53-55쪽.

24)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10일.

강무를 핑계로 삼았지만, 태종이 각림사로 가는 것은 꿈속에서나 다시 볼 수 있었던 각림사로 가고자 함이었다. 이는 『태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거가(車駕)가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로 행행(幸行)하니, 겸하여 춘수(春蒐)를 강(講)하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각림사에서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少時)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급전(給田) 하고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講武)를 핑계하여 태조(太祖)와 모후(母后) 두 분의 기일(己辰) 때에 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며 9월은 벼가 무성한 때이다. 만약 연고 없이 간다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佛法)은 비록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中國)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sup>25)</sup>

이어서 동년 9월에는 각림사에서 낙성법회가 열릴 때 옥천부원군 유창에게 향과 소(疏)를 주어서 대신 참석하도록 하고 『화엄경』을 보내어 봉안하도록 하였다.<sup>26)</sup> 또한 태종은 1410년(태종 10) 12월에는 석초가 주지로 각림사에 내려간다 하니 향을 하사하였으며<sup>27)</sup> 1412년(태종 12) 10월에는 원주목사 및 승정원에 이 절의 승려들이 전세를 많이 거두어 전객이 고소한 사건을 덮어 두라고 명<sup>28)</sup> 하였다. 또한 중창에 대한 비용을 비롯하여 각림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태종은 건국 초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왕권강화와 나라기틀 마련을 위한 송유억불 정책을 펼치면서도 모순적으로 각림사에 대해서는 각별했다.

25)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27일.

26)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9월 15일.

27)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1410) 12월 20일.

28)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1412) 10월 17일.

## 2. 태종 이방원과 운곡 원천석

각림사에서 공부했을 당시 태종에게는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훗날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거스르면서까지 각림사를 각별하게 여겼던 것일까. 이 이유는 운곡 원천석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원천석(元天錫)은 고려 말기의 은사(隱士)이며, 본관은 원주이다. 자는 자정(子正)이고, 호는 운곡(耘谷)이다. 원천석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영위하였는데, 1360년(31세)에 딸을 잃었다. 1365년(36세)에 아들을, 1366년(37세)에는 상처(喪妻)하였다. 그 후 1375년에는 형인 천상이 병을 앓다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천석은 불교를 통해 상실의 괴로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원천석은 1374년(45세)에 고려 정치기들의 문란함을 보고 서글퍼하며 치악산 변암 근처로 거처를 옮겨 농사를 짓고 부모를 봉양하며 지냈다. 그리고 원천석은 이색(李穡)<sup>30)</sup> 등과 사귀면서 시사(時事)를 개탄했고, 1388년(59세)엔 본채 곁에 별채로 ‘누출재(陋拙齋)’<sup>31)</sup>라는 서재를 지어 끊임 없이 학문에 정진하였다. 지금 황성군 강림면 부곡리 치악산 동쪽 산자락에 그 터가 남아 있다. 이 곳은 현재에도 속세와 동떨어진 곳으로 원천석이 세상과의 연을 끊기에 적절한 곳이었으며, 쉬이 각림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다. 원천석이 각림사와 연을 맺었다는 것은 『운곡시사』에 각림사에 관한 다섯 수의 시로 알 수 있다.<sup>32)</sup>

이처럼 각림사와 가까워진 원천석은 이곳으로 공부하러 온 태종과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됐으리라. 선대의 인연으로 태종이 각림사에 수학하러 온 것은 태종

29) 황성문화원, 『역사에 빛나는 황성의 인물』, 황성문화원, 1999, 53쪽.

또한, 원천석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운곡시사』에 모두 100명의 스님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불교를 통해 개인적인 삶의 불행을 달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0) 1328년(충숙왕 15)~1396(태조 5).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이자 문인이며,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포은(圃隱)정몽주(鄭夢周), 아은(冶隱)길재(吉再)와 함께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찬성사 이곡(李穀)이며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31) 누출재란 ‘누출한 곳에 응축한 사람이 사는 집’ 뜻이다.

32) 1365년에 쓴 〈각림사 당두 원통 스님의 축상시에 차운함〉이라는 제목의 시와 1391년에 쓴 〈빛속에 술을 보낸 영천 사 당두에게 감사하며(각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라는 시와 1392년에 쓴 〈불복군 신조 대선사에게 부침〉이라는 시, 같은 해에 쓴 〈천태연 스님이 총림에 가는 길에 각림사를 지나게 되어 나를 찾아 왔다. ...이별하는 마당에 시 한수를 지어 노자로 드린다.〉는 시, 그리고 또 같은 해에 지은 〈심(深)자의 운을 써서 시를 지어 각림사의 장실에 드림〉이라는 시가 그것이다.

나이 13세 때(1379년)로<sup>33)</sup> 원천석(50세)이 각림사 부근으로 옮겨 살던 시절이다. 원천석의 거처가 각림사와 가깝고 또 원천석이 각림사의 스님들과 두텁게 교분을 맺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태종과 원천석 두 사람은 당연히 각림사에서 만났을 것이고, 이런 만남 속에서 둘은 사제지간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둘의 관계를 사제관계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증명한다.

강원도 진사 한용명(韓用明)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高麗) 진사(進士) 원천석(元天錫)은 학문이 정심(精深)하고 도덕이 순수했는데, 좋지 못한 때를 만난 탓으로 치악산(雉嶽山)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전혀 답답해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는 섬기지 않을 뜻을 굳혔습니다. … 생각건대 우리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감반(甘盤)의 구은(舊恩)이 있다고 하여 거듭 은총을 가하시고, 산 입구에까지 가시어 그의 아들 원형(元炯)을 기천(基川)의 수령으로 임명하심으로써 그를 봉양할 여지를 마련해주시기까지 하면서도 끝내 작록은 가하지 않아 그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 천석의 고상한 풍도가 이에서 더욱 드러났다 하겠습니까. … 원천석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였는데, 이색(李穡) 등 여러 사람과 평소 친하였다. 우리 태종께서 일찍이 그를 따라 학업을 닦으셨는데, 즉위하고 나서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아오지 않았다. 이에 태종께서 직접 그의 초막에까지 왕립하셨는데도 천석이 도피하고 만나려 하지 않자, 태종께서 옛적의 식모를 불러 상품을 하사하고 천석의 아들을 관직에 임명하였다. …<sup>35)</sup>

원천석(元天錫)은 본관이 원주(原州)인데, 고려 말에 벼슬하지 않고 원주에 숨어 살았다. 태종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태종을 가르친 인연이 있었으므로, 태종이 상왕

33) …함길도 관찰사 안망지(安望之)는 사람을 보내서 방물을 진상하고, 충청도 관찰사 정진(鄭津)도 사람을 보내서 말과 방물을 진상하였다. 방물은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柳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내가 일찍이 너의 사위 인시경(印時敬)을 장군에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1419) 11월 9일.

34) 原州市, 『원주 역사 시리즈』 1 (윤곡 원천석편), 원주시, 42~54쪽.

35) 『현종실록』 권6 현종 4년(1663) 4월 27일 ; 『현종개수실록』 권8 현종 8년(1663) 4월 24일.

이 되자 그를 특명으로 불러들이니, 천석이 백의(白衣 벼슬 없는 선비의 몸)로 와 뵈었다. 대궐 안으로 불러들여 지난날의 일을 말하여 평소의 즐거함과 같이 하고, 여러 왕자를 불러내어 보이고는, “내 지손들이 어떠하오.” 물었다. 천석이 세조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몹시 조부를 닮았습니다. 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였다. … (해동약부)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일찍이 글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즉위하여 여러 번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이 동쪽 지방에 나갔다가 그 집을 방문하니 공은 피하고 보이지 않았다. 태종이 계석(溪石) 위에 내려와서 그 집 여종을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와서 그의 아들 원형(元炯)에게 기천(基川, 지금의 풍기)현감의 벼슬을 주었다. 후대 사람이 그 둘을 ‘태종대(太宗臺)’라 이름 지었다. 그 대(臺)는 치악산 각림사(覺林寺) 곁에 있다.《여사제강(麗史提綱)》,《미수기언》<sup>36)</sup>

태종은 1382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는 병과에도 합격한다.<sup>37)</sup> 당시(고려)의 진사시<sup>38)</sup>는 부(賦)와 시(詩)의 창작능력을 시험하여 진사(進士)를 뽑았는데, 무인집안에서 자란 이방원으로는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운곡시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천석은 시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진사시를 한 번에 합격하였다. 때문에 각림사에서 진사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태종은 원천석을 따라 주변의 산수를 즐기면서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시제로 시를 짓고, 이를 수정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태종에게 각림사는 문무를 겸비할 수 있게 해 준 소중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기에, 매양 꿈속에서 가끔 찾아 갔을 정도로 각별히 여긴 것이다.

36) 『연려실기술』 권1 태조조 고사본말.

37) 태종은 나서부터 신이(神異)하였고, 조금 자라매 영명(英明) 예지(豫知)하기가 출중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학문이 날로 진보되었다. 명(明)나라 홍무(洪武) 15년 임술에 고려(高麗) 진사시(進士試)에 오르고, 이듬해 계해에 병과(丙科) 제 칠인(第七人) 급제(及第)에 합격하였다. 『태종실록』 총서.

38) 고려 시대 국가감시(國子監試)의 별칭으로 성균시(成均試) · 남성시(南省試)라고도 불리었다.



### 3. 각림사의 번창

신조와 이성계, 원천석과 태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인 각림사는 태종이 중창하면서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먼저 각림사 중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절은 방금 재건되어 낙성(落成)을 보게 되었는데, 중관(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현훈폐(玄勳幣) 1필을 각각 바치고, 중들에게는 면포(綿布)·주포(紬布) 합계 10필, 마포(麻布) 50필, 저화(楮貨) 2백 장(張)을 내려 주었으니, 임금이 잠자에 있을 때 독서(讀書)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sup>39)</sup>

명하여 철(鐵) 1천 근(斤)을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사승(寺僧)으로서 중창(重創)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sup>40)</sup>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都觀察使)에게 명하여 각림사(覺林寺)를 중창(重創)하는 재목(材木)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고, 또 승정원(承政院)에 진지하기를, “본궁(本宮)의 쌀·콩 합하여 1백 석을 군사감(軍資監)에 바치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覺林寺)에 주라.” 하였다.<sup>41)</sup>

각림사를 중창한 것은 사찰이면서도 사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사의 역할만을 한 것을 안타까이 여긴 태종의 마음이었다. 이외에도 태종은 때로는 각림사에 직접 거동하면서까지 후원하기도 하였<sup>42)</sup> 낙성(落成)을 축하하기 위해 화원을 보내기도 하고<sup>43)</sup> 다른 지역의 창고에서 쌀과 콩을 보내게 하기도 하였다.<sup>44)</sup>

39)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1412) 10월 17일.

40)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4월 28일.

41)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1416) 8월 23일.

42)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거동하였으니, 잠저(潛邸) 때 옛날 공부하던 곳이었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홍초를 각각 3필씩 내려 주고,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고,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50구(口)를 더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을 내려 주었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윤 9월 14일.

43) 명하여 화원(畫員) 이원해(李原海) 등 15인을 각림사(覺林寺)로 보내니, 절에서 낙성을 알린 때문이었다. 또 여러 채색(彩色)을 내려 주었다.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4월 2일.

44) 제천현(堤川縣) 창고의 쌀·콩 1백 석을 각림사(覺林寺)에 주니, 본궁(本宮)의 쌀·콩 1백 석과 바꾼 것이었다.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1417) 2월 22일. “연안부(延安府)의 본궁(本宮) 곡식 2백 석을 그 부(府)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도(忠淸道) 제천(堤川) 고을의 창고 쌀 1백 석과 경원창(慶源倉)의 보리 20석을 각림사에 주라.”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7월 5일.

태종의 각림사 후원 중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화엄경』을 봉안했다는 것이다.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에게 명하여,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에 갔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황비(皇妃)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화엄경(華嚴經)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각림사가 완성되매 이 경(經)을 보내고, 또 유창에게 내향(內香)과 소(疏)를 주어 법회(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다.<sup>45)</sup>

죽은 이의 위패 등을 모시고 명복을 비는 사찰을 원당사찰(願堂寺刹)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있던 것으로 억불정책을 편 조선시대에도 성행하였다. 조선 왕실의 원당사찰은 궁내(宮內) 세운 내원당(內願堂) 외에도 흥천사·진관사 등 큰 사찰들이 있었다. 그런데 태종은 내원당을 비롯한 다른 원당사찰을 제외하고 각림사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화엄경』을 봉안한 것이다. 각림사에 『화엄경』을 봉안한 것은 신조와 아버지 이성계의 관계를 생각하여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각림사는 이때부터는 원당사찰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종의 관심에 이어 세종 또한 각림사 주지의 청에 서슴없이 지원을 하였고<sup>46)</sup> 세종 6년(1424) 4월 5일에는 불교의 혁파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때 각림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거승(居僧)이 150명일 정도로 다른 큰 사찰과 비교해 봐도 비등할 정도로 황폐했던 옛 모습과 달리 컸다.<sup>47)</sup> 이처럼 조선 초기 번창한 각림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 전까지 실록에 63건이나 그 이름이 등장했을 정도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였다.

45)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9월 15일.

46) 『태종실록』 권11 세종 3년(1421) 3월 8일.

47) 서울 흥천사는 원속전(元屬田)은 1백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항거승(恒居僧)은 1백 20명입니다. 개성 관음굴(觀音窟)은 원속전이 45결인데, 이번에 1백 5결과 수륙위전(水陸位田) 1백결을 더 주고, 항거승은 70명이며, 개경사(開慶寺)는 원속전이 4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명이며, 회암사(檜巖寺)는 원속전이 5백결이고, 항거승이 2백 50명이며,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륙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며,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결이고, 거승은 1백 50명입니다. 『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1424) 4월 5일.

## IV. 각림사 존재의 의미 - 수륙재 설행

수륙재(水陸齋)란 불교에서 등장하는 말로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며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가 행해진 시기는 고려시대이지만<sup>48)</sup> 억불정책을 펼쳤던 조선 전기(前期)에 꽤 성행하였다. 수륙재가 조선시대 처음 설행된 것은 태조 4년(1395)이다. 태조는 수륙재를 관음굴(觀音窟)·현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서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sup>49)</sup>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수륙재 설행의 기록은 총 47건으로 다음 표와 같다.<sup>50)</sup>

### 조선 초기 수륙재 설행 기록

왕명	날짜	장소	설행목적	내용
태조	4년 2월 戊子	관음굴(개성), 현암사(거제), 삼화사(삼척)	薦度	爲前朝王氏也
	5년 2월 乙卯	성문 밖 세 곳	薦度	役夫 혼령 위로
	7년 1월 甲寅	진관사(서울)	救病	上不豫
정종	1년 10월 己卯	홍천사 사리전(서울)	薦度	以薦先王先妣若顯妣諸亡子孥及前朝王氏
태종	1년 1월 丁丑	관음굴(개성)	長壽	宮中婦女 冀其子 延壽
	1년 1월 丁卯	진관사(서울)	火災 및 遷都	壽昌宮災 議還漢都
	1년 10월 辛未	진관사(서울)	天變	雷電大雨
	1년 10월 丁巳	대산 상원사(강릉)	天變	9월 기사에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임
	8년 1월 丁丑	덕방사(미상)	救病	太上之疾
	18년 3월 癸丑	진관사(서울)	薦度	誠寧大君의 齋
	1년 11월 戊申	진관사(서울)	薦度	定宗의 六齋
세종	4년 5월 壬戌	진관사(서울)	救病	太祖疾大漸
	4년 5월 乙酉	진관사(서울)	薦度	太宗의 三齋
	4년 6월 己亥	진관사(서울)	薦度	太宗의 五齋
	4년 7월 甲子	진관사(서울)	薦度	元敬王后의 大祥齋
	4년 8월 壬辰	진관사(서울)	救病	恭妃疾篤
	4년 8월 癸卯	진관사(서울)	薦度	太宗의 百齋
	6년 5월 癸未	진관사(서울)	薦度	太宗의 大祥齋
	14년 2월	한강		효령대군이 실시

48) 『고려사』 권93 열전6「최승로, 권을 보만 “이 폐단은 광종 때부터 시작된 일인바 그는 참소를 믿고 무죄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불교의 인교응보설에 미혹되어…귀박사에서 無遮水陸會도 베풀었습니다.” 하여 고려 광종 때 수륙제가 처음 설행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 전체를 살펴보면太祖 23년 無遮大會, 光宗 19년 水陸會, 光宗 22년 水陸道場, 光宗 水陸無遮大會, 毅宗 19년 정월 경신 水陸會, 忠穆王 4년 계사 水陸會 등 수륙재에 대한 기록은 6차례에 불과하다. 반면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수륙재에 대한 기록은 46건에 달한다.

49) 『태조실록』 권7 태조 4년(1395) 2월 24일.

50) 엄윤희, 「조선전기 진관사 수륙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2, 36-38쪽.

양지윤, 「조선전기 진관사 수륙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수륙재를 정리하면서 4건으로 보는데, 필자가 살펴 본 기록과 엄윤희 논문에서 정리된 기록수가 같으므로 이 표를 인용함.

	24년 8월 辛卯	황해도	救病	황해도 전염병
	28년 3월 己卯	산천	救病	중궁의 병환
	28년 4월 癸卯	진관사(서울)	薦度	昭惠王后 二齋
	31년 11월 丁丑	대자암(고양)	救病	세자의 병환
	32년 1월 甲子	용문산 상원사(양평)	救病	세자의 병환
문종	원년 2월 甲辰	진관사(서울)	薦度	世宗의 二齋
	원년 3월 戊午	진관사(서울)	薦度	世宗의 四齋
	원년 3월 壬申	진관사(서울)	薦度	世宗의 六齋
	원년 5월 庚午	진관사(서울)	薦度	世宗의 百日齋
	2년 3월 癸亥	경기의 주군	救病	경기도 전염병
세조	2년 7월 癸巳	諸道淸淨處	度厄(액막이)	度窮魂
	3년 9월 戊辰	진관사(서울)	薦度	왕세자 桃源君(德宗) 初齋
	3년 9월 乙亥	진관사(서울)	薦度	왕세자 桃源君(德宗) 二齋
	3년 9월 壬午	진관사(서울)	薦度	왕세자 桃源君(德宗) 三齋
	11년 5월 乙卯	봉산군 棘城 古戰場	救病	物故 吳 腰下不遂發病顛狂者甚衆
	12년 3월 壬戌	장안사, 정양사, 표훈사(금강산)		
	13년 6월 己亥	함경도 寺社	薦度	이시애의 난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천도
성종	원년 12월 甲寅	진관사(서울)	薦度	睿宗의 初齋
	원년 12월 辛酉	진관사(서울)	薦度	睿宗의 二齋
	1년 1월 己丑	진관사(서울)	薦度	睿宗의 六齋
	2년 11월 丙午	성불암(고성)	救病	황해도 惡疾
	5년 4월 辛巳	진관사(서울)	薦度	恭惠王后의 二齋
	5년 6월 丙辰	진관사(서울)	薦度	恭惠王后의 七齋(49제)
	14년 4월 甲戌	진관사(서울)	薦度	貞熹大妃 二齋
연산군	원년 12월 甲申	장의사(양주)	薦度	成宗의 齋
	1년 1월 辛卯	진관사(서울)	薦度	成宗의 二齋
	10년 윤4월 庚午	진관사(서울)	薦度	仁粹大妃의 二齋
현종	15년 6월	화장사(송도)	薦度	仁宣王后의 齋

※ 『조선왕조실록』 태조조~현종조.

태조는 창업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인명의 살상을 안타까이 여기었고, 특히 전조(前朝)의 왕실인 왕씨의 죽음에 대한 배려로 수륙재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정종에 이어 태종에게 계승되었다.

태조에서 태종의 재위기간에 개최된 수륙재는 불특정 다수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설행됨으로써 수륙재의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천도(薦度 : 죽은 혼령을 극락세계로 가게 함)하기 위한 근본 목적에 부합한다.<sup>51)</sup>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최되었던 수륙재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대에 접어들면서 이재(二齋)·육재(六齋)·칠재(七齋 : 49제)와 기신재(忌晨齋 : 해마다 죽은 사람의 기일에 지내는 재)를 비롯한 추천재(追薦齋 : 사람이 죽은 뒤

51) 심효섭, 「조선전기 수륙재의 실행과 의례」 『동국사학』 40집, 2004, 226-227쪽.

에 선(善)을 찾아가라고 기원하는 재)를 수록재와 합동으로 올리라고 하는 명이 내려짐으로써<sup>52)</sup> 변화가 생겼다. 즉 수록재가 불특정 다수의 영혼을 천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의례로 선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의식은 조선건국 초에는 법화법석(法華法席)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는데 법화법석이란, 법화경(法華經)으로 설법(說法), 독경(讀經), 강경(講經) 등을 행하는 것으로 천도재의 양식을 말한다. 그러나 1420년(세종 2)에 태종이 법석을 아주 없애 버리는 명이 내려지면서 법화법석의 용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다.<sup>53)</sup>

이상을 보면 천도재리는 큰 틀 안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수록재와 특정인을 위한 추천재가 있었고 이것들은 법화법석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가 세종 때에 이르면서 모두 수록재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록재에 법화법석을 포함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로 각림사에서 수록재가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황비(皇妣)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화엄경(華嚴經)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각림사가 완성되매 이 경(經)을 보내고, 또 유창에게 내향(內香)과 소(疏)를 주어 법회(法會)를 베풀어 낙성(落成)하였다.<sup>54)</sup>

성균관생(館生)과 집현전(集賢殿)에서 함께 상서(上書)하기를, ‘회암사(檜巖寺)의 중수(重修)를 금하기 청합니다.’ 하였는데, 그 말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나, 그러나, 암자를 짓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은 그 유래가 오래였다. 따라서 우리 태조·태종께서 연경사(衍慶寺)·흥천사(興天寺)·각림사(覺林寺) 등에서 혹은 법연(法筵)을 베풀어 그 교를 받드셨고, 나도 또한 강법(講法)하는 절에 가끔 향(香)을 내려 주었다. 더구나, 회암사는 태조께서 믿고 존중히 여기시던 곳이며, 또 대비(大妃)의 원불(願佛)이 걸려 있는 곳이라.<sup>55)</sup>

태종 17년의 자료는 변계량의 「각림사 증창을 경찬하는 소」 통해서 조금 더 자

52) 『세종실록』 권9 세종 2년(1420) 8월 22일.

53) 심효삼, 『조선전기 영산재의 성립과 양상』, 『보조사상』 제24집, 2005, 252-259쪽.

54)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1417) 9월 15일.

55)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1434) 4월 13일.

세히 살펴 볼 수 있다.

각림사는 일찍이 임금께서 행차하셨던 곳이오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참다운 경입니다. 마땅히 성스러운 곳에 성스러운 법회를 열 만합니다. … 이 낙성식을 베풀어서, 위(無) 없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한 자루의 향은 널리 시방(十方)의 세계를 향기롭게 하고 삼관(三觀)의 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밝혔습니다. … 이름난 절을 중창한 것은 옛날에 놀던 곳을 기념한 것이며, 참다운 경을 설(說)하여 드날리는 것은 저승의 명복을 빌고자 함입니다. … 이 낙성(落成)의 성스러운 법회에 의지해서 선조의 명령들을 천도하고자 청정한 중들을 모아 법화경의 미묘한 뜻을 말하게 하니, …<sup>56)</sup>

이와 같은 자료에서 수록재라는 특정 단어 표현은 없지만, 각림사에서 열린 중창 경찬회가 천도재의 성격을 가지며, 법화법석의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수록재와 같다고 본다. 이는 5년이 지난 세종 22년(1440) 2월 17일, 예조에 전지하여 주인(鑄印) 1개를 각림사(覺林寺)에 내려 주게 하였는데, 장차 수록재(水陸齋) 때에 쓰고자 함에서였다.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1440) 2월 17일. 각림사에서 수록재가 설행되었음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신조와 이성계, 원천석과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까지 이어지는 관계 속에는 각림사가 있었다. 창건연대를 알 수 없는 두세 칸의 황폐한 작은 사찰이었던 각림사는 여말선초 천태종 승려 신조와 함께 역사에 등장한다. 신조는 위화도 회군에서 활약하면서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조선 개창에 앞장섰다. 둘의 이러한 관계는 이방원에게 각인되었고, 이방원은 신조가 기거했다는 각림사

56) 『동문선』 권113, 변계량 「원주 각림사를 중창하고 경찬하는 법화경 법회를 여는 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  
57)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1440) 2월 17일.

에서 수학하면서 스승 윤곡 원천석을 만났다. 때문에 이방원은 누구보다 각림사를 각별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방원은 왕위에 등극한 후 어린 시절 수학했던 볼품없는 작은 사찰을 본래 사찰의 모습을 갖춘 곳으로 중창하고자 하였고, 황폐한 각림사는 태종과 태종의 뜻을 이은 세종의 후원과 지원으로 웅장한 사찰로 변모하게 되었다.

외형뿐만 아니라 각림사는 그 내부적 역할도 달라졌다. 각림사는 원천석이 근처 변암에서 지내면서 수십명의 스님들과 인연을 맺은 곳이고, 태종을 가르치면서 학문을 베풀었던 곳이다. 즉 정사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이후 각림사는 중창되면서 정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사찰의 기능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진관사를 비롯한 조선왕실의 많은 원당사찰과 수륙사를 제외하고 태종이 『화엄경』을 봉안 하면서 법회와 수륙재를 행하는 원당사찰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각림사의 신조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개창하고, 개국한 조선의 정신세계를 이끈 사찰 가운데 바로 각림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각림사가 단지 오랜 전통의 사찰 이름이었으며, 현 강림리의 지명이 유래된 곳이라고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림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뜻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횡성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며 무수한 세월 속에 숨어있던 각림사의 업적과 의미를 온 누리에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어 사라져가고 있는 각림사 존재의 재건을 통해 향토문화재로써 계승과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각림사 관련 문화유적지

### 〈각림사 시비〉

강림면 입구 앞 소공원내에 있는 각림사 시비는 2001년 11월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세웠다. 이 시비에는 각림사 경관에 취해 지은 춘정 변계량의 시문이 새겨져 있다.



### 〈시비 전경〉

시비는 도로변의 소공원에 있는데, 자칫 놓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 〈각림사지 표지석〉

각림사지는 시비에서 약 1km 거리로 현재는 강림우체국과 강림교회로 변하였고, 안내표지석을 통해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 〈각림사지 전경〉

안내표지석조차도 구석에 초라하게 있어, 각림사의 옛 명성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 〈태종대〉

강림면에는 각림사 보다는 각림사에서 인연을 맺을 태종과 원천석에 관련된 장소들이 많다. 그 중 태종대는 태종이 옛 스승인 원천석을 찾아 기다렸던 곳으로 주필대라 불렀다가 후에 태종대로 고쳐 불렀다. 각림사지에서 약 1.5km 거리로 치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다.



## 〈노구소〉

태종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안 원천석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노파에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거든 횡지암 쪽으로 자신이 갔다고 알려주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피신했다. 태종은 노파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원천석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후에 임금인 줄 모르고 거짓을 아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파는 죄책감에 자신이 빨래하던 바위 아래 소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 이 노파가 죽은 소를 사람들이 구연·노구소라 부르다가 현재는 노구소로

부른다. 각림사에서 약 1.5km거리의 강림2리 마을입구에 있다. 태종대와 각림사지의 중간위치이다.



### 〈노구사〉

노구소마을은 노구소에 빠져 죽은 노파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2005년 노구소가 바라보이는 곳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또한 매년 10월 21에는 추모제 행사를 하고 있다. 각림사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강림2리 노구소마을 입구 다리를 건너 직진하면, 정면에 언덕위에 있는 사당이 보인다.



## 〈배향산〉

결국 원천석을 만나지 못한 태종은 원천석이 있다는 산을 향해 절을 하고 돌아갔는데, 태종이 예를 다해 절을 했다는 산을 배향산 이라고 한다. 태종대에 오르면 왼편에 보이고, 노구사 정면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다. 부근에는 태종의 수레가 넘었다는 수레넘이 고개가 있다.



## 〈횡지암〉

횡지암에는 두가지 설화가 내려오는데, 하나는 노파가 태종에게 원천석이 간 곳을 빗 가르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자의 난으로 왕권을 장악한 이방원을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한탄한 곳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치악산국립공원과 강림면 식수원으로 지정되면서 아쉽게도 출입이 통제되었다.



## 조선 인조대(代) 이인거 난(亂)에 관한 소고



\* 진연호(陳演鎬)

### I. 서론

역사인물을 오늘날의 가치기준으로 재평가 하는 일은 역사를 재해석 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순한 지방반란으로 여겨져 왔고, 또는 빈번했던 당시 일련의 유사한 사건과 동일하게 인식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 인물과 사건을 살펴 그 의의를 조심스럽게 평가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역모(逆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었다. 그 중 조선 인조(1623-1649)대는 그 혼란상이 극에 달했다. 서인의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는 정묘, 병자 두 차례의 호란(胡亂) 뿐만 아니라 안으로 크고 작은 수차의 역모사건에 시달려야 했다. 그 중에는 서인집권세력과 정적(政敵)인 남인세력과 정치실권장악을 위한 다툼에서 왜곡, 확대된 것도 상당수 있을 수 있겠으나, 인조의 26년 재위 중 즉위 초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역모의 토벌로 인한 4차례의 공신책록(功臣策錄)이 있었던 사실은 그 모두가 정적축출을 위한 서인들의 음모, 조작이었다고 선불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중 이괄(李适)의 난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그 연구와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 동안 역사 연구에 있어서 수많은 지방의 항쟁과 항거의 사실들이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반란, 민란으로 쉽게 치부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는 수많은 지방의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의 외형적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의 다소에 의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구한 역사의 흐

를을 파악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들의 배경과 정신을 냉철히 살펴야 하며, 나아가 역사 속에 그 위치를 정당히 자리 매김 해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 동안 ‘지방 한 촌로(村老)의 허무맹랑한 정권욕’ 정도로만 인식되어 온 인조 5년 9월, 강원도 횡성의 이인거의 난을 고찰해 보려 한다. 이 인거의 난이 그 동안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전술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인조가 피난을 가는 등의 큰 영향을 미친 이괄의 난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별다른 피해와 전투없이 쉽게 진압되었고, 그 주동자인 이인거를 비롯해 그 동조자들 어느 누구도 주목할 만큼 두드러진 인물이 없었다는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그리고 반정공신 간의 붕당(崩黨)싸움과 서인 남인 간의 정치적 갈등 등 당대 정치권을 주도하고 전면에 드러난 어떤 세력과의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가들로 하여금 눈길을 돌리지 못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이인거의 난 만이 갖는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인거의 개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주동된 1627년의 난의 전개과정을 살펴 당시의 국,내외 정세가 70세가 넘는 노년의 시골 유생신분인 그가 군(軍)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그의 반란이 적어도 맹목적인 정권획득이나 진주(眞主)를 세우는 반정의 차원을 넘어 철저한 유교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에서 발로한 민중운동의 성격임을 밝히려 한다. 그리고 한편 이인거의 난이 후일 연달아 일어나는 유사한 반정, 역모의 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들과 달리 유일하게 외세 청(淸)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 애국적 민족의식 각성으로서의 그 의의를 밝히려 한다.

## II. 본론

### 1. 이인거의 생애

이인거에 대한 기록은 도처에 보이나 그 구체적 연구는 아직 없다. 『橫城縣邑誌』, 『橫城郡誌』, 『仁祖實錄』 등을 종합해 보면, “그의 본관은 영천(永川)<sup>1)</sup>이며, 교리(校理)를 지낸 추(樞)의 손자이다.<sup>2)</sup> 라고되어 있는 데 출생에 대한 기록은 미상이나 『인조실록』 5년 10월 5일 기록에 “만약 또 형(刑)을 가하면 70세가 된 자여서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sup>3)</sup> 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생년은 1557년 전후로 추정된다. 『橫城縣邑誌』 이문(異聞)의 기록에는 “어려서부터 본현에 은거해 처자와 더불어 몸소 받을 갈며 살았다.”<sup>4)</sup> 기록이 있고, 『橫城郡誌』에는 “그가 처음 횡성에 들어온 것은 우천면 추동(楸洞)<sup>5)</sup>이고 후에 둔내면 영랑리, 속칭 가래골(楸洞)에 은거하였다.”<sup>6)</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조반정후 수차의 상소를 올려 그로 인해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sup>7)</sup> 이라는 벼슬에 발탁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직하자 주위에 더욱 고명한 처사로 명성이 자자하였다.<sup>8)</sup> 특히 인조는 친히 이인거를 대면하고자 서울로 올라올 것을 명함에 이인거가 서울로 행하던 중에 원주에 이르러 서울에 올라가면 필히 고향으로 내려 보내 주지 않을 것을 짐작해 병을 빙자해 서울로 올라갈 수 없음을 고하자 인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그 후 재이(災異)가 계속되자 또다시 상소를 올렸으며 인조는 그것을 가상히 여겨 감사에게 명하여 음식 등 찬물을 내려 주었다. 이러한 이인거는 반정공신들의 계속되는 봉당싸움과 정묘호란후 최명길(崔鳴吉) 등을 중심으로 청과의 화친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627년 9월 28일,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간신을 처단하고, 측근의 악한 무리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권, p.169.

2) 『橫城縣邑誌』 異聞條 ‘李仁居校理樞之孫也’.

3)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丁卯 10月 5日條 ‘若又加刑則七十之人必至殞命’.

4) 『橫城縣邑誌』 異聞條 ‘自少隱居本縣與妻子躬耕’.

5) 1983年 1月 10日 大統領令 第11027號로 橫城邑에 編入.

6) 橫城郡, 『橫城郡誌』, 1986, 152쪽.

7) 筆者註, 朝鮮時代 王世子를 모시고 護衛하는 任務를 맡았던 西班牙官廳으로 兵曹의 屬衙門이며, 左右翊贊은 正6品職이다.

8) 燃藜室記述 第24卷 仁祖朝 李仁居 獄事 條.

를 숙청하며, 오랑캐 소굴을 정벌하여 국치를 씻겠다<sup>9)</sup> 는 주장 하에 스스로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sup>10)</sup> 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켰다.<sup>11)</sup> 현아를 점령한 이인거는 옥문을 열고 군기를 탈취하여 충청, 호남<sup>12)</sup> 으로 진군하여 군량을 확보하고 군대를 충원하고자 했으나<sup>13)</sup> 9월 30일<sup>14)</sup> 원주목사 홍보(洪寶)에게 진압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참형되었다.

이상에서 이인거의 약사를 살펴보았는데, 이로 미루어 이인거는 비록 궁벽한 시골에 은거하고 있었으나 철저한 정책관찰자요, 정책에 대한 활발한 조언자였음을 알 수 있으며, 상당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벼슬을 사직하고 수차에 걸쳐 찬물 등을 하사받음으로 향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후일 수백 명의 추종세력 규합에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군사를 일으켜 곧바로 서울로 향하지 않고 군량과 군대의 확보와 충원을 위해 충청, 호남으로의 진군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무리들과도 내통해 치밀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한 대규모의 무력행사를 준비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전의 경험이 없고 훈련이 부족했던 농민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관군이 일부 합류하여 주력군이 되었으나 큰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궤멸한 것이 그의 반란이 단기간에 끝나는 이유가 되었다.

## 2. 이인거의 난의 배경과 원인

이인거의 난의 배경이 된 17세기 초 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내,외적으로 무척 혼란한 시기였다. 16세기 말 부터 계속 된 당쟁(黨爭), 왜란(倭亂), 살제폐모(殺弟廢母) 다시 당쟁, 반정 거기에 호란으로 이어지는 세상은 내우외환이 혹독

9) 『仁祖實錄』 卷17 丁卯 10月 1日條 ‘請斬主和賣國之奸臣 以雪殿下萬世之恥然後 肅拜西下’ .

10) 橫城郡,??橫城郡誌』 에는 ‘倡義大將軍’ 이라 되어있음.

11) 『燃藜室記述』 第24卷 仁祖朝 李仁居獄事 丁卯年 9月 28日條.

12)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燃藜室記述』 第24卷 ?仁祖朝?에는 湖西와 嶺南으로 되어있음.

13)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14)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燃藜室記述』 第 24卷 「仁祖朝」 와 『大東野乘』 第31卷에는 10月 1日로 되어있음.



하기는 조선의 처음이었고 민심은 어지러워 질대로 어지러웠다. 이 과정에서 대북파를 중심으로 한 광해군이 그 패륜적 행위와 정치적 실패로 인해 끝내 이귀(李貴), 김유(金瑬), 김자점(金自點), 이괄(李适) 등의 서인세력에 의해 폐위되고 대북파는 몰락한다. 하지만 반정 후에 서인집권세력 내에서 그 공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봉당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중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자는 이괄이었다. 그는 2등공신에 봉해져 한성판윤(漢城判尹)이 되고, 그의 동생 추(遂)와 아들 전(旣)은 논공에서 조차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평안도의 변환을 계기로 평안병사(平安兵使)에 발탁되자 불안을 느껴 부하인 기익헌(奇益獻), 한명련(韓明璉) 등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것이 이괄의 난(1624)인데, 반란군은 남하하여 서울을 함락하니, 인조는 공주로 피난하였으며, 이괄은 선조의 열 번째 아들 흥안군(興安君)<sup>15)</sup>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장만(張晩), 정충신(鄭忠臣)의 추격을 받은 이괄은 도망하다 붙잡혀 기익헌에게 피살되었으며, 난은 평정되었으나 그 피해는 자못 컸다. 이괄의 난이 겨우 평정되자 조정은 다시 당파싸움으로 어수선했는데 그것은 동궁빈간택문제(東宮嬪簡擇問題)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동궁빈에 윤의립(尹毅立)의 딸이 뽑혔으나 공신들이 들고 일어나 그중 김자점과 심명세는 사간(司諫)<sup>16)</sup> 이상급(李尙僂)을 시켜 반대하게 했다. 그 이유는 ‘윤씨는 역적의 집안이요, 바로 윤의립의 형 경립의 아들이 윤인발인데 그는 이괄에게 붙어 인성군(仁城君)<sup>17)</sup>을 내세우려 하다가 전사한 역적인데 어찌 적의 사촌누이를 동궁빈으로 정당하던 말인가.’ 하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사사로운 일에까지 신하가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김자점, 심명세, 이상급 일파를 내쫓았다. 이러한 기회에 목성선(睦性善)이 임금편을 들자 임금은 그를 정언했다하여 칭찬하자 이명환, 이성구, 김

15) 興安君(?~1624)의 이름은 提이며 宣祖의 10子이다. 1624年 李适의 亂에 그들과 內通했다는 說이 있어 대간이 주청하여 남쪽에 인치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치 않았다. 왕과 함께 公州로 避難중 李适의 軍中에 들어갔으며 李适의 추대에 의해 왕이 되었다가 判軍의 승전으로 昭川에 숨었다가 兪謙 安士誠에게 체포되어 道원수 沈器遠에게 살해되었다(仁祖實錄, 大東野乘).

16) 司諫院의 從 3品 벼슬.

17) 仁城君(1588~1628)의 이름은 璜이고 宣祖의 7子이다. 12歲에 仁城君으로 책봉되었고 李适의 亂後에 杆城으로 귀향 보내졌으며, 후에 原州로 옮겼다가 어머니 閔氏의 위독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1628年 柳孝立의 亂에 王으로 추대되었다 하여 珍島로 유배되어 자살을 강요받고 죽었다. 1637年 복관되었다. 詩號는 孝愍이다(仁祖實錄, 燃藜室記述).

상헌 등이 목성선의 상소를 분서하려 하였다. 이것은 남인과 서인의 싸움이 되어 선조의 딸기와 같이 여러 파로 갈라져 그 파쟁이 귀착하는 곳을 예상할 수 없었다. 그 뒤 정묘년에는 인천사람 김원이 김류 부자의 전횡이 나라를 그르친다 탄핵하는 사건이 생기자 다시 공신인 서인이 이귀와 김류의 봉당으로 갈라져 싸움에 영일이 없었다.

이러한 내적 혼란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대륙의 판도도 급변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7년 전란을 틈타 일어난 여진족은 1616년 누루하치의 부족통일로 후금(後金)을 세우고 명(明)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는데 광해군의 중립적 외교와는 달리 반정부 집권한 서인정권은 친명배금책을 노골화하여 청에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이즈음 이미 청이 요동을 치자 쫓겨온 명의 장수 모문용(毛文龍)은 조선이 철산에 들어와 진을 치고 청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것이 명을 공략하는 청에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청은 조선과 명의 연맹을 두려워 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이괄의 잔당들이 청에 투항하여 인조 즉위의 부당성과 조선 우선정벌을 종용하여 정묘호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다. 1627년 1월 14일, 3만의 청군은 침입하여 의주, 평양을 거쳐 열하루 만에 황주에 이른다. 황급해진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갔고, 16세의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전주로 가서 분조(分朝)를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했다. 강화도에 갇혀 있던 조정은 교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척화(斥和)와 주화(主和)로 갈라져 국론의 통일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최명길(崔鳴吉) 등의 주화론이 우세하여 형제맹약, 조공약속, 국경호시 등을 골자로 정묘조약을 맺고 강화한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황성 둔내의 두메에 은거하던 이인거는 서인과 남인의 당쟁, 서인간의 봉당으로 영일이 없는 조정에 대한 불만과 오랑캐와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등 주화파에 대한 불만으로 비로소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데, 또 하나 초기 자신의 의견을 중시하던 인조가 점차 소신없는 실정을 거듭하게 되는 것도 이인거의 개인적인 반란도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3. 이인거 난의 전개과정

이인거의 반란 소식이 최초로 조정에 올라오게 되는 것은 정묘(1627) 10월 1일<sup>18)</sup>, 횡성의 유학 진극일(陳克一)에 의해서다. 진극일은 선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냈던 사람으로 그의 사촌 진탁은 이인거의 사돈으로, 이인거의 난에 진탁의 아들 진광흡(陳光洽)이 이인거의 손자사위로 참여했다. 진극일의 상변 내용은, “현에 사는 전 익찬(翊贊)<sup>19)</sup> 이인거가 지난 달<sup>20)</sup> 27일 본도 감사를 만나 소본을 바치고 나서 29일 무단히 군사를 일으켜 본현의 군기를 탈취하여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자칭하였습니다. 횡성현감이 원주로 피신하여 임금께 알리고자 감히 이렇게 고합니다.”<sup>21)</sup>내용이었다. 곧이어 원주목사의 보고가 잇게 되는 데 그것에는 난의 정황이 더욱 자세히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의 대략은, “이달 26일, 신이 감사 최현(崔暉)을 따라 횡성현에 갔는데 현에 사는 전 익찬 이인거가 와서 감사에게 ‘내가 소를 올리고자 한다.’ 함으로서 감사가 ‘상소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니 인거가 말하길, ‘노적과 화친하므로 의병을 일으켜 곧바로 서울로 향하여 화친을 주장하는 간신 한 사람의 머리를 베기를 청하고 그대로 서쪽으로 가서 적을 토벌하겠다.’ 하자 감사가, ‘그렇다면 서쪽으로 간 후에는 곧바로 오랑캐 소굴을 치겠다는 것인가.’ 하니 인거가 답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28일 아침에 감사가 흥천으로 출발함에, 그때 신이 횡성현감 이탁남(李擢男)과 같이 인거를 찾아가 보니 인거가 상소문 초안을 내보였는데 고약한 말이 많았습니다. ‘군사는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나 모집하였는가.’ 하니 인거가, ‘수백명 모집하였다.’ 하였다. 감사가 횡성현감 이탁남에게 자세히 탐지하여 치보토록 하였기로, 신은 즉시 관아로 돌아와 장관(將官)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모아 변에 대비하였습니다. 29일 횡성현감 이탁남이 달려와 ‘인거가 제멋대로 본현의 장관, 출신(出身)<sup>22)</sup> 등에게 전령하여 군병을

18)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19)世子翊衛司翊贊.

20)仁祖 5年(1627) 9月.

21)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日條. ‘十月朔甲午,江原道橫城幼學陳克一上變曰,縣居前翊贊李仁居,去九月二十七日往見本道監司呈疏本,二十九日無端起兵奪取本縣軍器,自稱倡義中興大將,橫城縣監避之原州,欲達天廳,敢茲來告’.

모으고 있다.’ 고하니, 인거가 역모한 현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이 이탁남과 군마를 거느리고 나아가 토벌하려 하는 한편 감사가 다른 고을에 순시 중이기에 신이 보고 들은 바를 치계합니다.<sup>23)</sup> 하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 감사가 치계한 이인거의 소가 뒤를 잇게 되는 데 그것은 인거의 성향과 반란의 목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인거의 소에는 청과 화친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행하는 인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탄핵내용 뿐만 아니라 반정공신과 최명길 등을 처단하여 주위를 맑게 하라는 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며, 왕이 친히 이를 행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특별병권을 줄 것과 그렇지 않으면 거병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운이 불행하여 이처럼 어렵게 되었는데 신은 천심이 왜 전하께 노하여 이러한 변이 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적변 이래로 몸소 갑옷을 입으시고 바람과 이슬을 피하지 않으면서 조종께서 배양해 놓으신 여러 신하와 더불어 콩죽과 보리밥을 먹고 와신상담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성껏 하늘에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귀신을 감동시키고 천지도 감격시켰을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적을 제압하면 어느 적인들 꺾지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중흥할 수 있는 근본은 오로지 이에 있는데, 이는 하지 않고 안으로는 오랑캐의 사신 접대를 일삼고 밖으로 눈치나 살피는 것으로서 계책을 삼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천지와 귀신이 함께 분노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흉노는 스스로 천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천하의 큰 역적입니다. 제 아버지를 죽이고 어미를 아내로 삼으니 이른바 견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백년의 역사를 지닌 예의의 나라가 도리어 견융의 땅이 되었으니, 종사는 어디에 의지하고 성묘는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랑캐의 풍습을 차마 하겠습니까. 생각

22) 科擧及第者를 일컫는 말이나, 官職에 登用 된 者 뿐 아니라 登第는 했은 職責을 받지 못한 者도 일컫는 말이다.

23)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原州牧使洪寶馳啓曰, 本月二十六日, 臣隨監司崔暉, 來到橫城縣, 縣居前翊贊李仁居來見監司曰, 吾欲陳疏云, 監司曰, 所欲陳者何事, 仁居答曰, 朝廷與奴賊相和, 欲起義兵, 直向京城, 請斬主和奸臣一人頭, 仍西下討賊云, 監司曰, 然則西下後, 欲直壽奴穴乎, 仁居曰, 巢穴則不可入也, 監司曰, 賊已撤還, 欲擊何賊, 仁居不答, 須更辭出, 二十八日朝, 感謝發向洪川, 時與臣及橫城縣監李擢男, 往見仁居出示疏本, 多有悖慢之語, 監司曰, 兵在何處而所得幾許, 仁居曰, 已募數百餘名云, 監司令臣及橫城縣監, 細探馳報, 臣即還官, 傳令將官, 聚軍對變, 二十九日橫城縣監李擢男馳來言曰, 李仁居擅自傳令於本縣將官出身等, 聚會軍兵云, 仁居爲逆之狀, 明白無疑, 臣與李擢男, 領率軍馬, 一邊進巢, 而監司出巡他邑, 臣從聞見馳啓.’

이 이에 미치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편안한 것만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몸은 빈천하나 성품은 사람이니 의리를 따져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대의를 앞장서서 제창하여 분연히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하건대 신이 군사를 일으킨 것을 망령되다 하지 마시고 특별히 병권을 내려 주시어 토적의 대의를 꺾게 한다면 화친을 주장한 매국의 간신을 목 베어 전하의 만세수치를 씻은 후에 숙배하고 서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신은 너무나 강개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sup>24)</sup>

여기서 이인거의 행동을 일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혼란한 정국과 청과의 화친과정을 주시하던 이인거는 평소 자신과 가까이 지내며 뜻을 같이하던 황성의 유학 조대인(趙大仁), 조흥인(趙興仁) 등과 모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무력행사를 결의하고 군을 모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세 아들, 신백(新白), 중백(重白), 자백(自白) 중 막내아들 자백이다. 자백은 우선 황성현의 장관으로 있던 김득명(金得命)<sup>25)</sup>을 찾아가 ‘오랑캐를 치는 일은 매우 쉬운데도 나라에서 하지 못하기에 아비가 소를 올려 토벌코자 하니 너는 나와 함께 일해야 한다.’<sup>26)</sup>고 하여 가담시키고 중군(中軍)을 맡긴다.<sup>27)</sup> 출신 고찬(高瓚) 역시 자백에 의해 가담하였는데 이인거의 군에서 장관을 맡았으며<sup>28)</sup> 고계립(高繼立), 고대립(高大立) 형제는 육촌 조대인이 ‘나라에서 오랑캐와 더불어 강화를 했으니 어찌 차마 같은 나라에서 살겠는가. 만약 의병을 모집하여 한두 고을 약탈하면 군사의 형세가 반드시 성대해질 것이다. 그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니 너희도 함께 가

24)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日條. 『疏曰.國運不幸.屬此歎虞.臣未知天心何所怒於殿下.而有知此之變乎.是宜殿下自賊變以來.躬練甲冑.不避風露.與祖宗休養群臣.豆粥麥飯.臥薪嘗膽.同心同德而至誠祈天.則可以感鬼神格天地.而況於人乎.以此制賊何賊不推.以此圖功.何功不成.殿下中興之本.專在於此也.此之不爲.而內以胡差接待爲事.外以譏察爲謀.其故何歟.此所以天地神人之所共憤也.大抵匈奴者.自絕于天.故天下之犬戎也.殺其父妻其母.所謂犬戎者此也.二百年禮義之封疆.反爲犬戎之地.則宗社何依聖廟何託.被髮左?.其可忍乎.思之至此不若早死之爲安.故臣身雖貧賤.性則人也.參以義理則固歎不出.故臣首倡大義.奮然起兵.伏願殿下.勿以臣之起兵爲妄.而特賜兵權.曲副討賊之大義焉.請斬主和賣國之奸臣以雪殿下萬世之恥然後.肅拜西下.臣無任慷慨憂恐之至』.

25) 金得命에 대한 記錄은 없으나 다만 『仁祖實錄』 에는 서얼 출신으로 橫城縣의 將官으로 있었으나, 李仁居 亂에 휘하 70여명의 官軍을 이끌고 應募하여 中軍이 된다.

26)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擊胡甚易.而國家不能焉.吾欲上疏請討.爾宜與我同事.’

27) 同上.

28) 同上.

자.’<sup>29)</sup> 하는 말에 장관으로 응모한다.<sup>30)</sup> 또 김여약(金汝諭)은 자백에 의해 역시 인거군의 장관이 되고, 현의 김유(金裕)는 종사관(從事官)<sup>31)</sup>이 되었다. 이인거에 대한 『橫城郡誌』의 기록을 보면, 이인거는 지금의 횡성읍 추동리에 살다가 다시 둔내면 영랑리, 속칭 가래골(楸洞)<sup>32)</sup>에 은거하면서 인근 품팔이꾼을 모아 스스로 자신을 창의중흥대장이라 칭하고 약 300명을 훈련시켜 서울로 쳐 올라가기 위해 횡성 현아를 점령, 무기고를 약탈하다가 원주목사 홍보와 횡성현감 이탁남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처형되었다. 이인거는 슬기로운 누이를 참모로 거느렸으며 이곳 영랑천변에 진을 치고 병사를 훈련시켰는데 앞산인 안산과 가래골과의 양기슭 바위를 건너 뛰는 힘과 재빠름을 보였으며, 둔방내리 창말(倉村)<sup>33)</sup>에 있는 창고에 창과 칼을 숨겨 두었다가 병졸들을 거느리고 쳐내려 가려 하자, 참모인 그의 누이가 현내에 있는 세 개의 가래골<sup>34)</sup>에서 훈련을 쌓아야 난을 성공할 수 있으니 갑천의 추동(가래골)에서 훈련을 쌓은 후에 진군하라고 반대하자 누이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히 누이의 목을 베고 쳐내려 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때 안흥면 소사리 봉화산<sup>35)</sup>에 봉화대가 있었는데 이인거의 무리가 지나가며 당시 통신망이던 봉화대를 부수고 봉화지기를 죽여 버렸기 때문에 그 후 영원히 폐쇄되었다<sup>36)</sup>고 쓰여 있다.

이 기록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인거가 거사를 준비한 거점이 지금의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의 추동마을이라는 것과 이곳에서 반란군을 훈련시켰으며 다수의 무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인거의 힘과 재빠름에 대한 것은 그의 당시 나이가 70세 전후였다는

28) 同上.

29) 同上. ‘臣之六寸趙大仁.往見仁居.還言于臣曰.國家與虞講和.豈忍同國而生.若募得義軍.仍掠一二邑.則軍勢必盛.欲舉兵入京.汝須偕往.’

30) 『仁祖實錄』 卷17 仁祖丁卯 5年 10月 5日條.

31) 各 軍營에서 主將을 보좌하는 官職. 또는 事行中 생긴 일을 記錄하는 벼슬.

32) 橫城郡, 『橫城郡誌』 1986. 200쪽 ‘屯內面 永浪里 6班에 있는 마을로 朝鮮 仁祖 때 李仁居가 叛亂을 일으켰다는 터가 있으며 지금도 가래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33) 橫城郡, 『橫城郡誌』 1986. 179쪽 ‘屯坊內里라는 地名은 창말, 倉村, 蒼村이라는 데서 由來하였고 朝鮮時代 政府의 糧穀과 兵器를 쌓아두었던 倉庫가 있었던 데서 根據한다.’

34) 세 개의 가래골은 橫城邑 楸洞里, 屯內面 永浪里 楸洞마을, 甲川面 秋洞里를 일컫음.

35) 安興面 所思里, 屯內面 弓宗里, 隅川面 上岱里에 걸쳐 있는 높이가 670m의 산으로 朝鮮時代 烽火臺 터가 있음.

36) 橫城郡, 『橫城郡誌』 1986. 152 - 153쪽.

것으로 보아, 후일 그에 대해 미화된 구전으로 보이며, 세 추동(楸洞, 秋洞: 가래울, 가래골)에 대한 것과 누이에 대한 것은 후일 이에 부합시키기 위한 작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준비를 갖춘 이인거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내보이는 것은 인조 5년(1627) 9월 26일<sup>37)</sup> 강원감사 최현(崔暉)이 황성현을 순행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감사 최현, 원주목사 홍보, 황성현감 이탁남이 있었는데 이인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고 상소를 조정해 치계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감사는 그의 뜻이 매우 불손함을 알고 있었으나 왕으로부터의 신임이 있던 자이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왕의 명을 받아 찬물을 전한 일이 있기에 지금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이인거를 토벌하는 것은 간신을 베는 것을 명분으로 임금의 측근을 숙청하는 것이 되며, 중한 명망이 있는 그를 문답한 말로만 치죄한다면 조정이 믿지 않고, 온 나라가 처사를 모함하였다고 들고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다만 목사와 현감에게 거동을 계속 탐지하여 치보토록 명하고<sup>38)</sup> 28일 홍천으로 떠난다. 원주목사 홍보는 이인거를 알고 있는 황성의 유학 진극일을 불러 이인거의 거동과 의중을 알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진극일이 이인거를 만나보고 그의 거사계획이 확고함을 확인하여 보고하자 홍보는 원주로 돌아와 변에 대비하게 된다.<sup>39)</sup> 29일, 상소의 비답을 기다리지 못한 이인거는 군사를 움직여 황성으로 나오게 되며 길목에 봉화대를 부수어 서울로의 신속한 연락을 차단하였다.<sup>40)</sup> 황성에 이르자 이미 준비하고 있던 현의 장관 김득명의 도움으로 쉽게 현아를 점령하고 그의 휘하 70여명의 관군을 얻을 수 있었다.<sup>41)</sup> 황성현감 이탁남은 상황의 불리함을 알고 원주로 도망하였는데 이인거는 장관 고찬, 고계립 등을 시켜 체포토록 하였으나 실패하였다.<sup>42)</sup> 현을 점령한 이인거는 막내아들 자백을 초관, 황성 본현의 장관이던 김득명에게 중군을 맡기어 진을 쳤으며, 고찬, 고계립에게도 군을 분치하여 원주의 길목을 지키게 했다.<sup>43)</sup> 조동걸 교수의 『橫城과

37)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38)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39)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40) 橫城郡, 『橫城郡誌』 1986. 200쪽.

41)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3.1運動』이란 책에서는 횡성현감 이탁남을 묶어놓고 병기를 빼앗았다<sup>42)</sup>는 내용이 있으나 어느 사료의 인용인지 언급이 없어 알 수 없으며, 후일 진압 후 이탁남이 이등공신에 책록되는 것으로 보아 사료의 원문 해석상 오류인 듯하다. 이 인거는 이즈음 현의 병기고를 열어 상당수의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임난 후 편성된 지방방위체제상 강원도를 보면, 군사적 통할구역이 네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영동지방<sup>43)</sup>은 종전처럼 하나로 두고, 영서지방은 북부, 중부, 남부로서 철원부사가 방어영장을, 춘천부사가 우영장을, 그리고 횡성현감이 중영장을 맡고 있었음<sup>44)</sup>으로 보아 중영장 횡성현감의 본현에 상당수의 무기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關東誌』의 「原州鎭管屬橫城縣」보면 횡성현의 鎭管屬의 軍이 ‘中軍1員, 摠1員, 別將1員, 把摠<sup>45)</sup>1人, 鎭管兵房1人, 執事2人, 討捕兵房2人, 東伍哨官<sup>46)</sup>3人, 旗牌官12人, 別武士兵房1人, 大正<sup>47)</sup>1人, 官軍官兵房2人, 旗手哨官1人, 都訓導5人, 出使軍官10人, 作隊哨官1人, 作隊127名’인데 기록은 포(砲) 이하는 생략한 기록이다. 이 기록만 보더라도 횡성현의 군은 상당한 수에 이르는 데, 이인거난 시에도 이에 달하는 수의 군이 있었음으로 보여지며 이들이 어디까지나 정원이었고 실재는 이에 못 미쳤다고 감안하고, 또한 군이 모두 현아에 진주하지 않고 현내 요지에 분치되었다 하더라도 현이 쉽게 점령되고 현감이 응전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은 이인거군의 규모와 위세가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보를 받은 조정에서는 선전관<sup>48)</sup>과 승전색<sup>49)</sup>을 파견하여 이인거 집안의 문서를 수색케 했고, 해당 부로 하여금 그 처자를 잡아오게 했다.<sup>52)</sup> 그리고 감사 최

42) 同上.

43)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5日條.

44) 橫城郡, 『橫城郡誌』 第1篇 總論, 4章 人脈, 153쪽.

하지만 필자는 ‘李擢男이 後에 二等功臣에 策錄되는 것을 보아 조동걸 교수의 글은 誤謬인 듯 하며 그러한 內容의 史料는 찾을 수 없다. 또 조동걸 교수는 李仁居 軍이 原州로 進擊 중 원주군 장암리에서 洪寶의 官軍과 激戰해 大敗하였다고 敘述했으나 이러한 記錄도 역시 찾을 수 없다.’

45) 嶺東地方은 江陵府使가 右營將을 맡고 있었으나, 別途의 右營將을 任命한 때도 있었다.

46) 橫城郡, 『橫城郡誌』, 1986. 第1篇 總論, 44쪽.

47) 壬辰倭亂後 속오법에 따른 軍制의 하나인 司의 지휘관으로 약 600명 단위의 部隊長.

48) 朝鮮 時代 從9品 武官職, 100명 단위의 部隊인 哨을 통솔.

49) 朝鮮시대 허부단위 部隊인 隊의 長인 武職, 1隊는 25人.



현을 문책하여 오숙(吳黻)을 새로이 감사로 차송하고, 수원의 군병을 전령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했다. 또한 다른 연결된 곳이 있을까 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 은밀히 하유하고 신경인(申景湮)을 토포사로 삼아 포수 7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양주로 가게 하였으며, 초군은 양주의 영장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다. 또 성안의 수비를 엄밀히 하기 위하여 호위대장으로 하여금 모두 궐문 밖에서 군관을 거느리고 직속하게 하였으며<sup>53)</sup> 동대문 밖에 1진을 두어 성안의 성세로 삼았으며, 송영망(宋英望)으로 하여금 어영군(御營軍)을 거느리고 동관왕묘에 진을 치게 하였다.<sup>54)</sup> 한편 횡성과 서울은 겨우 몇 일 거리이기 때문에 호위대장의 군관 중 20-30명을 차출하여 각 참(站) 마다 파견하여 상황을 전달토록 하고 적정을 탐지하여 치보토록 하였다.<sup>55)</sup> 또한 이일원(李一元)은 여주, 이천, 양근<sup>56)</sup>, 지평<sup>57)</sup> 네 고을의 군사를, 유림(柳琳)은 양주의 군사를, 이경용(李景容)은 광주, 죽산에 소속된 네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南漢山城에 들어가게 하고, 水原防禦使 李時白은 본부의 軍士를 거느리고 서울로 들어와 호위하게 하라는 전령을 충융사와 경기감사에게 내렸다.<sup>58)</sup> 한편 김유는 왕에게 호서지방의 길을 미리 방비하기 위하여 청주목사 심기성(沈器成)으로 하여금 충주로 달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sup>59)</sup>

이렇게 서울에서 정확한 정황을 모르고 분주할 때 원주목사 홍보는 홍천에 머물고 있는 감사 최현에게, ‘인거의 아들이 횡성현아를 점령하여 군기와 활 30여장을 훔쳐냈으나 금지시키지 못하였다.’<sup>60)</sup> 치계하는 한편, 29일 본주<sup>61)</sup>의 군병을 모아 중군 신경영(辛慶英)을 좌영장으로, 전 사과(司果)<sup>62)</sup> 원극함(元克咸)을 우영장으로, 전 현감 이윤남(李胤男)을 중영장으로 삼아 군병을 나누어 주었으

50) 왕의 傳旨를 알려주며, 王命을 傳令하는 벼슬.

51) 임금의 뜻이나 命令을 받아 關係官에게 傳達하는 벼슬.

52)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53)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54)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55)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56) 現 京畿道 楊平郡.

57) 現 京畿道 加坪郡.

58)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日條.

59)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1日條.

며<sup>63)</sup>, 자신은 계원군을 이끌고 횡성현감 이탁남과 함께 30일 일시에 진군하였다.<sup>64)</sup> 이때 좌중에서는 군의 대오가 아직 정연하지 않다고 하여 기다리자 했으나, 홍보는 적의 세력이 치성하면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여 듣지 않았다.<sup>65)</sup> 이인거와 고찬은 본현의 군사를 이끌고 읍내 동쪽 고개에 진을 치고, 고계립, 고대립 등은 현의 사람을 이끌고 동북쪽 변두리에 진을 치고는 포와 활을 쏘면서 저항하였다. 홍보의 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진군하자 그 위세에 놀려 본현의 관군을 이끌고 있던 중군 김득명과 고찬은 “의병의 이름을 하고 서로 싸울 수 없다.”<sup>66)</sup> 하여 전의를 잃고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이에 농민군은 가장 큰 전투력인 관군이 흩어져 도망하자 그 꼴을 보고 도망하고 투항하여 마침내 진압되었다.<sup>67)</sup> 홍보는 이인거를 비롯해 세 아들, 그리고 장관 김득명, 고찬, 고계립, 고대립, 김여약 등과 군병 윤이 등 16명, 이인거의 손자 사위 진광흡과 고찬의 매부 강몽호, 종사관 김유 등과 조홍인, 조대인, 이인거의 손자 이시영 등 동당을 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sup>68)</sup>

이처럼 이인거의 군이 초기 궤멸하는 것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째는, 관군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력군인 농민군이 실전전투경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통일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인거의 명망만 믿고 가담한 자도 부지기수였을 것이며 그에게 학문을 배운 자들도 많이 가담하였을 것이다.<sup>69)</sup> 또한 반란 전 현감 이탁남이 형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연달아 6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에 불만을 품어 가담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60)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縣監往在原州,李仁居之子,流出軍器弓子三十餘張,不能可禁云.’

61) 原州牧

62) 朝鮮時代 五衛에 속하는 正6品 武官職. 高麗時代의 二軍六衛에 200名 단위 部隊의 지휘관으로 郎將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朝鮮까지 지속되어 太祖 3年(1395)에 副司職으로 개칭되었으며, 世祖 12年(1466)의 관제정비 때에 다시 司果로 고침.

63) 『仁祖實錄』 卷17 仁祖 10月 5日條.

64)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65)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燃藜室記述』 第 24卷 「李仁居獄事」 에는 10月 2日로 되어 있다.

66)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義兵爲名何可相戰.’

67)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68)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日條.

橫城郡, 『橫城郡誌』 에는 원주로 진군하다가 원주군 장양리에서 접전하여 궤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오류이다.

이러한 그들이었으므로 일관된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에는 소양이 부족하였고 관군, 유생,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은 명령체계에서도 혼선을 빚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홍보의 신속한 사태판단과 신속한 대응이다. 홍보가 감사나 조정의 명을 기다리며 지체하고 있었다면 진영을 정비한 이인거군의 판세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후일 그 공을 높이 평가하여 공신에 책록<sup>70)</sup>되는 계기가 된다.

#### 4. 처리의 결과와 영향

홍보에게 체포된 이인거와 그 동당의 무리는 10월 5일 서울로 압송되어 추문을 받는다. 보름이 넘게 행해진 이 과정에서 이인거와 10인은 사형이 되었고, 아들 신백과 중백은 사형하기 전에 죽었으며, 손자 이시형과 조대인 등 8인은 곤장을 맞다 죽었다. 또 종사관 김유 등 14인은 유배하였으며, 허후 등 24인은 석방하였고 본도에 갇혀있던 38인은 조사하여 석방케 하였다. 그밖에 도망한 무리는 일일이 추적하여 체포하지 말고 민심을 안정시키라고 감사와 원주목사에게 하유하였으나, 11일 청주방어사가 이인거의 동당 16명을 검거하여 압송하고<sup>72)</sup>, 20일 경상우병사가 이인거의 매부 정유한 등을 검거<sup>73)</sup>했다는 서목을 올린 것으로 보아 여당의 체포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 최현은 그 역모를 적발하지 못한 죄와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직접 가서 체포하지 못한 죄를 물어 파면하고 옥에 가두었으며<sup>74)</sup>, 특별에 공이 있는 홍보는 일등공신, 이탁남, 원극함은 이등공신, 신경영, 이윤남 등은 삼등공신에 책록되었고<sup>75)</sup> 후일 진극일도 신속한 상변의 공을 인정해 삼등공신에 추록되었다.<sup>76)</sup> 한편 황성은 역적의 고장이라 하여 현이 철폐되어 원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인조 14년(1636)이 되어서야 복귀되었다.<sup>77)</sup> 10월 10일에는 역적을 토벌한 것을 종묘에 고하였으며<sup>78)</sup> 20일에

69)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日條.

70) 『燃藜室記述』 第 24卷, 「仁祖朝故事本末」 ‘李仁居의 獄事’ .  
『大東野乘』 卷 46卷, 「凝川日錄 3」 丁卯年 12月 24日條.

71)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5日條.

72) 『仁祖實錄』 第 46卷 「凝川日錄 3」 丁卯年 10月 6日條.

73) 『仁祖實錄』 第 46卷 「凝川日錄 3」 丁卯年 10月 20日條.

74) 『仁祖實錄』 第 46卷 「凝川日錄 3」 丁卯年 10月 9日條.

75) 『仁祖實錄』 第 46卷 「凝川日錄 3」 丁卯年 10月 9日條.

76) 1628年 柳孝立의 亂 平定 後 衡平을 기하기 위해 李仁居의 亂 時 그 最初 上變者인 陳克一도 功臣에 追錄하였다.

는 역적토벌 후 반사가 있어 임성지, 이우 등에게 직첩을 돌려 주었다.<sup>79)</sup>

이인거와 그 무리가 금부의 문초를 받으며 추궁당한 주된 내용은, 누구를 진주로 세우려 하였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인거 본인 및 그 동당 어느 누구도 진주에 대해서 토설하지 않았다. 이것이 전의 이괄의 난과 박홍구의 변 그리고 이인거의 난 4개월 뒤의 유효립의 난 등 뿐만 아니라 그 뒤의 빈번한 역모사건과 다른 점이다. 이것은 이인거가 당시 70세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자신의 정치적 사욕에 앞서 대의와 의리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다만 종사관 김유의 추문에서 인성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자백이 나오며<sup>80)</sup> 유효립의 역모사건(1628)에서도 이인거와 내통하였다는 것이 토설되어 귀양갔던 김유와 한인발이 다시 불러 추문 되는데<sup>81)</sup> 그것으로 미루어 보거나 이인거가 1차 진군하려 했던 곳이 충청, 전라였음을 보아 이인거와 유효립의 내통은 가능성 있는 학설이 된다. 하지만 이인거가 인성군을 세우려 했다는 부분은 당시 서인집권세력이 자신들도 반정으로 득세했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같은 사태를 가장 우려했던 그들이 그 반대당인 남인세력과 왕권의 위협세력인 왕의 종친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증거로는 이인거의 반란에 종사관으로 있었고 심지어 이인거의 상소를 초안한 김유가 동당 중 유일하게 진주의 문제를 언급했는데도 처형되지 않고 귀양만 가는 것으로도 추측 가능하고, 언급된 인성군이 박홍구, 유효립의 난과는 달리 별다른 형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sup>82)</sup>

또 이인거의 난은 유효립의 난과 더불어 공신책록<sup>83)</sup>이 있었기에 후일 일시의

77) 橫城郡, 『橫城郡誌』, 1986.

78)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10日條.

79)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10月 20日條.

80) 『大東野乘』 第 60卷 「齋日記 1」 「治逆論辯」.

81) 『大東野乘』 第 46卷 「凝川日錄 3」 戊辰年 1月條.

82) 李适의 亂 후에 珍島로, 朴弘壽의 亂 후에 杆城으로 그리고 柳孝立의 亂 후에 珍島로 각각 귀양을 갔으나 李仁居의 亂 후에는 仁城君을 중심으로 한 變亂이 없었고, 이것은 李仁居 亂이 反正의 性格이 아니었다는 일 단서가 된다.

83) 仁祖朝에는 네 번의 功臣策錄이 있었다. 仁祖反正 後, 그리고 李适의 亂, 李仁居의 亂, 柳孝立의 亂의 討伐 後 각각 功臣策錄이 있었다.

출세를 위하여 역모를 고발하는 모함과 상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되었으며, 그때마다 지방의 수령들은 그 공을 나누고자 무고한 양민을 역적의 동당으로 몰아 무수히 잡아들이는 폐해의 원인이 되었다. 심지어는 그 반대로 이 두 사건에 자극을 받아 사사로이 군을 일으키는 자도 있었다. 그것들을 열거해 보면, 1627년 9월 이인거, 1628년 1월 제천의 유효립, 같은 해(1628) 3월 최시량의 역모, 그 해 12월 송광유의 옥사, 그 다음해(1629) 초 김경현에 의한 무고사건, 같은 해 4월 김예정의 고변, 그 해 11월 진명생의 고변에 의한 양경홍의 역모, 1631년 2월 조홍빈의 고변에 의한 권대진의 역모 등과 같이 혼란에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공을 나누려고 모함하고 투서하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 5. 사료상의 이인거 평가

현재에 있어서 이인거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어쩌면 그 누구도 그 평가의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에 대한 논문은 차치하고라도 대부분의 통사에서조차 이름 한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仁祖實錄』, 『燃藜室記述』, 그리고 『大東野乘』의 「續雜錄」 「凝川日錄」 「逸史記聞」 「默齋日記」 「荷潭破寂錄」 이인거의 평가 내용의 그 빈번한 기록들은 이인거 난이 당대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 시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의 행동이 당대의 사상적 주류였던 유교윤리에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들이 일률적으로 ‘한때의 웃음거리로’ 정도로 보고 있으며 그의 반란의 규모를 축소하여 평하고 있음이 큰 아쉬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仁祖實錄』에는 사관의 논에 다음과 같이 평하여 그의 반란을 비판하고, 아울러 홍보 등 공신책록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사신은 논한다. 예로부터 난신적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는가만 인거

83) 仁祖朝에는 네 번의 功臣策錄이 있었다. 仁祖反正 後, 그리고 李适의 亂, 李仁居의 亂, 柳孝立의 亂의 討伐 後 각각 功臣策錄이 있었다.

의 역적질에는 무리가 20명이 못되었는데도 임금 곁의 악인을 제거하겠다고 방백에게 스스로 말하였다. 생각건대 인거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난역에 빠진다는 것을 몰랐던 듯 하니 참으로 한 번의 웃음거리도 안 된다. 그런데 홍보는 적병의 형세를 장황하게 치계하고, 이어서 진격해 소탕한다는 말을 하여 생판으로 임금을 속이고, 조정의 대신은 덩달아 그 계책을 도와 끝내 녹훈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는가.’<sup>84)</sup> 라는 기록이 있다.

『大東野乘』의 「續雜錄」<sup>85)</sup>인거 난의 기록이 간략하게, 그리고 『凝川日錄』<sup>86)</sup>은 『仁祖實錄』과 같이 이인거의 난 전과정과 평이 실려 있는데 실록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이인거와 그 동당을 국문하는 기사가 『實錄』보다 상세히 실려 있고, 그 기록을 참고 할 때 『仁祖實錄』에 거론되는 70 여명의 이인거 무리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또 『實錄』과는 달리 계속되어 여당이 각지에서 체포되어 압송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實錄』의 수십명도 안 되는 무리였다는 기사는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實錄』에서는 서울로 압송된 주동자와 가담자 중 형을 받다가 죽은 자, 사형을 당한 자, 유배된 자, 방면된 자 만도 70여 명이 넘으며, 또 원주와 횡성의 관아에 감금된 자들은 원주목사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내용을 보아서도 반란군의 규모는 축소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燃藜室記述』에는 난의 전 과정과 함께 진압 후의 반교문(頒敎文)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이인거의 난에 대한 인조와 조정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略) …역적 이인거는 품성이 음흉하고 요사스러우며, 종적이 기괴하여 간악한 말을 학문으로

84) 『仁祖實錄』 仁祖 5年 10月 2日條. ‘史臣曰,自古亂臣賊子何限,而至於仁居之作逆,則所謂徒黨不滿二十,而乃以除君側之惡,自言於方伯,意者仁居所爲有若不知其自陷於亂逆之罪,誠不滿一笑也.洪寶既以賊兵形勢張皇馳啓,繼以進巢等語,白地欺君,而朝廷大臣,從而助成其計,終至於錄勳,其可謂國有人乎.’

85) 『續雜錄』은 『大同野乘』의 58篇 중 28篇으로 그 물이 龐大하여 두 部分으로 나뉘어 있고 編著者는 趙慶男(未詳;宣祖朝)으로서 『亂中雜錄』, 『歷代要覽』 등을 같이 敍述하였다. 『續雜錄』은 光海君 3年(1611)~仁祖 16年(1638)의 28年 동안의 記錄으로 光海朝 遼東을 中心으로 한 對外關係, 丁卯胡亂, 丙子胡亂 및 對淸關係 記事이다. 參考 資料로는 私記錄으로 부터 官撰史料, 檄文, 通文, 上疏 등까지 다채롭게 利用하였다.

86) 『大同野乘』의 58篇 중 32篇이며, 篇著者는 未詳이다. 光海君 元年(1609)~仁祖 13年(1635)의 27年 동안 歷史 事實을 個人的 論評없이 실고 있다.

꾸며, 세상을 속여서 조정에게까지 이름이 들렸다. 나 역시 이름만 듣고 일찍이 특별히 우대하였는데도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바라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였다. …(中略) …거만한 글을 올려 조정을 헐뜯었고, 공공연히 병권을 잡고자 청하였으니, 한의 동탁이 병권을 잡고 종과 복을 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심지어는 재상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곧 왕돈이 유외와 조협을 해친 격이다. 의병을 일으킨다는 깃발을 세우고는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여 현의 창고에 든 무기를 꺼내어 백성에 나눠 주고, 옥문을 부수어 죄수를 내놓았으며, 병졸과 아전을 위협하여 수령을 체포하게 하였고, 호서와 영남지방을 선동하여 중요한 지방을 차지하여 군사를 모으려 하였으며, 경기지방을 엿보아서 긴 창을 대궐로 향하게 하였으나 다행히 그 지방의 목사가 대책을 세워 관군을 내어 토벌하였다. …(後略) …<sup>87)</sup>

앞의 이 기록들은 이인거의 난이 재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역의 음모였다 는 것에서는 일치하나 인조를 폐위하려 하려는 의도 등 반정의 음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자신의 순수했던 목적이 결과적으로 난역의 도모라는 것조차 몰랐었다고 평하고 있다. 또 인조의 반교문은 이인거의 무리가 현의 창고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옥문을 열었으며, 현의 병졸과 아전이 가담했었고, 호서와 영남지방과도 내통이 있었음을 시인함으로써 이인거 난의 규모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大東野乘』의 『荷潭破寂錄』<sup>88)</sup>인거의 간략한 개인사와 난의 대략이 실려있으며, 또 이인거와 4개월 뒤에 제천에서 난을 일으키는 유효립과의 연결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도 이인거의 반란은 반정공신의 무능과 실정에 그 반역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默齋日記』<sup>89)</sup>이인거의 기록 중 유일하게 진주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것

87) 『燃藜室記述』第24卷「仁祖朝 李仁居 獄事」, ‘…逆賊李仁居稟性陰妖托跡詭秘文奸言而欺世不畏天知飾偽行而誣民至徹上聞予亦眩於名實蓋嘗優以寵光罔念大恩反懷非望阻茲戎虜之侵軼嗟乎…上慢書而罪狀朝廷公然請籍兵權何異董卓之鳴鐘鼓甚至欲斬宰輔便是●敦之害劉建●倡義之旗自稱大將發縣庫之仗分授白丁破圍圍而放出囚人勒士吏而追捕守宰煽動湖嶺籍重地而收兵脾●郊畿擬長戈之指關幸賴州牧之決策遂發官軍…’

88) 『大同野乘』의 58篇 중 57篇이며 編著者는 韓浚謙(1557~1627)이다. 『荷潭破寂錄』은 光海君~仁祖에 이르는 동안의 野史를 모은 것으로, 壬辰倭亂, 丙子胡亂, 李适의 亂, 廢母事件, 仁祖反正 등을 주로 엮었다.

은 역당 김유가 ‘진주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국정에서 끝내 문초하지 않고 진주가 누구인지 국문하라는 계가 없었다는 내용을 신고 있다. 다른 반란, 반역의 예에서는 진주문제가 언급이 되었을 때 그 대상이 되던 광해군, 흥안군, 인성군 등은 그 진위를 떠나 연금 된다든가 유배된다거나 하는 형을 받는 것이 선례였으며,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나 이인거의 동당 중 김유가 진주가 있다고 토설했음에도 그 대상자 인성군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토설자 김유는 이인거의 불손한 상소문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유배만 되고 말았다. 이것은 과연 이인거의 반란에 진주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에 명쾌한 대답이 되며, 나아가 서인정권이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인 왕족을 장차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었다는 추론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逸史記聞」<sup>90)</sup>인거의 마음은 처음부터 역모의 뜻을 둔 것은 아니나 임금 측근의 악을 맑게 한다는 것이 곧 역모가 된다는 것을 몰랐으니, 곧 이치를 밝게 살피지 못한 해독이 결국 이러한 극단에 이른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당대의 평가들은 이인거의 행위에 그 순수성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반역이었음을 잘 알지 못하였으니 그 또한 그가 큰 대역의 죄인이라는 공통된 평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燃藜室記述』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大同野乘』이 얼마만큼 사서로서 그 의의를 평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大同野乘』의 60여 편의 기록은 선비나 퇴직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문서를 모아 또는 이문을 들어 서술한 내용이다. 때문에 정사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심지어는 역사학의 분야에서 취급되기 보다는 국문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때문에 이 기록들을 전적으로 믿기는 힘들지라도 『實錄』과 그 기록이 상이하지 않고 또 『大同野乘』의 각 편들이 큰 상이함 없이 내용이 일치함을 볼 때 그 가치도 상당 인정할 수밖에 없다.

89) 『齋日記』는 『大同野乘』의 58篇 중 51篇이다. 編著者는 安邦俊(1573~1654)이다. 著者가 보고 들은 事實을 적은 것인데, 東西分黨, 仁祖反正, 李适의 亂, 李珣의 和平策, 丁卯胡亂 등을 주로 다루었다.

90) 『大同野乘』의 58篇 중 47篇이다. 編著者는 未詳이며 宣祖~仁祖朝 동안 世傳하는 이야기를 記錄한 것으로 宣祖의 毒殺, 光海君의 執政과 失政, 仁祖의 反正과 丙子胡亂 등이 主要 內容이다.



### III.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이인거가 역적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며, 그를 큰 위대한 인물로 치켜세우려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한 인물과 그를 중심으로 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살핌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앞에서 살펴본 이인거 난의 대략과 같이, 이인거의 난은 결국 인조 즉위 초의 빈번한 일련의 반란, 역모의 과정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었고 쉽게 단정하기엔 그것들과 무척이나 큰 성격상의 차이가 있으며, 연이은 앞뒤의 사건들이 이인거 난의 성격과 영향을 반감시키는데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인거 난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개인의 정치적 야욕보다 청과 화친하는 조정의 실정이 그 불만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의 이괄의 난, 박홍구의 역모, 이인거의 난 후에 유효립의 난, 최시량의 반란, 임경사의 역모, 권대진의 역모 등은 광해군대의 전직 관료와 연결되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적 불만이 그 원인이 되어 일어났으나, 이인거의 난은 청과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의 처단이 그 목적이었으며, 나아가 청에 대한 방비가 그 주장내용이었다.

둘째, 무력행사 이전에 자신의 뜻이 관철될 수 있으리라 믿고 감사에게 소본을 치계해 줄 것을 청하며, 상소를 올리는 등의 유학적 사고의 한계성이다. 이것은 그가 암암리에 군을 모집하여 불시에 거병하여 일로에 서울로 진격함으로써 왕권탈취 내지 권력의 장악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자신의 뜻이 정당하기에 그 뜻이 왕에게 전달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셋째, 선왕 및 왕족 어느 누구를 추대하려 했던 반정이 아니라 외세에 대한 순수한 자주, 민족의식이 그 출발점이었다. 앞에서 전술한 것과 같이 그의 목적은 철저한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여 오랑캐 청과의 화친을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조대 10여 차에 이르는 다른 반란, 역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인

거난 만의 특징이다.

넷째, 그러한 목적과 의도 때문에 중앙과 연결하지 않고 그 자신의 힘을 민중의 힘에서 보장받으려 하였으며 그 결과 전투력의 미비와 사상적 미통일이 단기간에 궤멸을 초래하였다. 이괄이 기익헌, 한명련 등 정치권에 있던 인물과 연결하고, 또 박홍구가 자신의 친족과, 그리고 유효립이 중앙의 훈련도감 중군 등과 내통하였으며, 최시량은 자신이 권력층의 무관이었으며, 이 밖에 임경사도 중앙과 연계하여 자신의 거사를 성공하려하였다. 그러나 이인거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중앙과의 연결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섯째,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당대 사회에 팽배되어 있던 인조 및 서인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이인거의 난은 그 동안 벽서와 투서 등으로 세상에 떠돌던 인조와 서인정권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증거는 뜻을 같이 하던 유효립의 난이 4개월 뒤에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반란, 역모가 계속되게 된다.

이 글을 마치면서 더 이상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 충신과 역적, 반란과 혁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탈피하여 그 인물과 사건을 거시적 관점에서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살펴야 할 필요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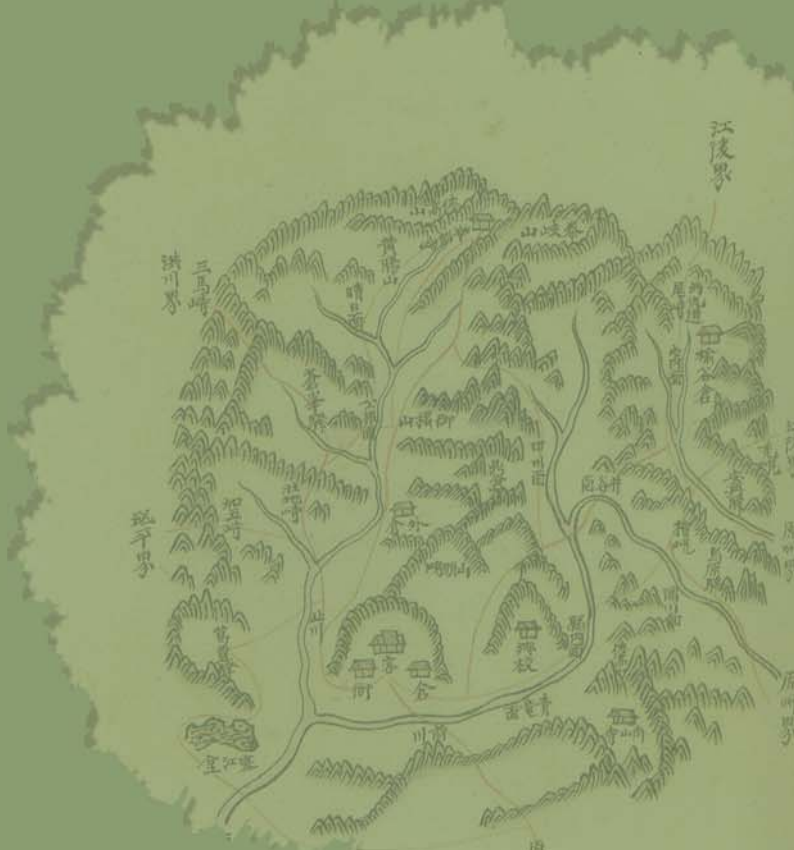
## 參 考 資 料

- 『仁祖實錄』 卷 十七.
- 『燃藜室記述』 卷之 二十四 「仁祖朝」.
- 『大東野乘』 第 三十一卷 「續雜錄 二」.
- 『大東野乘』 第 四十六卷 「凝川日錄 三」.
- 『大東野乘』 第 五十八卷 「逸史記聞」.
- 『大東野乘』 第 六十卷 「默齋日記」.
- 『大東野乘』 第 七十二卷 「荷潭破寂錄」.
- 『橫城縣邑誌』.
- 『橫城郡誌』.



## II. 향토문화숨결

- \* 강원무형문화제 “횡성회다지소리”, “장송모 도자연구원” 를 찾아서 | 박현숙
- \* 횡성지역 향토사료발굴 조사를 다녀와서 | 김동정
- \* 강림면 부곡2리 곶은치 술거리마을 산신제 | 이영식



## 강원무형문화재

# “횡성회다지소리”, “장송모 도자연공원”을 찾아서



\*박현숙

## 횡성회다지소리 전통 장례문화의 울림을 듣는다

죽음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는 소리. 정금 민속관을 찾아 횡성 회다지소리의 전승을 이끌고 있는 양재학 전수조교와 홍성의 보존 회장을 만났다.

사람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실과 가장 불확실한 사실을 각각 하나씩 찾는다면,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언제 죽느냐하는 것은 가장 불확실한 사실일 것이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적에는 산에 무덤을 쓰고 봉분을 하는게 일반적이었다.

'횡성회다지소리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정금마을에서, 전해오는 민요로 사람이 죽어 무덤을 만들 때 관을 무덤에 넣고 회를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로 1984년 12월 28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횡성회다지소리는 제1과장 상여행진과 제2과장 회다지 울동과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상여가 나가면서 다리를 건너고 회를 다지는 동작까지 현재 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 행렬은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존되고 있는 횡성회다지소리!!!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회다지 소리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문화가 변한만큼 우리 인간은 옛 정서를 가슴에 늘 품고 사는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통 고유의 소리들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에서는 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 의해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을 하고 역사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기길 기대해 보면서 유네스코에도 등재하는 꿈도 가져본다.

횡성회다지소리가 오늘에 이르러 전통장례문화의 큰 획을 긋는 과정을 상기해보고자 한다.

1984년 12월 28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되기까지, 제1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때 미니리타령으로 우수상을 입상하면서부터 우리의 회다지소리의 전통은 맥을 잇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2회때 부터는 강원도지사상(1등)을 수상하는등 대회 경력이 화려하다.

1984년 제25회 충주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회다지소리로 참가해 대통령상(1등)을 받고 그해 12월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을 받게 된것이다.

지난 9월 22일 횡성회다지소리 30주년을 앞두고 고인이 되신故양중하님께서 1985년1월 17일 횡성회다지소리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었고 대통령 하사금 3천만원과 도비,군비 3천만원으로 민속관을 짓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6년부터 대보름 맞이와 함께 태기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성황리에 행사를 갖게 되었던것이다.

문화제 시작은 5개 리(산전리, 정금1.2, 하궁1.2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달집 태우기, 학생연날리기, 백일장, 제기차기등, 각종 민속놀이를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제16회때에 와서 원팔연 우천면장 재임시 우천면민이 전체 참여 확대하면서 행사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2008년에는 「회다지소리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 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강원도로 부터 「회다지소리 축제 전승 보존회」단체지정을 받게 되어 활발한 전통문화 축제의 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제는 더욱 확고한 민속문화제로 2013년 지난해에 명칭이 바뀌면서 역사에 산 증인이 되고 길이 보존해야 할 과제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 유네스코에 인류문화 유산에 등재되는 꿈을 열고 있다.

횡성회다지소리의 보존과 전승을 이끌고 있는 양재학 전수조교께서는 이렇게 말한다. “고석용전군수께서 횡성의 회다지소리가 사라지기전에 유네스코의 등재를 추진해야한다고 발표했고, 영월군에서도 국장행렬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세계유산 등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나 장례문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 가능성있는 절차와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광범위한 연구 조사와 충분한 토론과 학술을

통하여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는 추진하는것은 책임있는 우리의 몫일 수도 있다.

지난 9월 27일 횡성회다지소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30주년 기념행사가 정금민속관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가 횡성 상여 및 회다지소리 원형을 공개하여 횡성회다지소리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무형의 올림, 문화재의 어울림」이란 주제로 발인제를 시작으로 상여 외나무다리 건너기, 하관, 회다지소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형 그대로 공개된 횡성 상여와 회다지는 특유의 애절함과 독창성으로 횡성이 2018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의 실현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행사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을 논의 하는 강원 무형문화재 토론회도 마련됐다. 이렇게 횡성회다지소리는 문화올림픽 중심에 까지 서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족해야만 한다. 회다지 전승보존회는 2009년에 강원도로부터 단체 지정을 받아 현재 월 90 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수 없어 군에서도 일부 지원 받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홍성익보존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현 민속관에는 사료관(장례문화관)은 있지만 교육도 받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전수관이 없어 안타깝다.”

더욱이 요즘은 장례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장례 문화는 우리 현실에서 잊혀져 간다.

양재학전수조교는 화장문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횡성의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산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횡성 사람들은 원주에서 비싼돈을 주고 화장을 해야하니 죽음의 길에서까지 푸대접을 받는다고 이야기 한다.

횡성은 전통문의 메카라고 볼 수 있다.

횡성에 추모공원을 세워 화장시설은 물론, 수의, 석물, 상여메기, 회다지등 토

탈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통장례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장례산업에 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요즘은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 대부분 노인들이라 상여는 못 메고 장례 진행요청이 들어오면 봉분작업만 한다고 한다.

옛날 모 재벌가 장례식에 초대를 받아 70명 정도가 가서 상여를 메고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천만원은 넘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이들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확보가 큰 문제라고 한다.

문화제와 전통이 계승되어야 하는데 전수받을 젊은이가 없다.

횡성에는 어러리뿐만 아니라 농요, 메나리, 군밤타령, 동그랑땡과 같은 횡성 고유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횡성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지인들이 와서 배워 자기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리 것을 그 지역에서 발굴하여 보존하는 가치는 참으로 높게 평가된다. 민초들에 의한 소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련한 정서를 통해 평안해짐을 느낀다.

각색되지 않은 애환의 소리는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다.

우리의 고유의 소리가 사라지기전에 가치를 알고 보존되어져가는 명장의 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어릴적 할아버지께서 모심기전 소를 몰고 논을 밟으며 부르시던 노래가락이 아련히 들려 온다. 모심는 날이면 선창을 하시며 모를 심고 모줄을 넘길때면 구성진 음성으로 부르시던 노래가락들이 그렇다.



나 어릴 적 유년시절에 많이 들어왔던 그리움의 정서들이 이렇게 전통 문화유산으로 불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너무나 급변하는 세월 속에 우리는 참 많은 시대의 삶을 요구하며 산다.

그 가치를 따져 보면 무량대수이다. 잊고 산 세월들을 백업할 수 있는 유산들이 가치가 높은 것이다.

횡성 회다지소리야 말로 그 가치를 더해가는 고유의 전통을 이어가는 맥이라 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이어가는 정금민속관이 가치 있는 투자에 더 노력할 수 있는 횡성군이 될수 있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다.

믹스커피를 손수 타주시는 양재학 전수조교님과 홍성익 보존회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분주히 사무실과 밖을 오가며 가끔 대화에 동참한 사무국장님과의 작별을 고하며 따뜻한 누군가의 사무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나왔다.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것을 살리는 화합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따뜻한 햇살이 가을 문턱을 넘어서며 대지에 내려 앉는다.

전시관안에 까지 오후의 햇살이 든다.

너른 마당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회다지꾼들이 가득한 착시가 나타난다.

## 무형문화재 장송모 도자연구원

하늘이 푸르러 섬강의 비친 이른 아침의 물빛깔이 고려청자의 빛을 닮아 짝 놀랐다. 한참을 따라 올라가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화려했던 한우축제의 어우러짐이 은은한 물소리에 잔영으로 남는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하다. 물 언저리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찌 맑은지 눈이 시리다. 하얀 구름조차 내 안에 감동으로 남는다.

청жат빛 물결따라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어야겠다.



千年의 神秘로운 藝術의 脈을 瑚峰先生님에 依해 오늘에 되살려짐을 기록하며 장송모 도자연구원 주위에서 숲속 아늑한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1967년, 처음으로 원주 원동에서 전통 가마를 묻고 토방과 전시관을 지어 전통 도자기 재현과 연구를 위해 각 지역의 흙을 실험해보고 유약을 실험하여 7년이란 긴 시간의 연구 끝에 국내 유일의 빙열백자 등, 재현에 성공하여 아시아에 소개가 되었다. 그 후, 다양한 연구와 제작과정에 많은 전수생을 배출하였고 10여년씩 전통기법을 계승한 전수생 중 일부는 경기도에서 전통도자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民族文化史의 精髓를 복원한 뜻깊은 과업이 아닐 수 없었다.

高麗靑瓷의 秘術과 흙과 불이 만나는 경지속에 무형문화재 호봉선생님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제작한 빙열백자는 그의 魂과 숨결이 담겼으며 아낌없이 再現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江原白土의 우수함을 자랑하는 氷裂白瓷을 精密한 均裂 속에 溫潤清雅한 自然發色이 은은하고 우아하게 光澤이 없어 한층 多情感을 주는 最高의 藝技로 朝鮮陶工의 窠魂을 달래는 출사표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알았다. 珉峰 장송모선생님의 작품속에는 人僞的인 技巧가 나타나지 않고 自然을 보는 듯한 平和스러운 人類愛를 形態에서나 紋樣에서 나타내어 獨特한 作品世界에 젖어들게 하였다.

가소성(可塑性)이 뛰어난 점토(粘土)를 이용하여 어떤 주어진 형으로 만들어 고열로 구운 그릇의 총칭. 토기·도기(陶器)·석기·자기(磁器)를 통칭한다. 인류가 일상적인 용기로서 토기를 사용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인 신석기시대부터이다. 토기 출현의 계기는 자비용기(煮沸用器; 필필 끓이는 그릇)로서의 기능 획득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대문명의 성립과 전후하여, 원시시대 이래 오랜 전통을 가진 산화염소성(酸化炎燒成)에 의한 붉은 소소토기(素燒土器) 외에 환원염소성(還元炎燒成)에 의한 회색 경도(硬陶)가 나왔으며, 이어서 회유(灰釉)를 칠한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의 시유도기(施釉陶器)가 출현하였다.

장송모선생님은 열의를 다하여 한국 전통도자기의 뿌리는 강원도에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왕실 도자기 공급을 담당한 조선조의 사용원이 경기도 광주에 분원을 두었지만 그 재료는 모두 강원도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때 民窯(민요)이 있었던 강원도에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전에 배편으로 광주로 날랐던 강원도 양구.횡성의 백토로 도자기를 빚고 홍천.인제의 나무로 직접 가마에 불을 지핀다고 이야기한다.

장송모선생님은 이런뜻에서 더욱 강원도의 도자역사의 연구를 위해 끊임 없는



사랑과 연구에 열정을 더하시며 얼굴 빛에 온유한 웃음이 번진다.

전시관안에 들어서면 백자항아리의 깊고 오묘한 은은한 빛의 감격이 마음을 사로 잡는다. 어찌 표현을 해야할지 마냥 감동속으로 옛 고귀함에 상상의 높이 깊다.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조선빙열백자 항아리는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강원지역에서 나는 백토와 紫木(자목)으로 빚은 것이어서 더욱 아끼고 사랑한다고 한다.

그 여운은 많은 방문객과 문외한이라도 우리의 역사의 깊이에 빠져들기에 충분하고 넘칩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기증한 장송모선생님의 작품을 각국 수상들이 소장하고 있고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도 소장된 백자를 비롯해 중국 칭하대박 물관과 일본 북해도 도야전시관등에서도 한국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부르는 TV에서 하루일과의 시작과 끝에 국가에서 도자기를 빚는 한 도예가의 은은하고 멋스러운 자태가 바로 장송모선 생님이셔서 더욱 자랑스럽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전통자기 도공분야 기능보유자인 장송모선 생님은 우리 도자문화의 이해와 실, 체험의 산교육장인 「장송모 도자연구원」은 수목이 우거진 숲속 야영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숙박 시설 및 식당이 있고 아늑한 분위기의 향 짙은 전통차와 음료 등이 있다. 또한 약수와 같은 암반에서 올라오는 청정수가 웅달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기가 소박한 정취가 스며나는 풍경은 편안하여 옛 정취를 물씬 묻어나게 한다.

1995년 5월, 횡성군 창봉리에 옛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강원도 전통도자전수관을 증축하고 도자사와 기법을 전승 시키면서 전시관과 체험관, 200석의 강당, 박물관과 전통가마, 4천여평의 주차장을 전국에서 제일 크게 확보하였다. 국내외 귀빈 등 각계각층 학생, 단체 기업체에 한국도자사와 제작기능을 전수하고 무료 강의등을 통하여 그동안 57만명에게 수강 및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 전승기법을 심어주었다.

유년시절 할아버지께서 도자기를 만드셔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연스럽게 물레질을 하고 잠재해있던 소유의 능력이 나타남을 즐기며 배워나갔던 것이다.

이런 기억들을 상기하며 풍기는 장송모선생님의 은유한 모습은 선생님의 유년의 그리움이 물씬 풍겨난다.

도예가의 끝없는 열정으로 빚어내는 예술, 인간과 자연의 신비를 이끌어 내는 은근과 끈기는 감동의 은은한 빛이다.

체험을 통해 다녀간 사진들을 정리하시면서 한국도자사의 산 증인이신 선생

님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맥을 이음을 참으로 다행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황성의 명소로 자리잡은 「장송모도자연구원」에 또 한 대의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강의와 지도를 받기위해 한 발더 도자의 폭을 넓혀간다. 도자기의 기법을 체험하고 나온 초등학교생들은 눈빛과 자세가 남다르다. 물레를 돌려가며 신비스런 체험을 통한 초롱초롱한 그 눈 빛들이 빛을 발한다. 손등에 묻은 체험의 표징들을 웅기종기 샘에서 씻어낸다.

어릴적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장송모리는 소년이 그랬던것 처럼, 그들은 멋진 우리 고유의 체험을 통해 전통 도자기의 멋을 기억할 것이다.

흙과 불이 만난 혼(魂)이 인간과 자연의 신비속에서 어우러짐을 통하여 빈 마음을 가득채우는 완성, 그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사로잡는다.

팔순을 넘기신 장송모선생님은 장인이 온 마음으로 빚어내는 열정을 온유한 음성으로 잔잔한 미소와 함께 역사를 말한다.

아주 먼길을 돌고 돌아 안주한 이곳에서 그의 깊고 그윽한 표정속에서 무언의 힘이 솟아오른다.

도예가의 당당한 모습. 기개가 넘친다.

언젠가 선생님께 강의를 듣고 도자기 체험을 했다. 물레질을 하며 욕심에 큰 과일 접시를 만들었다. 크게 만들 욕심에 잘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가마에서 꺼냈던 내 작품은 실패로 갈라진채 접시로 사용할 수 없어서 낮은 화초를 심었다. 내 작품이라는 자부심에 오래 간직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완성품이 내 앞에 있었을때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너무나 신비스러웠다. 흙으로 빚었는데 어찌 이런 고운 색상에 빛이 나와 반짝이고 있는지...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도자에 대한 이해와 수십년이 흐른 후에라도 역사에 길이 남아 보존되어지기를 바라며, 눈을 땔 수 없는 전시관쪽에 자리한 흰색인 듯 비취색을 띠고 회색 빛이 감도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백자가 발길을 머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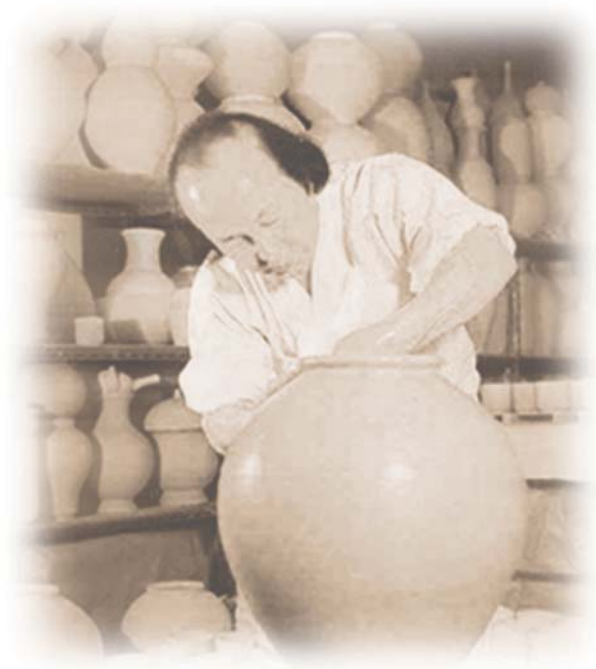
고르게 그리고 잔잔하게 갈라진 실금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도예가의 끝없는 열정이 인간과 자연의 신비함을 조화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 화염과 함께 빚어 내는 신비의 조선, 그 이름이 전통 장작 가마를 짓고 조선백자를 빚고 있는 호봉(瑚峰)장송모(張松模, 85)선생이다.

또 한 계절이 간다.

온 산이 단풍으로 낙엽으로 섬강의 물 빛이 진하다.

바람과 함께 낙엽이 뒹군다. 풀들이 눕는다.



# 횡성지역 향토사료발굴 조사를 다녀와서



\* 김동정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문학박사)

2014년 10월 14일, 아침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횡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여유가 있어 보였으며, 또한 아늑해 보였다. 09:20분에 문화원 이사 일행(20명 참가)과 함께「2014 관내 향토사료발굴 자료조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25인승 노란버스를 타고 민공호 의병장 관련 유적과 원천석 선생의 유적인 횡기암 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문화원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아 이미 추수를 끝낸 들판이 시야에 들어오고 들판에는 벗짚을 둥글게 묶어 놓은 하이얀 벼뚱치들이 군데군데 낮가리처럼 장관이었다.

## 민공호 의병장의 마지막 전전지 월현2리

의병대장 민공호전적비 문화원을 출발하여 25분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강림면 월현2리 1245번지에 있는 「의병대장민공호전적비」 주변이었다. 이 주변은 민공호 의병장이 순국 전에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인 곳이다.

전적비 옆에 있는 안내문에 의하면, 민공호 의병장은 1856년 경성에 태어나 1897년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에 입대하여 1901년 특무정교로 승진하였다. 당시 민공호는 인품이 강직하고 공사가 분명하여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탁월한 지



의병대장 민공호전적비



도자였다. 일제가 원주진위대를 해산하려고 하자, 원주 장날인 1907년 8월 5일 약 3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원주진위대 무기고를 부수고 1,600여 명의 소총과 탄약을 노획하였다. 그 후 원주읍을 장악하고 제천, 죽산, 장호원, 여주, 홍천 등지에서 수천 명의 의병부대를 이끌며 큰 전과를 올렸다. 민공호 의병장이 거느린 의병부대는 단위부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1908년 2월 29일 43세의 나이로 장렬히 순국하였다.

일행은 안내문을 읽으면서 자료집과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단체사진을 찍고 민공호 의병장이 체포된 곳으로 향하였다.

### 민공호 의병장 피체지 고비덕-괘덕리 전투

민공호 의병장이 체포된 곳은 전적비 뒷산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약 500m지점에 있다. 따라서 일행은 다시 되돌아서 500m 남짓 진행하다가 왼쪽 소로(小路)로 접어들어 약 130m 언덕을 올라갔다. 바로 눈에 보이는 □자형 스테



민공호 의병장 피체지 원경(스레이트집)

이트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체포되었다. 이곳은 현재 횡성군 강림면 월현2리 11843번지이지만 당시에는 영월군 수주면 괘덕리(蕪德里, 지금의 고비덕)로 거의 논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논은 간 데 없고 밭만 조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새로 지은 주택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민공호 의병장이 체포된 곳이다.

당시 1908년 2월 22일 민공호는 의병해산을 위해 파견된 선유사 박선빈의 전

갈을 받고 부하 90명을 인솔하여 원주군 석경사로 향했다. 그러다가 2월 27일 강림 박달고개 부근에서 일본군과 만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우회하여 등자치(登子峙) 아래 궐덕리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1908년 2월 28일 민궁호의 의병부대는 원주 치악산 아래인 강림(講林) 동쪽 약 10리 되는 등자치 부근에서 적에게 노출되었다. 적군은 강림에서 출발, 사자산(獅子山)·구룡산(九龍山) 방면으로 우회하여 등자치로 접근하였다. 이 때 민궁호의 부대는 궐덕리에 잠복하고 있었다. 2월 29일 궐덕리 마을을 포위한 일본군 충주수비대와 한국순사대를 상대로 오전 11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일본군과 접전 중 의병 20여 명이 살해되고 그는 사로 잡혀 강림으로 호송되었다.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217~218, 1991)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일본측 자료를 살펴보았다. 『暴徒ニ關スル編冊』에 수록된 충주수비대장 야마무라(山村小佐)의 보고 요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908년 2월 29일 오전 6시 폭우를 무릅쓰고 강림을 출발했다. 이곳 하천이 홍수로 범람하여 건널 수 없어 산록을 보행하여 사자산(獅子山) 및 구룡산(九龍山) 방면으로 길을 바꾸어 등자치(登子峙)에 도착하여 수색하니,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10리(韓里) 지점인 궐덕리(蕨德里)에 민궁호가 부하 87명을 인솔하고 숨어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궐덕리 등자치간 일대는 홍수로 범람하여 지름길로 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순사 최홍림(崔弘林)으로 하여금 순사 6명을 인솔하고 궐덕곡(蕨德谷) 동방고지를 점령하게 하여 적의 우측면을 사격케하고 동시에 소관(小官)은 나머지 7명의 순사로써 궐덕곡 남방고지를 점령하고 전투를 개시하니, 적의 일부는 그곳 서방고지인 박달산(朴達山)을 점령하고 우리들을 향하여 용감하게 응사하였다. 또 적의 일부는 궐덕촌 민가의 담장을 방패삼아 맹렬한 응사를 하였다. 1시간의 급한 사격을 계속한 후 최홍림이 인솔하는 순사대에게 돌격을 명하였으나 적의 맹렬한 화력으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오후 2시 20분에 이르러 우리는 전력으로 돌격하니 박달산을 점령한 적은 퇴각을 개시하였다. 그때 우리는 돌격하여 용맹

히 추격하였던 바 적괴 민공호는 궐덕촌 민가에서 잠복하였음을 수색 포박하였다. 적은 그곳 동북방인 설운촌(雪雲村)을 향하여 퇴각하였다. 적의 죽은 지는 궐덕곡 7명과 박달산록 하천에 표류하고 있던 십수명을 발견했다. 박달산 산 위는 조사하지 못하였다. 당 수비대는 경사 4명, 총 2정을 잃었다. 노획품은 30년식 연발총 1정, 동 탄환 55발, 모젤총 1정, 동 탄환 48발, 피스톨 1정, 동 탄환 7발, 망원경 1개, 수통 1개, 혁대 2대, 은시계 1개, 금화 19원, 서류 약간, 외잡품(外雜品) 약간이었다. (『폭도 토벌경황 제42호』, 『暴徒=關スル編冊』, 1908년 3월 12일조 제13사단참모부의 경무국에의 통보, 『한국독립운동자료』 제10권, 1981, 42~43쪽)

또 다른 『조선폭도토벌지』에는

충수수비대 배속 한국순사대 권경시(權警視) 이하 15명은 2월 이래 원주 부근을 수색하다가 2월 28일 강림에 숙영 중 강림 동쪽 약 10리(韓里)인 등자치(登子峙) 부근에서 민공호의 무리가 잠복하여 있는 것을 정탐하고 다음날 29일 오전 6시 폭풍우를 무릅쓰고 강림을 출발해서 사자산(獅子山), 구룡산(九龍山) 방면을 우회하여 등자치로 전진 중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0리(韓里)의 궐덕리에 민공호가 부하 90명과 함께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오전 11시 궐덕리 동남 양 방향으로부터 궐덕리를 포위함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자 폭도의 일부는 서방고지를 점령하고 대부분은 촌락의 담벽에 의지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순사대는 여러 차례의 돌격을 반복하여 20명을 죽이고 오후 2시 30분 궐덕리를 점령하고 가옥 안을 수색함으로써 민공호를 포박하고 나머지 폭도들은 동북쪽으로 패주하였다.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 1,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174~5쪽)

라고 하였다. 이렇듯 민공호는 최선을 다해 대항하였고 의병들 역시 후퇴하면 서도 완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림리 출신으로 이 지역 의병운동을 정리하고 있는 장기성씨의 증언에 의하면, 월현2리 11843번지에서 민공호와 그의 부하들이 휴식을 취하던 중 구장이었던 동네 심씨의 밀고에 의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작년에 만났던 피체지 바로 앞에 집을 짓고 사는 파월 장교 김영호

씨 부부를 만났다. 당시 집 안에 들어가 자신의 부부와 함께 몇 시간 동안 흡족하게 대화를 나눈터라 한 눈에 알아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여러 이사들과도 교분이 있는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피체된 집 주위



의병시신을 수습한 곳(컨테이너 박스 앞 부근)

와 산세도 함께 둘러보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곳에서 이병권 이사가 이곳 가까운 곳에 민공호 의병장의 마지막 승전지인 박달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일행은 다시 박달치를 향해 출발했다.

이곳 피체지에서 돌아 나오는 길에 도로와 인접한 오른쪽 밭에 잠깐 머물렀다. 바로 밭 위쪽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1984년 무연고의 의병시신을 수습했기 때문이다.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김용성 대의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84년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5개 소의 분묘를 발굴·수습하여 강림리 산171번지(강림중학교 앞 산)에 모두 모시고「강림의 병충」이라 하고 성역화하였다.

당시 김승기(金承基)님이 쓴 비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의병은 치악산을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눈부시게 활동하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자신들을 불살랐다. 1908년 2월 29일을 전후하여 이곳 안흥면 강림 월현에서 일제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의병총은 그 당시 이곳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무연고 의병 다섯 분의 묘를 한 곳에 모아 총(塚)을 만들고 묘역을 정화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

## 민공호 의병장의 피체전 마지막 승전지 박달치

이곳 피체지 및 전적지에서 다음으로 간 곳이 민공호 의병장이 피체전, 마지막으로 승전한 박달치로 갔다. 약 1.5km를 달려 월현3교를 지나 곧바로 왼쪽으로 가는 소로가 있었다. 일단 이곳에 하차하였지만 정확한 정보도 없이 박달치까지 가기에는 시간상 무리라서 다음 기회에 답사하기로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였다.

김중운 댁에서 본 노루목과 수력발전소 전경 이곳 박달치 답사는 2014년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이루어졌다. 자신을 비롯하여 문화원장, 이병권 이사, 국장 등 4명이 답사를 하였다. 도로에서 1km의 거리를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서 답사를 하였다. 도로에서 박달치까지의 골짜기는 파란 하늘과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곳곳마다 집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1974·5년까지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골짜기 주변은 집터뿐



김중운씨 댁(월현2교에서 남쪽으로 150m 지점에서 본 박달치 (잘록한 부근)



김중운 댁에서 본 노루목과 수력발전소 전경

만 아니라 피땀 흘리며 일구어 놓은 화전도 여기저기 보여 그들의 애환을 조금 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 내려오는 계곡의 물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으며, 당시 의병들과 화전민들의 생명수였을 것으로 생각하니 참 고귀하게 느껴졌다. 박달치 아래로 뻗은 이 골짜기에서 바로 1908년 2월 27일 일본

군과 살아생전 마지막 전투를 전개하여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결과 이들을 물리쳤는데, 이것이 민공호 의병장의 마지막 승전지가 되었다. 그런 다음 쾨덕리(지금의 고비덕)에 주둔하였던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김종운(77세)씨 집에 들러 김씨 어른과 함께 전투상황을 산세, 즉 박달치-노루목-고비덕으로 연결된 능선을 짚어 가면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내친김에 민공호 의병장의 순국지도 알아보고 가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 때 이병권 이사가 심옥중 전의원(강림면 초대 군의원, 63세)과 통화를 하면서 민공호 의병장 순국지를 알아내었다. 그래서 곧장 일행은 강림초등학교 뒤편 창말 사거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 사거리 근방에서 순국하였다는 것이다.

### 민공호 의병장 순국지-강림전투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넘어가 겨우 높은 산자락에 조금 걸려있는 시점에서 창말 사거리에 도착했다. 당시 1908년 2월 29일 오후 체포된 민공호 의병장은 강림에 있는 강림주재소로 호송되어 옆 건물에 갇혔다. 어떤 사람은 당시 민의병장이 주막에 갇혔다고도 하였다. 그날 밤 부하 50~60여 명이 강림을 습격해 탈환하려고 하였다. 그때 의병 중의 한 사람이, "우리 대장 민씨는 어디 계신지 소리를 치시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민의병장이 달아나려고 하자, 일제는 다급한 나머지 29일 늦은 밤 11시경에 민의병장을 사살하고 그의 시신을 원주수비대로 보냈다.



강림주재소 터(붉은색 벽돌집)와 옆 건물 부근의 순국지(강림초등학교 뒤편 창말 사거리)

일본측 자료 『暴徒=關スル編冊』에 수록된 충주수비대장 야마무라(山村小佐)의 보고 요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동일(2월 29일) 오후 5시 궐덕촌으로부터 서쪽 약 10리(韓里)에 있는 강림에 도착, 숙영하였다. 그날 밤 박달산 동북방으로부터 민공호의 좌우군 50·60명이 내습하여 우리 숙사를 포위하고(약 50m의 거리에 접근) 큰 소리를 지르며 맹렬한 사격을 시작하였다. 우리 부대는 이 적의 습격을 당하여 거의 혼란케 되었으나 전원 결사적으로 변소나 우물 등을 장애물로 이용하여 맹렬히 응사하기 약 1시간에 겨우 적의 포위를 풀고 일부는 해촌(該村) 서남고지로 올라가고 일부는 그 촌락 가운데의 하구안(河溝岸)을 이용하여 격퇴에 크게 노력하였다. 적은 동 11시경에 이르기까지 연속 맹사하면서 ‘우리 대장 민씨여, 어딘가 그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라!’ 소리쳤다. 이 때 포박된 민공호는 도주하려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부득이 사살하였다. 다음날 미명 무렵부터 겨우 적의 주력은 퇴각을 개시하였다. 적의 사망자는 11명이고 우리의 사상자는 없다. 민공호의 시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주수비대로 운반하여 원주수비대와 경찰서에서 이를 조사하여 확실함을 보증받았다.(「폭도특별경황 제42호」, 「暴徒=關スル編冊」, 1908년 3월 12일조 제13사단참모부의 경무국에의 통보, 「한국독립운동자료」제10권, 1981, 43~44쪽)

### 『조선폭도특별지』에는

그날 밤 민공호의 부하 약 60여 명이 강림에 습격해와서 용감한 동작으로 민공호를 탈환하려고 하자 순사대는 아침부터의 싸움에서 약간 부상하고 피로가 심하므로 자칫하면 혼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여 권경시(權警視)는 결사자를 선발하여 그 마을 서남고지를 점령하고 폭도의 측면을 공격하였으며, 주력은 촌락 내에서 극력으로 방어하였다. 피아의 거리가 겨우 10수m에 접근하자 폭도 중에서 ‘우리 대장 민씨여, 어디 있는가.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라!’ 고 크게 소리 지르는 자가 있었다. 이 때 포박된 민공호는 도망하려고 함으로써 사살하였다. 폭도들은 민공호를

구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시체 11구를 남기고 북쪽으로 퇴각하고 이 전투에서 우리 한국순사 4명이 행방불명되었다.〔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 「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 174~5쪽)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의병들의 민공호의병대장을 구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작전이 전개되었지만 결국 대장도 잃고 동료도 잃고 퇴각하였던 것이다.

우리 일행은 강림초등학교 뒷편 창말 사거리에서 왼쪽에 위치했을 강림주재소 자리와 오른쪽 옆 건물에 갇혀 있었던 민공호 의병장 및 그를 구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의병들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으며, 이 역사의 현장과 그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안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서로 다짐해 보았다.

## 각림사 터와 각림사 승려로 조선 개국공신이 된 신조

박달치(朴達峙)에서 다시 돌아와서 「의병대장 민공호전적비」를 지나 4.5km지점에 있는 태종로 근방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던 각림사터를 찾았다.

지금은 강림우체국과 강림성결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강림우체국 옆에는 비석과 안내문이 그날의 영예를 대신하고 있다.



각림사터(강림우체국과 강림성결교회 소재)

각림사는 당시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사찰이라가보다는 정사(精舍)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송와잡설」에는 띠 두어 칸 정도의 텃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 기거하고 있는 승려는 신조(神照)라는 인물이었다. 신조는 이곳에 기거하다가 어떤 관계로 개경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성계의 책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해주전투(1377년)에서 왜군을 물리쳐 대승을 거둔 주역이 되어 이성계뿐만 아니라 공민왕과 공양왕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즉



신조는 천태종의 승려로서 용력이 뛰어나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중에 자유로이 출입하였고 왕실과 국가의 복을 비는 대법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양왕 때에도 총애를 받아 이성계를 따라 종군하여 회군에 기여하면서 공양왕이 공패(功牌)를 내리고 노비와 땅을 하사하여 현재 경기도 수원의 만의사(萬義寺)에 주지로 있게 하였다. 권근은 신조를 칭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무(洪武) 무진년(1388, 창왕 14)에 병화(兵禍)가 일어나 국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조공(照公 곧 신조)은 완산(完山) 이시중(李侍中 이성계)의 휘하에 있으면서 능히 장상(將相)들과 큰 계책을 정하여, 의병을 일으켜 회군(回軍)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켜 오늘날 중흥의 왕업을 만들어 놓았다(『양촌집』 권 12, 기「수원만의사축상화엄법회중목기」)

즉 신조를 조선 창업의 주역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신조는 이에 따라 승려로서 유일하게 새 왕조 개창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개국공신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 각림사에서 수학한 태종 이방원

신조와 이성계의 관계가 한 참 돈독할 무렵,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개경에서 이곳 황성 각림사까지 공부하러 오게 된다. 이는 1377년 해주전투 이후 2년 후인 1379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는 신조가 뛰어난 용력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성계 자신의 사람이 되어 힘이 되는 것에 대한 보답이었고, 서로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증표로 신조가 기거하



각림사터 안내문과 표지석

고 있었던 각림사에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때 이곳에는 은거하고 있던 원천석이 있었다. 그래서 태종은 운곡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태종대 주변을 거닐며 정서적 안정을 취했다. 그리고 언제 상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세 때 이방원은 문과에 급제한다. 결국 아버지 이성계와 신조와의 두터운 친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원은 각림사에서 원천석에게 수학했고 문과급제를 이루었던 것이다.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등극한 후에도 끊임없이 각림사에 애정을 갖고 그리워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은 태종이 각림사가 위치한 황성지역에서 무려 3회(1414, 1415, 1417년)의 강무를 시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또 각림사 중창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1417년 9월에는 부모를 위하여 간행한 「화엄경」을 낙성법회 때 봉안하였다. 그리고 직접 황성을 세 차례(재위 때 2번, 상왕 때 1번)나 방문하였다. 이에 사찰은 더욱 번성하여 세종 때는 승려가 15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사찰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제사인 국행수륙재도 거행할 정도의 영향력있는 사찰로 발전하였다. 이 번성한 사찰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중창하여 19세기까지는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돈이 매골승이었을 때 각림사에 들러 이곳 승려들과 법화경을 독송하고 부처에게 예배하고 탑을 돌고 참선도 반복했다. 김병연도 「김삿갓 방랑기」에 의하면, 변계량이 지은 시를 보고 다른 절은 못 보더라도 각림사만은 꼭 보고 싶다고 하며 10여일 머문 적이 있다. 그리고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중이 되었을 때 각림사에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당시 고려 말 조선 시대의 각림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사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대부분 각림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신조와 각림사, 신조와 이성계, 신조와 이방원, 승 신조의 개국공신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특히 각림사 승 신조로 인하여 유학을 국시로 하는 조선에서 세종 때 승려 150명이 기거할 정도의 대사찰

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에는 자긍심도 갖는 듯한 모습이였다.

### 임금에게 반대방향으로 손가락질한 노파의 횡지암

이곳 각림사터에서 2.7km를 달려 횡지암입구에 도착했다. 노파가 물에 몸을 던져 유명을 달리했다는 노고소와 태종이 거닐던 태종대를 지나왔다. 이곳은 횡지암을 먼저 보고 돌아 나올 때 보기로 하고 먼저 횡지암 입구에 왔던 것이다. 횡지암 입구 안내문을 읽은 후에 물한 병을 챙겨들고 횡지암을 향해 골짜기에 들어섰다. 이골짜기는 가래골이라 하는데, 골짜기에는 가을의 완연한



노랗게 물든 산뽕나무의 자태

날씨 탓인지 맑은 물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만발하여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산행을 즐기고 있었다.

약 500m 남짓 왔을 때 시야에 환하게 들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파란하늘에 노랗게노랗게 물든 산뽕나무의 자태 물든 산뽕나무의 잎이 너무나 장관이었다. 몇 개의 건물과 함께 건물 주위를 싸고 펼쳐진 그림은 한 폭의 수채화 그대로였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양잠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잠업이 큰 역할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잊은 것 같아 기쁨 속에 씩씩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래도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산자락 주변의 산뽕나무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파란 하늘을 향해 마음껏 뽐내고 있었으니, 참으로 고맙기도 하다.

산뽕나무의 노랗게 물든 장관을 뒤로 하고 몇 분 정도 걸었을까(도로에서는 15분) 계곡에 큰 바위하나가 막고 서 있는 듯하였다. 바로 이 바위가 횡지암이라고 하였다.

횡지암 옆으로 올라가서 뒤편에 가보니, 흰히 트인 계곡이 시원하게 반기며, 뒤편에서 본 횡지암이 더 의미있고 멋있어 보였다.



횡지암 앞에서 기념하는 이사 일행

그 사연은 이러하다. 운곡 원천석이 은거하고 있던 이곳 강

림에 임금으로 즉위한 태종이 옛 스승이던 운곡 원천석 선생을 찾아왔다. 선생은 변암(弁巖)에 은둔해 있던 중 태종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 노파에게 자신의 은둔지를 다르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고 은둔해 버렸다. 짐작대로 태종은 옛 스승인 운곡을 찾아 이곳 강림까지 손수 행행하게 된다. 이때 태종은 노파에게 길을 물었는데, 노파는 운곡 선생이 시킨대로 엉뚱한 곳을 가리켰다. 이에 태종은 운곡을 찾아 헤매었으나 덩그러니 서 있는 바위만 발견하고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바위를 노파가 운곡 선생이 간 방향을 '빛가르켰다' 하여 횡지암(橫指巖)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문화원 이사들은 복분자를 마시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하며 교분을 나누는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 같이 다가온다. 계류를 따라 흐르는 물이 가문 탕인지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마음을 적시며 속세에 낀 때를 씻어 내기에는 충분한 물이었다.

잠시 이사들을 먼저 보내고 남아서 당시 태종이 이곳까지 행차하여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았다. 한양에서 스승인 원천석을 찾아 이곳까지 와서 노파가 알려준 곳으로 잘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찾을 것으로 믿고 미소 짓는 태종을 마음으로 그려보았다. 한 사람이 태어나 자신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훌륭하게 가르쳐준 스승을 찾는 일이란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가?

## 황지암에서 그리는님

감천(甘泉)

한양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황골을 거쳐 님 찾아  
이곳까지 발길 옮겼네

님 찾아 헤메는데  
한 노파의 손가락은  
깊은 골짜기 바위를 향하네

기쁜 마음 즈려 안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님은 간데 없고 바위만 반겨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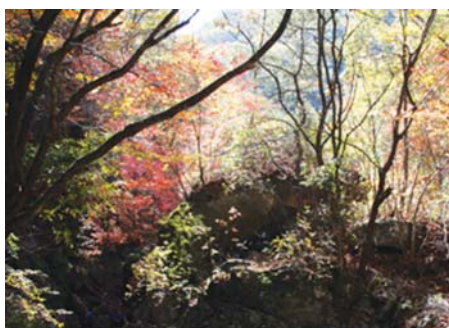
바위 위에 살포시 앉아  
태종대에서 노닐던 옛 생각에  
마음은 이미 님을 만나고 있네

정도의 길을 가르쳐주던  
그리운 님 생각하니  
님 만날 생각에 힘이 솟구치네

일행은 황지암입구에서 오던 길로 약 70m 길어서 태종대로 향했다. 이곳은 일행 모두가 익히 알고 있던 곳이라서 태종대 건물과 암벽 아래 새겨진 명문을 둘러보며 함께 읽어보기도 하였다. 당시 강직한 스승을 만나지 못한 채 한양으로



황지암 전면모습



황지암 후면 모습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때 태종이 7일간 머물던 곳을 ‘주필대(駐蹕臺)’ 하다가 훗날 眺躡蹕臺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실 이곳은 태종이 13살 때 각림사에서 공부할 때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스승을 기다리던 태종의 마음은 어릴 때의 기억과 스승을 만날 생각이 교차되어 한 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단풍이 곱게 물든 기암 위의 태종대와 태종대 명문을 읽고 난 후의 기념

태종대를 살펴 본 일행은 이곳에서 600여 m 떨어진 노구소에 들었다. 이곳은 임금인줄 모르고 임금에게 잘못을 아뢰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노파가 몸을 던져 죽었다는 곳으로, ‘노구소(老軀沼)’라고 한다. 이곳에는 노구소를 알리는 안내판이 양중맞은 모습으로 소(沼)를 주시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새겨 놓은 ‘구연(媼淵)’라는 명문이 오랜 세월 풍우에 시달려 피곤한 기색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곳 강림리에서는 2005년 노구소 맞은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매년 10월 21일



구연명문과 노구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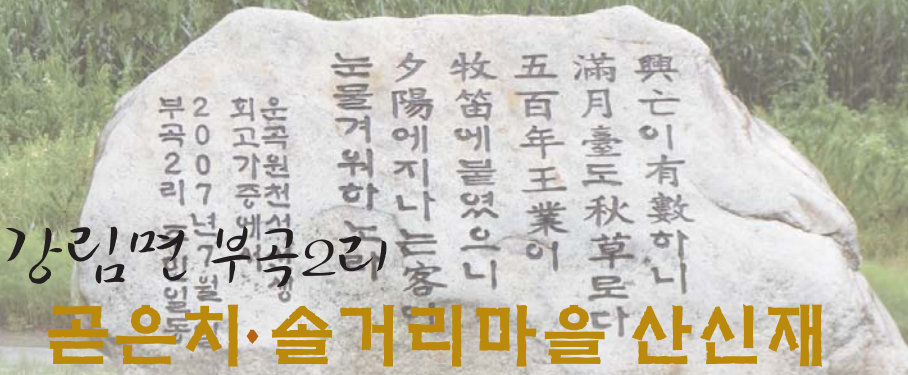
한 쪽의 가을 풍경화 같은 강림리 한 부부의 가을걷이 모습

에 노구제행사를 하고 있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이사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민공호의병장의 전투지, 피체지, 순국지 등을 둘러보았고 조선 3대 왕인 태종과 윤곡선생 그리고 노파와 관련이 있는 각림사터, 태종대, 횡지암, 노구소 등을 답사하면서 일일이 기존의 자료들과 대조도 해보고 유적지도 꼼꼼히 확인하면서 알찬 답사 및 조사를 마쳤다.

점심 식사를 위해 치악산송어양식장횃집에서 가서는 양식장을 둘러보면서 송어양식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우려하던 이사들도 있었지만 식사를 하면서 횡성발전을 위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웃음꽃을 피운 이사들의 모습 속에서 횡성문화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강림리 들판에서 분주하게 추수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보았다. 황금들녘과 울긋불긋한 가을산의 정취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자연과 사람과 기계의 어울림 속에 올 한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횡성문화도 늘 꾸준히 발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알알이 맺어가길 소망해본다. 그리고 오늘의 풍요 속에는 조국과 내 고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린 선조들이 계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 강림면 부곡2리 곶은치·솔거리마을 산신제

강림면 부곡2리는 치악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이곳 부곡2리는 대치마을, 곶은치마을, 솔거리마을, 무례마을 등 네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네 마을 중 대치마을은 매년 7월에, 곶은치·솔거리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과 7월에 마을제의를 지낸다. 무례마을에서도 몇 년 전까지 해마다 음력 정월 초정일(初丁日) 자시(子時)면 어김없이 지냈으나, 지금은 여러 사정



\*이영식  
(횡성문화원 이사)

으로 인해 지내지 않는다. 곶은치·솔거리마을에서는 지난 음력 7월 초정일(양력 8월 4일)에 마을제의인 산신제를 치악산 아래에 있는 작은 무례골에서 두 마을이 함께 지냈다. 두 마을이 언제부터 산신제를 함께 지냈는지 알 수 없으나 예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작은 무례골에 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산신은 여신이라 한



다. 제의를 지내는 곳에는 당집이 없으나 마을에서는 그냥 산신당이라 부른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정일과 칠월 초정일 등 일 년에 두 번 지내며, 제의시간



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준비되면 바로 산으로 출발한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 보통 정오가 지나서 산신제를 지내게 된다. 제일 3일 전에 생기를 따져 도가를 선출한 후 도갓집에 금줄을 치며, 도가 일을 도와주는 유사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산신당에는 하루 전에 유사가 올라가서 금줄을 친다. 이곳 치악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산신당에 금줄을 치러 가면서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길이 망가지면 손질을 해서 다니기 편하게 해



놓는다. 이 일을 유사를 비롯하여 계장 그리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제일 당일 아침에 수돼지를 직접 잡아 그 내장을 이용하여 시래기, 김치, 파, 마늘, 불린 찹쌀 등에 선지를 넣어 함께 버무려 순대를 만든다. 이때는 마을 부인들이 스스로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도갓집에 와서 일을 돕는다. 썰은 1말을 준비하여 1되는 새옹메를 아래에서 지어 산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함께 먹





을 밥을 짓는다. 이 마을에서는 제의 때 북어, 밤, 대추, 과일 등을 쓰지 않는다.

아침부터 준비한 익힌 순대와 돼지머리, 다리 하나, 갈비 한 짝을 큰 그릇에 담아 산에 가져간다. 마을에서 차를 타고 작은 무례골 입구에 내려, 여러 사람이 짐을 지게로 지거나 어깨에 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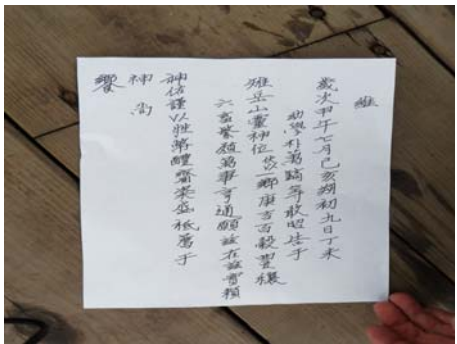
산을 오른다.

산신당에 도착하면 먼저 한지를 곱게 접어 병풍처럼 서 있는 바위 아래 조그맣게 만든 제단에 산신을 모시고, 산신을 바라보고 오른 쪽에 있는 참나무를 수부로 모시고 있다. 산신에게는 두 개, 수부에게 하나의 예단을 걸어둔다. 이렇



게 곱게 접어 폐백을 드린 후에는 준비한 음식을 진설하는데, 제물을 진설할 때는 다른 그릇에 옮겨 담지 않고 가져온 그대로 올린다. 제물을 진설하면서 바가지에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새옹매 뚜껑을 열어 숟가락 두 개를 꽂은 후 젓가락 두 개를 각각의 제물에 놓고 양쪽에 초를 켜고 향을 피운다.

도가가 무릎을 꿇어앉아 술을 두 잔 올리는데, 이때 사용하는 술은 소주이다. 도가와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절을 두 번 반을 절한다. 이어서 모두들 꿇어앉은 후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유세차 갑오칠월 기해삭초 구일정미 유학 박만호 등 감소고우 치악산령 신위복이 일향강길 백곡풍양 육축번식 만사형통 원자재자 실퇴신우 근이생폐 양재번성 저천우신 상향(維 歲次 甲午七月 己亥朔初 九日丁未 幼學 朴萬鎬 等 敢昭告于 雉岳山靈神位 伏以 一鄉康吉 百穀豐穰 六畜繁殖 萬事亨通 願茲在茲 實賴神佑 謹以牲幣 釀齋繁盛 祗薦于神 尚饗)과 같이 축문 읽기가 끝



난 후 도가는 다시 두 번 반을 절하고, 이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 번 반을 절한다.

도가를 비롯한 몇 사람이 앉아서 소지를 올리는데, 첫 번째는 산신님소지로 “이 소지는 산신님 소지입니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와 같이 외면서 소지를 올렸다. 다음으로 산신제를 주관하는 도가의 소지를 올렸다. 이어 마을 구성원들의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차인표 씨 소지를 올리고 다음은 당계장인 김길생 씨 소지를 올렸다. 그리고는 마을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집의 순서대로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다 올





린 후에 모두들 두 번 반을 절을 했다.

산신에게 진설했던 돼지머리, 순대, 갈비, 새옹메 등을 수부 앞에 놓고 도가가 술 한 잔을 올린 후 두 번 반을 절한다. 이어서 수부소지를 “이 소지는 수부님 소지입니다. 산신령님 잘 모시고 다니십시오.”와 같이 올린 후 도가가 다시 두 번 반을 절한다.

이어서 잡귀 밥을 준다고 하면서 메밥, 갈비, 순대, 돼지머리 등을 조금씩 잘라낸 후 소금을 넣어 한지에 써서 물바가지와 함께 가지고 제단과 떨어진 한 쪽에 가서 “잡귀들아! 식사 가져왔다. 이거 먹고 여기 얼씬도 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하면서 한 손에 있던 한지에 썩 제물을 던지면서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의 물을 동시에 뿌린다.

이렇게 산신제를 다 마치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곳에서 정성 드리는 일을 다 마쳤으니 식사들 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다. 예



전에는 산신당 바로 아래 계곡에서 돼지를 잡고 제물을 준비했던 까닭에 그곳에 마을 분들이 다들 모여 있고, 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다. 그리고 산에서는 음복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먹는다. 음복이 다 끝나면 짐을 꾸려서 하산한다. 이어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구성원이 함께 어울린다.<sup>1)</sup> 곧은치마을과 솔거리마을이 함께 지내는 산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돼지이다. 그리하여 돼지 선정을 잘하는데, 돼지는 교배하지 않은 수돼지를 쓴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키우던 돼지를 구입해서 제물로 썼으나 지금은 강림에 있는 돼지목장에서 구입한다. 과거 소 값이 쌀 때는 제물로 소를 쓴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암수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돼지를 지게에 지고 가서 그곳에서 잡은 다음 돼지 머리, 갈비, 다리, 순대 등을 제물로 올렸으나, 최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제를 주관하면서 점차 간소화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돼지 머리, 갈비 한 짝, 순대, 새옹메 등만 가지고 산에 올라가 제를 지낸다. 제의가 다 끝나면 음식을 도갯집에서 나눠 먹었으며, 7월에 하는 제의 때는 솔거리 공원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먹는다. 과거에는 사십 여 가구가 산신제에 참여했으나 인구가 줄어서 현재는 이십 여 가구 정도가 참여한다. 기독교 교인이 많은 솔거리와 곧은치마을은 예부터 합동으로 산신제를 치르는데, 주관은 당계장인 김길생 씨가 맡아서 한다. 도가로 선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이 타지 않게 해야 한다. 여자는 돼지를 손질하고, 음식만 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1)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52~53쪽 참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럼 다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지. 온 마을이 다 가지고 갔었어. 삶아 가지고. (겨울에도?) 그럼. 그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힘들다고. (겨울에. 아~ 그러니까 피가 생겨가지고 돼지 머리 한 가지. 원래는 돼지 통으로 가져갔는데.) 통으로 다 가지고 가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만 이제 해가지고 순대 하시고 겨울에도 순대 하셨어요?) 아휴~ 그럼요. 겨울에는 집에서 하고 도갓떡. 그러면 생기가 맞는 사람을 해지. 그 전에 취재한 사람들은 그 저기 여기서 제복을 다 입고 그걸 다 했어요. (아~ 사진 잘 나오게 할라고? 제복을 입고 해달라고 했구나.) 응. 그래서 나도 가서 했던데. (근데 순대는 왜 순대랑 다 놓으세요? 머리랑 순대랑 왜 다 하세요?) 순대는 사람이 그 전에는 사십 가구가 사십 몇 가구씩 이렇게...(여기 곧은치가?) 곧은치, 솔거리랑 2개 반이 합동이 하거든. (여름에는?) 여름에도 다 합동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안 했잖아요?) 아니. 겨울에도 합동이야. 만날 솔거리랑. (옛그저께 제가 들었더니 겨울에는 솔거리랑 안 하고 여기 곧은치만 한다고 하시던데.)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 같이 했군요.) 같이 하지. 근데 저 쪽에는 교인이 많아. 또. 그 솔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지요. 곧은치는 이십 칠호 인가 되지. 아마. (솔거리는?) 솔거리는 몇 가구 안 되는데. (여기보다 적어요?) 아~ 적지. 적은데 교인들이 있으니까 빠졌거든. 이쪽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요? 그것도 참 묘하네. 그건 왜 그러시지?) 옛날부터 교인이 없어. 교회 땡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sup>2)</sup>

곧은치 · 솔거리 산신제 지내는 모습은 예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가 선발하는 날짜, 제물, 제주 등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도갓집에서 옥수수막걸리를 담갔으나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소주로 사용한다. 예전 도가 선발은 일주일 전에 했으나 지금은 3일 전에 한다. 그리고 도가는 예전부터 차인포 씨

2) 김상태(남, 80세, 부곡 토박이, 2014년 6월 1일)





가 생기를 따져서 뽑았다. 도가로 발탁되면 도기는 3~4일 전에 자신의 집과 산신당에 금줄을 쳐야 하지만, 지금은 작은 무례골 산신당에만 금줄을 친다. 과거에는 산에 올라가 음식 준비를 했으나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연세가 있어서 모든 준비를 마을에서 한 다음 올라간다. 겨울에는 음식을 도가네에 모여서 만드나, 여름에는 마을에서 관리·운영하는 솔거리 공원에서 마을 분들이 함께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수돼지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소를 사용한 적도 있다. 권인식 씨는 군 입대 전인 20대 초에 산신제에 쓸 소를 구입하러 원주에 간 적이 있다. 소 역시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잡았다. 소를 제물로 쓸 때는 내장을 상에



올렸다.<sup>3)</sup> 산신제를 위한 계를 당고사계라고 부르는데, 현재 김길생 씨가 계장이다. 산신제 날을 현재와 같이 음력 정월, 칠월로 잡은 사람은 슬거리에 있는 라승희 씨의 아버지인 라군식 선생님이다. 라군식 선생님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혼장을 했다. 마을제의를 정월과 7월의 초정일에 지내는 까닭은, 정월은 그 해의 처음이고, 칠월은 후반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 때 지내는 것이라 한다. 예전에도 정월에는 날이 춥기 때문에 제물 준비를 집에서 했고, 7월에는 날이 좋으므로 계당 밑에 있는 계곡에서 음식을 했다.<sup>4)</sup> 예전에는 마을 구성원이 많고, 대부분 살림이 곤궁해서 산신제가 있는 날이면 모두들 모였다. 그러나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마을회의를 통해 한집에 3명까지만 참석해 음식을 먹게 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제물로 소를 쓴 일이 있었는데 40년 전에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우시장에서 송아지를 사와 제물로 썼다. 그러니까 황소가 아니라 그래도 제법 자란 중송아지를 이용했으며, 현재는 수돼지 혹은 새끼를 낳지 않은 암돼지를 쓴다. 순대는 예전부터 올렸다. 산신제 때 모시는 신은 한 분인데, 술을 2잔 올리는 까닭은 알 수 없다. 수부에게도 술을 1잔 올린다. 제물은 계원들이 경비를 모아서 준비하는데, 그 계를 ‘당계’, ‘치성계’라고 부른다. 제의를 치르고 남은 고기는 계원끼리 ‘분육’을 한다. 예전에는 모두들 치성계에 들어서 참여했으나 지금은 희망하는 분들만 참석한다.

도기는 생기복덕에 맞춰 뽑지만, 요즘은 본인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도가를 뽑을 때는 도가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의 생기복덕도

3) 권인식(남, 80세, 양평 태생으로 8세에 부곡으로 이주. 2014년 6월 2일)

4) 차인표(남, 77세, 부곡 토박이. 2014년 6월 23일)



함께 봐야 한다. 혹시 젊은 부인이라면 달마다 찾아오는 손님으로 부정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신제는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지내지만, 마을에 상이 나면 열흘 후로 미룬다.

8월 4일 9시에 돼지를 구입하러 갈 예정이다. 돼지 값이 올라서 65만원인데 농장에서 30만원에 돼지를 주기로 했다. 도가인 박만호 씨가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트럭이 있는 선우영수 씨와 돼지(마리)를 구입하러 가기로 했다. 돼지는 술거리 공원에서 잡는데, 전에는 돼지 잡는 일을 김길생 씨가 모두 다 했지만 올해부터 박만호 씨가 전담하기로 했다. 남자들이 돼지를 잡으면 여자들은 순대를 만든다. 대치는 돼지를 잡지 않아서 순대에 피를 섞지 않고 곧은 치는 피를 섞는다. 돼지는 잡아서 각을 뜬다. 갈비, 돼지 머리만 삶고 순대를 만들어서 산에 갖고 올라간다. 예전에는 산에서 모든 준비를 했지만 현재는 마을에서 준비를 다 한다. 올해는 도갓집에 금줄은 치지 않았고, 7월 31일에 산에 올라가 금줄을 쳤다. 김상열 씨와 박만호 씨가 같이 산에 올라가는 길의 풀을 깎았다. 소지를 올리는 순서는 산신, 도가, 계원들 순이다. 제를 지내는 동안 아래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면 음복을 하고 식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산신제를 며칠 앞두고 초상이 나면 열흘 후로 날을 미룬다.<sup>5)</sup>

5) 김길생(남, 65세, 부곡 토박이, 2014년 8월 3일)



용하긴 용해요. 용하는 건 왜 용하냐? 우리가 도가를 맡아가지고 도가를 할라 그러는데, 도가를 할라면 그 마리, 온 마릴 갖다 삶고 이러면 나무를 때야 되잖아? (그렇죠.) 그 우리 셋째 시동상이 인제 빨라고 저 올라가가지고 싸리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오다가 엎어졌어. 엎어 저 고뱅이를 깬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시어머이, 그때 뭐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해 줄라고 뭐 상어뼈라나 뭐 그거를 저 산산골이라고 지금은 사람이 안 살지. 그때 거기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상어뼈를 구할라고 거길 갔었어. 거길 갔는데 어느 개가 죽어가지고서는 덮어놔드래, 가마이로. 덮어놔는데 썩지가 요만큼 나왔드래. 그걸 봤대요. 그래 봤는데 이제 상어뼈를 구해가지고 오시다가, 집을 안 오셔도 내가 다 하는데 집으로 오셔야 되는 줄 알고 개울에 와서 세수를 하고 이래 오셨어요. 오셨는데 거기 당에는 밤 저기 1시면 나오거든. 1시에 인제 제살 지내러 나오는데, 제살 지내러 나갈라 하는데 우리 시어머이가 쓰러진 거요 그만 까물쳐서. 그거 인제 벌 받는 거지. 개꼬리 보고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뚜막이 얼마나 뜨거워 불을 그렇게 땀는데. 쥐가, 쥐가 큰 놈이 하나 고 떡시루 쩌 떡시루 앞을 요래 두구 죽었드라구. 그래 고놈이 대신 간 거야. 우리 시어머이, (대신요?) 그럼요. 그 뜨거운 델 뭐 하러 들어와 지가. 그런데 쥐가 거길 와가지고 알려주더라고. 그제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구나!) 그럼 그래서 우리 시어머이 그날 저녁 때가 되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 ⑥

6) 김복년(여, 7세세, 원주 태생으로 17세에 부곡리로 시집옴, 2014년 8월 18일)



# Ⅲ. 문화융성 학습정보

\* 전통유학과 정신문화 진흥 | 김인규  
\* 선진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발상전환의 지혜 | 현원명



# 진통유학과 정신문화 진흥



\* 김인규  
황성문화원 · 향교 유학강사

## I. 들어가는말

유학은 하(夏) 은(殷) 주(周) 삼대 문화를 통하여 공부자(BC551~479)가 집대성한 학문으로 인(仁)을 근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250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치란의 역사가 격동하는 사회 변천 속에서도 유학 사상이 숭고하고 확고하게 우리 사회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공부자의 위대한 인간중심의 인(仁)의 사상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공부자가 인(仁)의 사상을 주창하던 시기는 주나라 무왕이 목야전투에서 은나라의 마지막폭군인 주(紂)왕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주나라를 창업하여 봉후건국으로 지방분권을 공고히 하고 도덕정치를 실현하여 국태민안의 태평성대를 열어놓았지만 12대 유왕이 포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않으므로 황후와 견웅이 결합하여 호경을 함락시켜 동주시대가 끝나고 서주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나라 중앙정치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고 이로 인하여 춘추시대(BC771~403)가 전국시대(BC403~221)라는 극도의 혼란기를 불과 100여년 앞둔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상실되면서 많은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과 주종관계를 배반하고 이(利)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팽배하여 당시에는 어떠한 성인군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란해져가는 질서를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공부지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仁)의 사상과 도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제후들을 설득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정세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없었다 유학의 도의가 행하여지지 않을것을 몰랐던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현해야만 하는 사명감으로 정성을 다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어는 한 제후가 인(仁)의 사상과 도덕정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한번 소용돌이 치기시작한 거대한 역사의 물결은 장벽에 부딪치기 전까지는 그 기세를 멈출수가 없었고 막을 수도 없는것이 현실이었다.

주나라 성왕의 아우(당숙우)가 봉해졌던 거대한 진(晉)나라마저도 한(韓) 위(魏) 조(趙) 세나라로 나뉘어 지면서 하극상이 난무하는 중국역사상 최초 최장의 180여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국대전이 전개되는 전국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유학도 또한 한(漢)대(BC202~후265)에 이르러서야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350년이후 당(唐)대(618~907)에 이르러 한유 유종원, 공영달 등이 유학진작에 노력하였으며 송(宋)대(960~1127)에 이르러 주돈이와 정호와 정이와 장재와 소옹과 주희등이 유학의 이론을 체계화 함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여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사서로 정립하고 교육지침서로 물론 국가인재등용에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17대 소수림왕(371~384)때에 대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학문이란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와 지식을 쌓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가 없이는 의사소통만은 가능하겠지만 기록을 남기고 남을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행이도 고대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한문문자를 제정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그 문자 사용의 실체는 황하문명 지인 안양현 은허갑골문에서 실증되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인접해있는 관계로 한문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낙

랑, 진변, 임둔, 현도등 한4군(BC108)을 설치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한문 문화권에 일찍이 속할수밖에 없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서기1446년에 이르러서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함으로써 그제야 우리문자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계의 대열에서 자긍심을 갖고 단일민족이 단일문자의 혜택을 입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유학의 기본인 사서는 19세기까지 동양철학사상이자 전통학문으로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핵심내용을 고찰하고 정신문화 진흥에 적용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 II. 대학

대학은 3강령과 8조목을 제시함으로써 자기수양과 대인관계를 정립하는 처세 학이자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학이라고도 볼수 있다.

3강령에서 통치자와 지도자는 밝은 덕을 규명해서 그 지식을 미루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능률이 적은 옛 관습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새 관습을 익히게 해서 백성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며 사회안녕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재정적 통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1. 3강령

밝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사람이 타고난 신령스러움에 어둡지 않아서 세상 모든 사물의 심오한 이치를 깊이 연구해서 모든 사안이나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사물의 모든 이치란 천리 지리 원리 진리 순리 역리 물리 문리 성리 심리 사리 도리 생리 병리 법리 논리 합리 괴리등으로 열거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명덕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윤리도덕은 물론 옛 농경사회의 농기구나 생산증진 등. 사회각분야에 점진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며 오늘날까지 과학문명의 발달로 전자공학과 원자력기술이 발전하였고 우주과학과 정보통신이 발전하였으며 의료기술과 예방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온 세계 인류문명이 지대한 첨단과학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속에 어느 통치자와 지도자가 이 명덕 친민 이념을 소홀히 했을까마는 그러나 단 한가지 중요한 요점을 소홀히 대처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질지성에 가리워진 본연지성을 따르기가 쉽지않은 았았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요점이란 「한개의 털끝만큼이라도 인간적 욕구의 사심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자와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과 구성원 전체를 헤아리는 공공의 주체성과 지극한 성실에 있어야 하며 인간적 욕구의 사심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 2. 8조목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는 천자지위로부터 서민신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수련되어 있어야 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치국과 평천하는 제후나 천자가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덕목이다

8조목 수련도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사물을 깊이 연구해야만이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고 지식수준에 도달해야만이 의지를 성실하게 가질수 있고 의지가 성실해져야만이 마음을 올바르게 쓸 수 있으며 마음을 올바르게 쓸수 있어야만이 자신을 성실한 인간으로 수련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련되어 있어야만이 가정이나 국가를 공평무사하게 이끌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아래단계의 근본이 다스려 지지 않고는 위의 다음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이 8조목의 요체이다.

특히 근대의 위정자가 가족을 다스리는데 실패한경우가 많은 것도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고 친애하는 사람에게 편벽되므로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기에 통치자 주변에 친인척 특별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까지 두게 된 것이다.

송대의 주자는 의지란 마음을 일으키는 주체라 하였고 마음이란 몸을 이끄는 주체라 하였으므로 성실한 의지를 가져야만이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으로 실천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을 수기치인의 학문이라고 하였다.

『大學,經文』 『大學,經文 朱子書』

### III. 논어

논어는 공부자의 광범위한 교육사례로 자기성실과 타인배려로 자아성취와 관계조화를 실현하는 인(仁)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공부자는 이미 2500여년 전부터 확실한 눈높이 교육을 하였으며 상서와 태학의 교육장소 뿐만 아니라 기거동정이나 외유등 일생 전반에 걸쳐 사안별로 제자들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등은 물론 덕행 언어 정치 문화 예악등을 가르치고 그 제자 한사람 한사람의 성격 자질 위치 장단점을 구분해서 특별교육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만세에 종사(宗師)임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는 신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이상세계만을 추구하던 시대였음에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측면에서 인간현실에 초점을 두고 유학이론을 창시했다고 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며 2500여년 후일까지의 정신문명을 좌우할 만한 위대한 업적임을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가령 이 학문이 현실성과 합리성이 없이 추상적이기만 하였다면 지금 같은 첨단과학 문명시대까지 현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역사의 변천속에서도 송고하게 우리 사회와 가슴속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공부자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며 학문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정진하였으며 이미 배워서 아는 것도 혹시 잃지나 않을

까 걱정하고 복습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문뿐만 아니라 기거동정이 모두 배움의 대상이었으며 더욱이 세사람이 걸어갈때에도 모두 나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좋은 점은 가려서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못한 점도 배우는 것이 학문을 한단계 더욱 넓힐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은 알고있는 단계라 하더라도 더욱 익혀서 좋아할 수 있는 단계로 까지 옮겨가야 하고 더욱 정진해서 즐거워 할 수 있는 단계로 까지 이른 뒤에 겸손한 예절로써 단속해야만이 사람다운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물의 존재사랑까지도 할수 있다고 하였다.

『論語,述而 19장』

論語,泰伯 17장

論語,述而 21장

論語,雍也 18장, 25장』

## 1. 효

사람이란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근본이 부모가 만남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모두 여기서부터 시작되므로 예로부터 이를 중하게 여겨 중매를 놓아 혼인관계를 의논하였으며 폐백을 들이고 친절히 맞이하여 그 분별을 두텁게 하려고 혼례를 엄중하게 하였다. 공부자는 군자의 도리는 그 단서가 부부로부터 시작되므로 이것이 사람의 삶에 시작이자 반복에 근원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처음으로 관계를 맺는것이 부모이고 맨처음으로 접하는 사회가 가족이라는 최소단위의 공동체이며 효라고 하는것은 한생명체의 탄생과 성장을 있게해준 근본에 대하여 당연한 보은이자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모든행위의 기본으로써 충서(忠恕)로 모든분야에 미루어졌을때 인의

예지가 되고 윤리도덕이 되고 사회질서가 되어서 세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효도가 모든 행실에 있어 기본이 된다고 한다.

『中庸,章句 12장』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님이시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하시여 나를 기르셨으니  
애처로우신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느라 힘들고 고생하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으려하니 높은 하늘과 같아서 다할 수가 없구나」**

시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나 조건없이 오직 인간 본연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정성을 다해 노쇠함에 이르셨으니 그 은혜가 하늘 같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부자는 효의 큰 사례로 순임금을 말씀하셨으며 순임금은 아버지(고수)의 현명하지 못함과 어머니의 인자하지 못함과 동생(상)의 불경함이 있었다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오로지 효도로써 가족을 화목하게 하였으며 그 효행이 요임금(BC2333~2233)에 인정되어 아들에게 양위하지 않고 역산의 농부 출신인 순에게 제위를 선양해주었으며 순임금(BC2233~2183)또한 아들에게 양위하지 않고 치수에 공이 많고 덕망있는 우(禹)에게 제위를 선양하였으므로 그 공덕이 만세에 빛났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요순의 지극한 성덕은 영원히 칭송될 것이다.

효의 방법으로는

첫째, 자식된 도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둘째,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며

셋째, 온화한 기색으로 부모님의 뜻을 공경으로 받들어 편안히 해드리며

넷째, 부모님의 건강과 의복과 음식과 거처를 편안히 해드리며

다섯째, 학문을 닦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공헌하는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효도와 공경이라고 하는것은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으로서 행동하고 난 뒤에 시간이 있으면 학문에 힘써 더욱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詩傳,小旻之什 谷風3장

書傳,虞書,舜傳 14장

書傳,虞書,大禹謨 14장

論語,爲政 5장

論語,爲政 6장

論語,爲政 8장』

## 2. 인(仁)

인(仁)은 본연지성의 순수한 자체가 인이며 사람이 인욕과 사욕과 물욕에 가리워져 잠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수련되어 본성을 잘 다스릴수 있는 사람은 인을 실천하는것이 오히려 쉽고도 편하며 멀지도 않고 가까우며 실천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어 항상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앞에 인 이 있다고 하였다 사람이 사람이나 사물을 접하면서 인욕과 사욕과 물욕이 발동하고 무지할때에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본성이 가리워져 불인(不仁)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그 본성을 따르기 위하여 의지를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행동으로 실천할때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오면 이것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밥먹는 시간동안이나 넘어지는 순간에도 잊지 않아야 하며 자기가 있고싶은데 남을 세우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데 남을 도달하게 해서 미루어 많은 대중들에게 까지 널리 베풀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성인의 경지로서 위대하셨던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렇게 하기를 걱정하셨던 일이다.

어진 사람은 끈궁함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어려운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포용함으로서 인(仁)과 형상이 비슷한 자연의 상징인 산을 좋아하며 물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질지도 않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仁者樂山」 「智者樂水」

不仁者 好權多貪 不智者好利多慾

## 가. 산의 본성

산을 인(仁)한 사람에 비교하였으며 산은 밑바탕이 넓어서 근본이 견고하고 돌과 흙으로 배합되어 높이가 완고하고 영겁의 세월에도 변함이 없고 거센 바람이나 번개에도 개의치 않으며 새와 짐승이 거처하고 초목이 길러지며 물길을 터주고 그 장엄한 위용으로서 인간세상을 아늑하게 포용하니 세상에 지극한 천덕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인(仁)의 덕은 산과 같이 밑바탕의 근본부터 견고하게 쌓아 올라 가야하니 정상까지 높이 쌓았을때 그 중용(中庸)의 위용은 정상지도층에 드러나서 세상사람들의 모범이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을 볼때에는 나무나 바위를 보지 말고 숲전체(至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산의 본성은 어떠한 고난이 닥친(搖之不動)다해도 움직이지 않으므로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인을 실천한다.

그러나 그 인(仁)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 나. 물의 본성

물을 지(智)혜로운 사람에 비교하였으며 물은 샘근원으로부터 솟아올라 낮과 밤을 쉬지않고 계속 흘러서 웅덩이나 후미진 곳을 채운뒤에 나아가며 모든 실개천을 중화로 받아들이고 오물을 씻어주고 청탁을 마다않으며 어류에 서식처

가 되어주고 막히면 돌아가며 드넓은 바다로 흘러가서 대화합의 위용을 간직하고 다시 구름을 이루어 비를 내리고 만물을 적셔주며 길러주니 세상에 지극한 천덕일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智)의 교화는 물과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하니 그 중화(中和)의 덕화는 아래대중에게 널리 퍼져서 세상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을 대할때는 실개천이나 호수를 보지말고 바다(大義)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야 한다.

물의 본성은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否極反泰)해도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역경을 해쳐나가면서 지(智)를 창출해낸다.

그러나 그 지(智)를 고식지계(姑息之計)로 표출하지 말아야 한다.

「論語, 顏淵 1장      論語, 雍也 21장      論語, 里仁 5장  
 論語, 顏淵 22장      論語, 雍也 21장, 28장      孟子, 離婁下 18장」

### 3. 덕행

덕은 올바른 마음의 덕행으로서 인의예지로 실천하고 얻어진 성과이다.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으로서 인격체를 이룬다음에 덕행을 실천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것을 예로부터 군자가 갖춰야할 덕목으로 여겨왔다.

공부자는 우리의 도(道)는 한가지로 관철하며 그것은 성실과 배려(忠恕)로서 자기의 성실을 다하는 것이고 이를 미루어 남에게 배려(仁)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선비는 모든 행실에 있어 도에 뜻을 두어야 하고 덕에 의거하고 인에 의지하며 예악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과오가 있으면 자기를 반성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며 과오 고치는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공손하며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며 지식과 예의와 지혜를 겸비함으로서 완성된다고 할수 있

으니 덕행을 실천 하는것이 인내심과 노력없이 이루기 어려워서 덕행의 내면에는 많은 고뇌가 있다고 할것이다.

『論語, 里仁 15장』

論語, 述而 6장』

論語, 威靈公 20장』

論語, 威靈公 23장』

#### 4. 정치

정치는 자기를 수련한 뒤에 능력을 갖추어 남을 다스리는 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인재를 등용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국민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다.

공부자는 우주자연의 섭리(天命)를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모르면 어떤 위치에도 존립할 수도 없고 써주지도 않을 것이며 상대의 말을 바로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고 사람을 모르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림에는 정사에 노력하고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술선수 범하되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는 공정해야 하며 친애와 정의와 예의와 신뢰를 가지고 술선하면 국민이 존경하고 성실히 따를 것이며 덕으로 다스리고 정직한 인재를 등용하여 많은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며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국민은 국민답게 국정을 믿고 따를 것이며 국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빨리 성취하려하지 말며 반대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두되

「한 개의 털끝만큼이라도 인육의 사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이해득실에 관한 인기영합이였거나 미래 명예를 위한 인육에 따른 사심이였다면 이미 이룩한 덕행마저도 그 순간부터 공심(公心)이 아니어서 그 과오가 마치 일식이나 월식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므로 가릴 수도 없거니와 한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大學, 經文朱子書』

#### IV. 맹자

맹자라는 책은 부동심과 호연지기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의(義)의 철학서라 할 수 있으며 이성인 맹자(BC372~289)는 공부자 손자인 자사의 문인에게 수학 하여 인(仁)의 사상을 계승하고 보완해서 의(義)라는 사리에 마땅한 정의와 왕도를 구현해서 태평시대로 이룩하고자 노력했던 사상가이다.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공부자의 춘추시대(BC771~403)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전국시대(BC403~221)초기로서 중국대륙의 모든 제후들이 한창 영토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전쟁상황으로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불과100여년 앞둔 시점이어서 유학사상이 등한시되고 하극상이 난무하며 합종연횡이 성행하고 국익을 전제로 하는 이(利)라는 실리추구에만 매진하던 시대였다.

그러한 시기에 위나라 제후인 양혜왕(BC320)의 초빙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위나라를 이롭게 해주실만한 묘안이라도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위사람이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모든 나라사람들도 이익만을 추구해서 나라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니 백성들과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해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당시 상황은 어느 한 제후가 왕도정치를 실현한다고 해서 한번 소용돌이친 역사의 물결은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왕도구현은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공부자의 인(仁)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충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유학의 체계를 정립하여 1400여년 후일의 송대에 2정자와 주자(1130~1200)가 계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은 업적은 위대한 것이었으며 공부자를 만세의 종사(宗師)로 받들 수 있게 된것도 아성(亞聖)의 지극한 공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孟子, 梁惠王 1장』

## 1. 기본사상

어느사람이 맹자에게 남들이 변론을 좋아한다더라고 말을 전하자! 나는 부득이 하는것이다 지금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사특한 학설과 편벽된 행동과 방탕한 말을 막고 우임금과 주공과 공부자가 노력했던 성인의 도를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며 요순의도를 본받게 해야할 따름이다.

요임금은 아들에게 제위를 양위하지 않고 역산의 농부출신인 효성이 지극한 우순에게 두딸을 시집보내고 3년동안 능력을 시험한뒤에 선양하였으며 순임금 또한 아들에게 제위를 양위하지 않고 범람하는 홍수를 해결하고 치수사업에 성공한 백우에게 선양하였으므로 임금다움과 신하다움의 지극한 인덕과 주공의 지성(至誠)과 공부자의 인(仁)의 사상을 보완한 의리사상과 왕도정치와 성선(性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孟子, 滕文公 下 9장   孟子, 滕文公 上 1장   孟子, 離婁 上 2장  
書傳, 舜傳 14장   書傳, 大禹謨 14장   孟子, 盡心 上 33장』

## 2. 윤리사상

사람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다 어떤 젓먹이 아이가 위험도 모른 채 깊은우물에 빠질 찰나라면 선인 악인을 막론하고 측은해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구하려고 할것이다 이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순간만을 포착한채 달려가는 것은 순수한 인간본연의 본성인 것이다.

그래서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과 연결된 실마리와 같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와 연결된 실마리와 같으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와 연결된 실마리와 같고 옳고 그릇됨을 분별하는 마음은 지(智)와 연결된 실마리와 같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성실한 의지를 갖고 마음을 일으켜 동기를 갖고 실천한다면 이것이 윤리도덕이고 선행인 것이다.

그래서 유학의 도는 성실과 배려로서 인(仁)의 본성을 끌어내어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척을 친하게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자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한 집안이 인(仁)하면 자연히 사회와 국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인(仁)을 바탕으로 사리의 마땅함에 적용시키는 것이 의(義)로서 올바른 길이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 자득하게 되면 그 경지에 머무름이 편안하고 쓰임이 넓어서 주변에서 바로 찾아 행할 수 있고 또 공덕이 될 수 있으니 누구나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와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른다면 사람관계의 윤리가 의(義)와 도(道)에 배합되어 행하는데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올바른 도리와 마땅한 도리가 윤리사상이자 의리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孟子, 公孫丑 上 6장 孟子, 盡心 上 45장

孟子, 離婁 下 14장 孟子, 公孫丑 上 2장』

### 3. 정치사상

정치는 남을 다스리는 일로서 덕과 예와 배려로서 국민을 대의(大義)로 이끄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며 차마 못하는 마음과 올바르고 마땅한 도리와 존중하고 겸양하는 예와 박학다식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려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것 이라고 하였으며 정치는 국민다음에 사직이고 사직다음에 통치자라고 하였으니 위임받은 직책으로서 주인위에 군림할수는 더 더욱 없는것이다.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정치를 베풀고 국민을 인도한다면 국민은 통치자를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신을 바쳐 충성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왕도정치의 극치이다.

맹자의 정치사상은 의(義)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불의(不義)에 불의를 거듭하면서 충간을 외면한다면 벼슬을 놓고 떠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왕위도 바꿀 수 있다는 혁명론을 거론함으로써 제왕들에게 경각심도 일깨운 바가 있다.

『論語, 子路 1장      論語, 堯曰 3장      論語, 顏淵 17장  
 論語, 子路 3장      論語, 爲政 3장      論語, 顏淵 22장  
 論語, 顏淵 11장      孟子, 公孫丑 下 9장』

## 4. 성선설

### 가. 순자의 성악설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정반대논리로 논설하였는데 순자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한것이니 선이란 인위적으로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만을 추구하는 까닭으로 빼앗을것을 생각하고 사양할줄 모르며 또 증오심이 있는 까닭으로 남을 해치거나 시기한다 이러한 탐욕과 증오심을 교화시키지 않고 버려두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이 야기될것이므로 가르치고 교화시켜야 만이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을 찾아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악하고 선이란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본성이란 타고난 그대로일 뿐이지 배우거나 행동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며 성현들이 만든 인위적인 예의는 배우고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성(性)과 위(僞)의 구별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이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본성이 착하다면 오히려 악을 행하려 한다는 논리이다.

또 사람이 없으면 잇기를 바라고 추하면 아름답기를 바라고 적으면 많기를 바라고 천하면 귀하기를 바라고 못살면 잘살기를 바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것을 저에게서 찾으므로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사욕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성악설을 염두에둔 순자의 법치사상만은 한비자와 이사라는 제자를 통해서 진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치주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荀子, 性惡篇』

## 나. 맹자의 성선설

공부자는 두가지 성(性)이 처음에는 서로 가깝지만 습성에 따라서 멀어진다고 하였으며 맹자는 그 실체를 요 순으로부터 고증하여 보려고 하였다.

정치를 함에있어 덕으로 백성을 다스렸고 제위를 양위함에 있어 자식을 배제하고 효성이 지극한 우순과 치수업적이 큰 백우에게 선양하였으니 그 뜻이 인(仁)이었고 그 실천이 의(義)로서 인욕에 의한 사심이나 탐욕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공심(公心)이었으니 이것이 타고난 천성 그대로인 본연지성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 순은 사심과 물욕과 무지가 없었기 때문에 인의를 실천할 수가 있었고 다른 제왕들은 나라고 하는 사심을 전제하였음으로 공심(公心)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사심에 가리워진 것이다.

또 젓먹이 아이가 우물에 기어들어 가려고 할때에 가없어하고 구제하려하는 마음은 인욕에 의한 사심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할것이므로 악인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사심을 배제하면 그 내면에는 착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하였다.

한 예로 호랑이 새끼와 강아지가 낳자마자 함께 컸다면 착한 본성이 있어서 서로 우정이 있을 터이지만 호랑이가 커서 먹이감으로 보는 순간 물욕이 발동하면서부터 호랑이의 기질지성을 드러냄으로 사람이 원래 악하다고 하는것은 부정적인 논리라는 것이다.

하물며 짐승도 기질지성이 발동하기 전에는 본연지성(순수성)이 있는데 사람의 천성적인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마음을 어떻게 성악이라고 논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論語, 陽貨 2장

孟子, 滕文公 上 1장

書傳, 虞書舜傳 14장

書傳, 虞書大禹謨 14장

孟子, 公孫丑 上 6장』

## V. 중용

중용은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도리를 닦는 학문으로서 천도(天道)를 따르고 인도(人道)로 노력하여 중화(中和) 사상을 구현하는 성(誠)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지식과 성실한 의지와 올바른 마음으로 수련된 자신을 치우치거나 기울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람도 없는 중용의 도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대학이 연역적 개론의 학문이었다면 중용은 귀납적 총론의 학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균관에서 학제를 들때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춘추 예기 시경 서경 주역순으로 두었다고 한다.

사람이 본성을 따르거나 사안을 처리하거나 사물을 접할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편으로 기울지도 않고 중심에서 지나침도 없고 중심에서 못미침도 없는 적절하고 알맞은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였으며 하늘(자연우주섭리)로부터 부여 받고 태어난 본성이 성(性)이고 그 인간 본연의 성(性)을 따르기 위한 길이나 방법을 찾는것이 도(道)이고 그 찾은 길이나 방법을 성취시키는 것이 교(教)라 한다. 라고 하였다.

『中庸, 章句 1장』

### 1. 본연지성

본연지성은 다른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간만의 특성으로서 착한사람이나 악한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실체는 이해관계가 배제된 가장 가깝고 믿는 관계에서 볼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볼수 있을 것이다.

어느 구제함이 없는 연약하고 가엾은 상황을 보면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옳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배려하고 미루어 살피주는 관계에 놓이면 양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옳고 그릇됨을 가리려는 마음이 생기고 친하고 사랑하는 관계

에 놓이면 믿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악행을 하는 흉악범도 아끼는 존재 앞엔 측은지심이 있고 치부가 들어나면 수치심이 있고 사랑하는 처자에겐 양보심이 있고 이익배분이 불공평하거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 될 때는 시비를 주장할 마음이 생기고 범행을 모의한 공범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치범과 대치하는 수사관이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로서 설득 시키려 하는 것도 그 본연지성의 살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 예라고 할 것이다.

또 한 예로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당시 축구 4강에 진입하려 할 때에 온 국민이 다 같이 하나가 된 마음이 있었다 나 라고 하는 사심을 배제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심(公心)을 발휘할 때에도 본연지성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연지성은 내면적이고 안정적이어서 이해관계가 배제된 기회이거나 안정적인 상황에서만이 사려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천성 본성 또는 인간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질지성

부모의 결합으로부터 수정과 동시에 유전받은 유전자적 개별성으로 천차만별인 선천적 개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생명체가 모체와 분리되면서 성장하기까지의 성장배경에 의한 감수성과 주변 환경에 의한 적응성과 외부여건에 의한 상황성에 의하여 변천성을 가지고 있는 후천적 개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육에 의한 우월주의와 이기주의와 나 라고하는 존재에 불리함을 주는 부당성과 불공평으로서 나 만을 전제로 하는 성정일 것이다.

때문에 탐욕 욕구 이득 피해 분노 원망 공포 공격성 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질지성은 외면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회이거나 충동적인 상황에서 내면적인 본연지성을 끌어낼 여유나 공간적 겨를 없이 충동하

는 마음을 일으켜 그 상황에 방어나 공격이나 탐욕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개성 근성 특성 또는 심한말로 동물성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관한연구는 송대의 기철학자인 장횡거선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이르렀다.

### 3. 중용과 중화

이러한 외면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지성을 순수한 안정적 본연지성으로 따르게 해서 인(仁)을 발휘하여 과부족이나 치우침이나 기울음도 없는 알맞은 상태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용의 도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에서 알맞은 상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덕행으로 말하면 중용이고 성정으로 말하면 중화라고 볼 수 있다.

동양철학은 천(天) 지(地) 인(人)을 삼위일체로 간주하고 중용과 중화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하늘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형이상학적 추상관념으로만 설명하였지만 첨단과학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형이하학적 현실론으로 설명한다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며 우주과학으로 예를들어 본다면.

하늘은 우주자연의 섭리로서 광의로 볼 때에는 천체 모두의 총칭일 것이고 협의로 볼 때에는 태양과 9개행성의 운행으로서 태양열을 발산하는 태양계의 에너지와 적정온도의 공급원일 것이고 땅은 지구 자체의 존재로서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저장하고 공기를 형성함으로써 생물이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사고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격체로서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태양의 중용은 치우치거나 기울음도 없는 고정적 정위치 고수일 것이고 과부족 없는 일정한 태양열 발산이며 자체에너지로 구심력을 발휘해서 원심력을 가진 태양계의 행성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옹호하는 것이며



지구의 중용은 23.5도의 지구축과 자전공전 주기와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온도와 수분과 공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사람의 중용은 7정(喜怒哀懼愛惡慾)을 절도에 알맞게 하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가리우지 못하게 해서 그 본연지성이 사람의 사람다운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큰 덕이란 「삶」을 이어가게하는 근원이라고 하였으며 중용에 이르기를 천지간에 중화가 지극하게 되면 천지가 본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 본 역할을 하게 되며 만물이 중화의 조화 속에서 번식하고 생육한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중화가 지극하게 되면 인화가 이루어져 때로는 지리와 천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조화와 균형의 도는 지성(至誠)으로 부터이며 지성은 하늘의 도이고 지성을 성취하려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하였으니 그 성과가 조화와 균형으로서 하늘의 도란 순환의 진리를 의미하고 사람의 도란 사람다운 성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中庸, 章句 1장

孟子, 公孫丑 下 1장

中庸, 章句 20장』

## VI. 유학의 전통

유학은 요 순시대를 이상으로 하였고 하 은 주 삼대를 연원으로 하였으며 사람의 도리와 가치관에 초점을 둔 교학사상으로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간의 사회윤리를 인(仁)으로 교화하는 학문이다.

공부자의 인(仁)의 사상에 맹자가 의(義)라는 행동철학을 확충해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 난세를 극복하려 했으나 진나라(BC221~202)시대를 지나서야 한나라때에 동중서, 사마천, 사마상여, 양웅, 마용, 정현, 반고, 허신, 공안국등에 의

하여 유학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350여년이 지난 당나라(618~907)시대에 와서 한유, 유종원, 공영달등에 의하여 유학의 진흥노력이 있었으며 그후 송나라(960~1127)시대에 와서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 주희등이 유학의 이론을 체계화 함으로서 이(理)와 기(氣)와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세상에 모든일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중 이(理)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여 성리학이 체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명나라(1368~1644)시대에 와서 주자의 성리학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여 왕양명이 실천을 중요시하는 지(知) 행(行)합일설을 내놓았는데 얇은 행동의 첫걸음이며 행동하는것은 얇의 완성이기 때문에 지와 행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소수림왕(372)때에 도성에 태학을 설립하였고 지방에는 경당을 설립하여 학문과 무술등을 가르쳤으며 그뒤 고려시대에 안향이 충렬왕(1289년)을 따라서 원나라에 갔다가 주자전서를 베껴오면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조선시대 초기에는 불교문화를 압도하였었다.

조선중기에는 실학이라는 양명학이 퇴계 이황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학파를 형성함으로써 조선말기의 개화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선조때의 퇴계 이황은 이(理) 기(氣) 2원론을 주장하였고 율곡 이이는 이(理) 기(氣) 1원적 2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이(理)와 기(氣)의 학파가 중국적으로는 봉당정치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후 다시 정약용 홍대용등의 실학이 유행하다가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외래문화가 유입되고부터 유학의 쇠퇴기를 맞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VII. 유학의 현재

2009년 11월 3일자 강원일보에서는 중국의 유학현실을 소개한 바 있다.

중국학계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공부자탄강일을 세계 스승의날로 지정하자

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80여개나라 300여개소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중국문화를 전파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부자의 문화유적을 복원하는데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균관에서 유학에 관한 문화를 학습하려 했던 중국이 이제는 유학의 문화를 주도하려는 실정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성균관대학이나 성균관에서 유학사상을 계승하여 왔으나 중국은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단절했던것이 현실이었다.

더 나아가 2009년 공부자탄강 2560주년을 맞아 서방 미국연방하원에서도 중국의 교학사상인 공부자에 대하여 추모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알그린 텍사스주 연방의원이 공부자 교학사상의 인류문명에 대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부자가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위대한 교육자이자 사회철학가로서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등의 사회와 정치사고에 영향이 컸으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부자의 교학사상은 가정 사회 국가등 모든 인류의 도덕적행동 규범을 제시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만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공부자의 유학사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사실로 볼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흥에 길을 가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질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것으로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있던 것을 진흥시키자는 것이다.

## VIII. 맺는말

유학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고학적인 학문으로서 공부자의 인(仁)의 철학사상이고 현대과학과는 상대적인 학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형이하학적인 연역적 현대과학과 형이상학적인 귀납적 고대동양철학은 상호보완관계임을 설명하려고 한다.

현대과학은 원리에 입각한 분석적 학문으로서 불과 1세기동안에 지대한 성과를 이루어서 인류문명에 무한한 편리를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전통유학은 진리에 입각해서 그 과학을 운영하는 인간의 사상과 사려와 가치관을 건전하게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 예로 비행기를 만들어 날수있도록 하는것은 과학이지만 이륙·착륙 및 운행의 묘는 인격을 갖춘 인간 조종사이다 그 조종사의 위기관리 능력의 불시착이나 회항등의 이성적인 판단능력은 지(智)나 의(義)라는 기지발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유학사상의 진리가 중용이고 중화이며 성과가 조화와 균형이다.

그러므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때에도 제일먼저 권고하는것이 화해나 조정이고 자동차앞바퀴도 정열이라는 중용의 도가 필요하며 노사간의 침해한 이해대립도 타협이라는 중화를 목표로 해야하고 남북한의 이념대립도 민족화합이라는 통일염원을 감안해야 하며 국제질서도 지구촌이라는 인류평화로 가야만 한다.

때문에 중국에서도 외면했던 유학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보다 서두르고 있어 지금 지구촌에는 21세기의 인류미래가 벌써 진행되고 있고 EU여러나라가 경제통합을 이루고 정치통합까지 하려고하지 않은가!

점진적으로 유럽이후에 5대주가 각자 통합한 뒤에 더 나아가 6대주가 하나로 통합한다면 인류평화라는 지구촌이 형성되는데 유학에서는 이런현상을 예기 예운편에서 대동(大同)사회라고 한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이 거의 2분법으로 전개되는데 그 원리를 규명할때는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바랄때에는 순환논리로 조화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禮記, 禮運篇』

지식은 과학이고 행실은 유학으로서 조화를 이루면 참신성이 되고  
 자동차는 과학이고 기사인격은 유학으로서 조화를 이루면 안전성이 되고  
 경제학은 과학이고 통치철학은 유학으로서 조화를 이루면 정치력이 되고  
 물질은 과학이고 가치성은 유학으로서 조화를 이루면 효용성이 되니  
 첨단과학문명과 정신문화와의 조화와 균형이 미래문명 아니겠는가!

인체의 건강으로 예를들어 말하자면 기능적인 신경계의 작용과 기질적인 혈액류계의 작용이 중화를 이룰때만이 가능하므로 교감(흥분)신경과 부교감(억제)신경의 부조화는 곧 질병을 의미하고 과학문명과 정신문화 단절은 곧 사회병폐를 의미한다.

때문에 서산대사는 심오한 선시(禪詩)를 남겼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行今我行跡 遂作後人程

**눈을 밟으며 들관을 걸어갈때에 반드시 함부로 걷지마라  
 지금 가고있는 나의 발자취는 언젠가는 뒤따라 오는사람의 길이되리니.』**라고..

지금의 사회현실은 불과 50여년 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과학에 의한 물질문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당면한 현실에 낙오되지 않기위하여 경쟁적으로 최고만을 지향한 결과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정신문화 진흥에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가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다. 다행이도 정부에서 문화융성에 힘을 기울이고있고 인간성을 함양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더 더욱 다행한 일이다. 차제에 적폐를 개조하려는 혁신제도로 잘못된 관행과 편법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찬란한 첨단과학문명시대에 도덕질서가 정연한 정의사회와 가치관이 확립된 정신문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면 이것이 바로 선현들의 선비정신이자 유학사상으로서 21세기 미래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정신문화가 정착 될것이다.

때문에 정조시대 박준원은 “꽃을 바라보며” 라는 심오한 시를 남겼다.

『世人看花色 吾獨看花氣

此氣滿天地 吾亦一花卉

**세상사람 모두들 꽃잎을 보지만 우리는 오직 꽃향기를 볼 줄 알아야 하오  
이런 향기 온천지에 가득찬다면 우리역시 각자가 꽃송인 것을  
이라고...**

2014. 11. 1.

황성문화원 유학강사 김 인 규



# 선진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발상전환의 지혜

## I. 들어가며

고정관념은 길들여진 생각으로 수직적 사고와 흑백논리, 권위주의, 습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고착화된다. 고정관념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변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 현원명  
(전 황성중학교 교장)

‘봄’ 하면 누구나 고정관념으로 진달래, 개나리 등 계절을 연상하지만, 무엇을 보는 개념으로 거울 안경 등을 떠올리는 사람은 적다. “배가 고프면 설렁탕을 먹지만, 뇌가 고프면 뇌진탕을 먹어야 한다.” 여기서 뇌진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색다른 생각이다. 뇌에 색다른 경험을 주어 고정관념을 세탁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발상으로 살지만,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역발상을 정발상으로 믿고 살아간다. 발상전환은 교육의 마중물 효과, 삶의 지혜 및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발상전환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작심 3일을 작심 365일로 바꾼다.” 마음먹은 일이 3일을 못가는 생각을 365일로 연장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스포츠 경기는 육체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로 승부가 결정된다.”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지 말고, 가진 열 가지에 감사한다.” 등으로 일상생활의 단면에서 발상전환, 역발상을 하여 강력히 실천을 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II. 교육의 발상전환 사례

### 1. 머피의 법칙

나는 오늘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운이 없어 재수 없는 날이다. → 나 중심 기준의 판단, 불완전한 사고능력에서 나오는 오류로서 합리적, 논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우연발생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인과(因果) 관계라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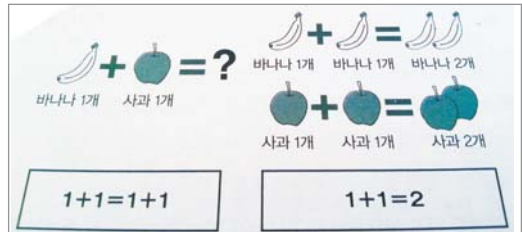


사례 : “내가 공부한 곳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적중도가 높고 출제빈도가 높은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 엉뚱한 곳을 공부함에 원인이 있다. ‘시내버스는 기다리면 오지 않는다’ 이는 내가 타는 노선의 버스가 방금 출발 상태에서 내가 기다리므로 오래 기다려야 함은 당연한데,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것이 우연발생이 아니라 인과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 2. $1+1=1+1$ ?

호기심과 의심은 창의력의 어머니이다.  $1+1=2$ , 답을 알면 창의력은 죽는다. 바나나 1개와 사과 1개를 더해도 바나나 1개, 사과 1개는 그대로 있다. 사과 더하기 사과처럼 종류가 같은 카테고리의 수를 세는 조건에서 2가 된다. 종류가 다른 것을 더하면 한쪽이 2배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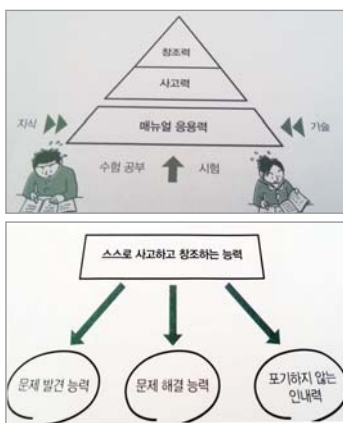
초교에서  $1+1$ 이 왜 2가 되는지 설명 없이 2라고 암기시킨다. 2가 되는 경우와 2가 아닌 경우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답을 2로 판단 후  $1+1$ 을 깊게 사



고하지 않는다. 매뉴얼은 사고의 맹점을 만든다. 생각의 날개, 창의력을 달아야 한다.

### 3. 고루한 매뉴얼 인간에서 창의적인 사고형 인재로

현대에는 매뉴얼의 시대로 많은 일의 예측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뉴얼화하여 안전, 안심을 확립한다. 그러나 미래는 스스로 사고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3 단계 과정: ① 문제발견능력 기르기→② 문제해결능력 기르기→③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기르기. 생각이 곧 창조이다. 매뉴얼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지식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 4. 주입식 교육에서 역량교육으로

지식 중심, 획일성, 교과서 진도, 문제풀이 지도 등 주입식 교육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진단 능력(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의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학업 흥미도가 전 세계 최하위이다. 특히 언어적 역량(다양한 글을 읽고 역량을 분석하는 교육)을 위해 참여형 교육, 질문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목표설정-수단의 선택-실행-평가 등 전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여 자기진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익히는 역량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10가지: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시민의식,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국제사회문화이해력 등이다.

## 5. 정답(생각할 점) 사회에서 좋은 답(느낀 점) 사회로

정답(right answer) 맞추기의 수동 교육에서 개인이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답(good answer)을 찾는 능동 교육이 시급하다. 학생들은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욕심쟁이라 외워야 한다. 흥부는 게으르고 놀부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창조적인 답을 쓰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이다.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창조적 사회는 좋은 답 교육에서 출발한다.

생각할 점은 교훈, 개선점, 반성할 점, 경쟁심의 고취방안 등으로 이기심이나 개인주의를 조장한다. 반면 느낀 점은 동병상련, 이심전심, 공감, 연대감, 같은 배를 탄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다.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다 같이 중요시하며 감성지수를 높인다. 한석봉의 이야기를 읽고 공부에 왕도는 없다.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점을 써야 칭찬을 받는다. 반대로 한석봉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서 불을 끄고 글을 쓰라는 말씀에 당황했고, 불을 켜 자신의 글을 보고 글이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길로 가면 좋겠다고 썼다면 느낀점이 된다. 이제는 생각할 점에서 느낀 점으로 옮겨가야 한다.

## 6. 교실의 내 옆에 앉은 짝은 경쟁가가 아니라 친구이다

영화 'Beautiful Mind' 에서 술집 한 무리의 남자들이 맞은편에 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어 합석을 한 후 모든 남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에게 집중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콧대가 높아지고 친구들의 질투도 부담되어 모든 남성들을 거절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나머지 여성에게 접근하지만 그 여성들은 자존심이 상해 역시 거절하고 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쉬는 '내쉬균형 이론' 을 만들었다. 즉 남성들이 미리 내부적으로 각자 접근할 여성을 협의하여 집중하면 남성 모두가 한 명의 여성 과도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 점수보다 석차를 본다. 실제로 같은 반에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설령 그렇다 해도 나의 경쟁자는 아니다. 만약 친구와 내가 K대학 B학과를 지망했는데 정원이 200명일 때 친구는 합격이고 내가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지원자 중에 내 등수는 201등이다. 이 경우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200등으로 합격할 때는 경쟁이다. 내가 202등이면 친구가 없다면 201등이 되지만 불합격은 변함없다.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나의 짝은 경쟁가가 아니라 친구일 뿐이다.

## 7. 선행학습에서 적시 학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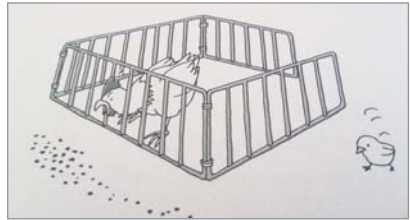
선행학습은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교수업의 흥미를 잃게 하고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지게 한다. 진도와 속도 경쟁의 선행학습형 사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행학습보다 학습연령과 학교 진도에 맞는 적시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나친 조기교육은 신체적 장애를 가져와 뇌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12세 이후부터 후두엽(시각 기능)이 많이 발달하여 과다한 선행학습보다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인정하는 시기로 자아성찰 교육이 필요하다.

## 8. 집중학습에서 분산학습으로

미국 로버트 스틱골드와 데이비드 포스터가 주장한 분산학습 이론과 간격효과란 어떤 내용을 1회에 집중 학습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간격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능률적인 이론이다. 그 이유는 수면으로 먼저 학습한 기억을 방해할 만한 정보의 입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으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의 해마가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수면을 취하면서 분산학습을 실시해야 학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

## 9. 닭보다 병아리가 되라

닭은 한눈팔지 않고 울타리 너머의 먹이를 향해 가지만 울타리에 막혀 먹지 못한다. 반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병아리는 울타리가 끊긴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빠져나와 먹이를 먹는다. 한눈팔지 않고 목표



물을 향해 돌진하는 닭의 행동을 **목적 지향형(goal-oriented)**, 호기심대로 행동하는 병아리 행동을 호기심 **주도형(curiosity-oriented)**으로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래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으로 위대한 발견들이 출현한다.

## 10. 착한 아이보다 도덕적인 아이가 되라

착한 아이는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타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타인에게 양보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하며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반면 **도덕적 아이**는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여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줄 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주면 자존감 높은 도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

## 11. 목표설정보다 명확한 목표를 구체적인 글로 적어 간직하라

미국 예일대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꿈이 가진 힘을 간직할 수 있다. 27%가 아직 아무 목표가 없다. 60%가 뚜렷하지 않으나 막연한 목표가 있다. 10%가 명확한 목표가 있다. 3%가 명확한 목표를 구체적인 글로 적어 간직하고 있었다. **졸업 후 20년이 경과되어 확인한 결과 명확한 목표를 구체적인 글로 적어 간직한 3%의 졸업생이 가진 재산이 나머지 97% 졸업생의 재산보다 많았다. 명확한 목표가 가진 힘은 위대하다.**

## 12. 읽고 듣는 학습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학습으로

에드가 데일과 브루스 하일랜드의 연구를 보면 학습 후 2주가 지난 후 평균적으로 기억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읽은 것은 10%, 들은 것은 20%, 본 것은 30%, 보고 들은 것은 50%, 말한 것은 70%, 말하고 행동한 것은 90%였다. 즉 학습 방법에 따라 기억 효과가 다르다. 단순히 읽으면서 학습하는 공부법은 비효율적이다. 연극 리허설처럼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curtain’을 외울 때는 실제로 커튼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촉을 느끼고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입으로 ‘커튼, 커튼’ 반복해서 외우면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이다.

## 13. 지능지수보다 감정지수를 늘려라

높은 지능지수에 낮은 감정지수의 사람은 지식은 높고 인생은 메마르게 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독백으로 살아간다. 반면 낮은 지능지수에 높은 감정지수의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베풀고 감정표현이 자유로우며 인생의 풍족감, 행복감을 준다.

감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할 때가 온 것이다. 만약 감정으로 영감을 주려면 스스로 그 감정 속에 빠져 들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눈물이 나오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눈물을 흘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면 당신 스스로가 믿어야 한다.

## 14. 우뇌형 또는 전뇌형(全腦型)의 적용

창조적 발상은 우뇌에서 하지만,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좌뇌의 논리, 체계, 분석적인 힘이 필요하다. 즉 좌·우 뇌 균형이 잘 잡혀야 한다.



## 좌뇌와 우뇌의 사고형태

〈좌뇌〉	〈우뇌〉
언어적 사고 · 판단	시각적, 이미지적 사고 · 판단
많은 정보에서 체계적 추리	하나의 정보로 전체를 파악
이성, 지성	감성
논리적, 분석적	직관, 감각적

**두뇌우성:** 인간두뇌는 4분면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한쪽 면이 더 강하게 발달한다.

좌측 전뇌	논리, 분석 등 목표지향형
우측 전뇌	예술, 상상 등 창조지향형
좌측 기저뇌	꼼꼼, 세밀 등 원칙지향형
우측 기저뇌	관계, 감정 등 정서지향형

→ 두뇌우성을 찾아 적용하면 맞춤 두뇌 활성화로 이어져 진로적성 선택 및 개인별 직업의 성공과 행복을 준다. 반대로 비우성 즉 자기의 두뇌우성이 아닌 분야에 진로 직업을 가지면 비능률적이고 불행하다.

## 15. 고독감보다 고독력으로 살라

고독감(Loneliness)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는 절박한 상황, 외로움이다. 반면 고독력(Solitude)은 스스로 만든 적극적인 고독이다. 혼자 힘은 위대한 힘이 있어 훌륭한 창조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실제로 모든 창조는 혼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결과물이다. 혼자일 때 밀도있는 학습, 깊은 사색, 반추, 지적 자극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얻는다. 불교의 깨달음, 참선, 삼매, 몰입, 기도, 명상, 기적, 집중 등도 고독력에서 탄생한다. 고수 달인 전문가도 고독력이 스승이다.

## 16. 자이가르니카 효과

이미 완성된 일이나 학습한 내용보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더 오래 잘 기억하는 현상을 자이가르니카 효과라고 한다. 분야에 관계없이 완성하지 못한 과제나 행위는 완성한 것보다 더 잘 기억하는 정도가 평균 두 배에 달했다. 과제를 중단하면 그 인식이 긴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연상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도 더 기억이 잘 나는 것이다.

## 17. 문과 + 이과 통합 계열

창의적 지식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 계열을 해야 한다. 지식 융합은 End에서 And가 계속되는 과정이다. 창조는 양자택일보다 양자병합속에서 태어난다. 지식융합은 동종, 유사, 이종지식 상관없이 두가지 이상의 지식을 융합하는 노력이다. STEAM 융합교육은 이과(과학 기술 공학 수학) + 문과(예술)로 창의력, 사고력을 신장시켜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18. 비유>이미지>말

의사소통과 기억을 위해 말을 한다. 이미지 한 장은 단어 1천개 보다 더 큰힘이 있다. 어머니 모습의 이미지는 형용할 수 없는 말을 간직한다. 말은 잊혀지나 이미지는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비유는 이미지보다 더 강력하다. 비교→비극을, 비유→비전을 낳는다. 비교→어제의 나와 하고, 남과의 비교는 금물이다. 재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너는 형처럼 왜 스스로 못하니?” →이러한 비교는 비극이 된다. 비유는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하는 말로 비전을 준다.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는 말: “꿈은 새끼 곰이 자라면 산딸기가 많은 곳으로 데려가 어린 곰이 산딸기를 한창 먹는 순간, 어미 곰은 몰래 멀리 떠나버린다. 새끼 곰의 독립심을 길러주고 스스로 살아가도록 함이다.”

## 19.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미국 로크리지연구소의 조지레이코프 연구원에 따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코끼리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상대방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계속하면 공격을 한 쪽의 프레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는



대상(듣는 사람)의 프레임을 활성화하여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된다. 결국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게 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 된다, 된다, 된다, 세 번만 말하면 어린이는 벌써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라고 반복 격려하면 하게 된다.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

## 20. 공부는 스케줄링에서 프래닝으로

공부는 시간관리 위주의 스케줄링에서 벗어나 프래닝 즉 '목표-전략-시간배치-실행-피드백'의 전략적 학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부를 방해하는 유형으로 목표 동기부여 부족, 전략 부재 현상, 시간관리 능력 부족, 실행능력 부족, 피드백의 부재 등이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라,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육상선수에게 물어보라.

피드백이란 목표달성 점검으로 지난 주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 분석하여 다음 주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이다. 공부 목표는 What(과목, 목표, 분량), How(도구, 공부 방법), When(시간 배치)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 III. 생활의 발상전환 사례

#### 1. 앵그리(Angry) 사회에서 헝그리(Hungry) 사회로

학력은 높지만 지성은 쇠퇴하고 경쟁력은 높아졌지만 피로감은 견디기 어려워서 쉽게 상처받고 디스(Disrespect의 준말: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해 망신 주는 것), 모멸감, 콤플렉스, 감정노동 등에 시달린다. 스티브 잡스는 Stay hungry, 지식에 굶주려라, 극도전정신, 야망 의욕, 경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실즉허 허즉실(實即虛 虛即實),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자신을 비움이 나를 더욱 채워 줄 것이다. 배부름보다 배고픔에 머물면 그 고통이 나를 깨어있게 한다. 나는 늘 부족하여 계속 갈망해야 한다.

#### 2. 골리앗보다 다윗 되기

‘다윗과 골리앗’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에 따르면 다윗의 승리는 기적과 행운이 아닌 지혜와 전술의 결과였다. 다윗은 청동 투구를 쓰고 전신 갑옷을 두른 느리고 시력이 약한 거인 골리앗에 돌을 던진후에 쓰러진 목을 뺐다. 싸울 때 다윗의 필요(절박함)는



골리앗의 충분(자만심)을 이겼다. 다윗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고 골리앗의 패배는 배리가 아닌 순리이다.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화이다.

#### 3. 밀림과 스포츠의 사회에서 교향악의 사회로

**밀림의 사회**란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죽이느냐의 살벌한 투쟁, 폭력의 법칙이 지배하는 약육강식, 사생결단이 있다. **스포츠사회**란 규칙을 지키며 정정

당당하게 싸워 공정한 심판으로 승패를 가린다. 법과 정의에 의한 승자는 기쁘고, 패자는 슬프고 냉혹하다. 반면 **교향악의 사회란** 우리의 희망대로 투쟁, 승자, 패자도 없는 사회로 모두가 정연하게 질서를 지키며 절제된 소리로 협동과 조화를 통해 가치를 창조한다.



#### 4.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이다

문제 중심 해결 방안 탐색으로 갈등 심화의 원인을 상대방, 즉 사람에게 돌리면 갈등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갈등 심화 원인을 사람보다는 문제에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 상황의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잠시 갈등 상황에서, 해당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이면 자기 인식 전환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조정자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

#### 5. “살려 주세요.” VS “도와 주세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살려 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서양 사람들은 “도와 주세요.” 라고 한다. 전자는 나의 생사여탈권이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는 말이고, 후자는 당신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주면 내가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으니, 힘을 좀 보태 달라는 말이다. 우리는 **의존과 자립이라는 전혀 다른 의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함보다 자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자립심을 길러야 한다.**

## 6. 위기는 곧 기회이다

위기는 危: 위태로울 위(Risk), 機: 틀 기이다. 위기라는 단어는 2중성·부정과 긍정, ‘-’와 ‘+’가 공존한다. 즉 위기는 2가지의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위기적 상황은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물러설 수도 있고, 플러스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위기에 처한 소극적인 비관론자: 이제 끝났다고 절망한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람: 기회와 희망을 포착하고 도전의 삼질을 시도, 위(危)에서 기(機)를 본다.

## 7. 인생은 미완성이다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미국 동화작가 실버스타인의 작품이다.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난다. 도중에 벌레, 꽃, 풍뎅이, 나비 등을 만나 친구가 되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여행을 한다. 동그라미는 구덩이에 빠지고 돌담에 부딪쳐 코를 깨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빨리 빨리 굴러 벌레, 꽃, 나비도 그냥 지나치고 노래도 부를 수 없었고 불편해졌다. 결국 동그라미는 되찾은 조각을 다시 떼어 내려놓고 천천히 굴러가며 흥겹게 노래 부르며 길을 떠난다.

완벽함보다 부족함에 만족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노력할 때 인간답고 성숙해 질 수 있다. 완벽함의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특별히 잘 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일이 아니며, 평범함속의 행복을 전해준다.

## 8. 황금 왕보다 덕치 왕이 되라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 신은 두 나라의 왕인 황금 왕과 덕치 왕을 불러 말했다. 원하는 것을 한 가지씩 들어 줄 테니 말을 하라고 하였다. 황금 왕은 “저는

손에 닿은 것은 모두 황금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덕치 왕은 “저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디오니소스 신은 두 왕의 소원을 모두 들어 주었다. 그 이튿날 황금 왕이 옷을 입자 옷이 금으로 변했고 화초를 만지자 화초도 금으로 변했으며 아침을 먹으려 하자 음식이 모두 금으로 변했다. 왕비와 공주의 손을 잡으니 그들도 금덩이가 되어 값어치 있는 것이 황금이 아님을 깨달았다.



탐욕과 과욕의 마이더스 손(Midas Touch)이었다.

덕치왕은 디오니소스 신에게서 들은 덕을 베풀어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 덕치왕은 삶의 지혜를 알아 덕으로 자신을 수신하였다, 좋은 말씀, 생각, 행실이 자신을 부유하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 9. 적시성과 적소성

어떤 행동이든 적시성(適時性)과 적소성(適所性)을 바로 얻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제 때, 제 자리를 바로 알고 제 때, 제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즉 적재적소가 중요하다. 세 가지 앎(三知) 즉 족함을 알고(知足), 자기 분수를 알고(知分), 멈출 줄을 아는(知止)데 있다. 내던지 않고서야 멈춤을 모르고, 한 걸음이라도 행해봐야 족함도, 분수도 알게 된다. 분수란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 자기의 신분에 맞는 행동,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작은 걸음, 작은 출발이 소중한 까닭이다. 세상의 출발은 한 걸음이다.

## 10. 외적인 힘보다 내적인 힘

외적인 힘은 돈, 지위, 권력 등이다.

**내적인 힘**은 ① 자존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경을 갖는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 자학이나 자기 멸시를 추방한다. ② 자각은 내가 나를 바로 아는 것. 자조 자립 자주의 의지가 생성된다. ③ 자제는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 극기로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억제하고 자신이 잘못된 감정이나 행동을 누르는 것. 자존 자각 자제가 없는 사람은 자학과 자기 멸시와 자기에 대한 무절제와 방종한 행동에 빠지게 된다.

큰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서, 나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천하를 움직이기를 원하는가? 먼저 스스로를 움직여라.” 라고 말했다. 『수처위주(隨處爲主), 어디서나 주인이 되어라』

## 11. (실용지능, 감성, 사회지능, 공존, 창의력) 지수

성공한 사람은 **지능지수(IQ)**가 높다고 한다. 지능은 인간의 여러 능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면 지능지수는 감소하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인 **실용지능지수(PI)**는 향상되므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감성지수(EQ)**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사회지능지수(SQ)**는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 즉 인간관계에서 문제해결의 능력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다.

네트워크 시대의 성공요인인 **공존지수(NQ)**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남을 배려하여 자신과 상대가 함께 성공하는 개념이다. 군자고궁(君子固窮),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이 군자이다. 군자의 삶은 역경에 대한 극복능력이 있다. 931회 외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민족은 역경극복 유전자가 있다. 유용한 아이디어, 지식 및 생산물을 산출하고 가치화하는 힘은 **창의력 지수(CQ)**로 미래의 성공 잣대가 될 것이다.



## 12. 손자병법의 기정(寄正) 전략

기(奇)는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전략이고, 정(正)은 경쟁자도 알고 나도 아는 전략이다. 정으로 경쟁자와 맞서고 기로써 승리를 결정짓는다. 모든 철강회사는 고로공법 즉 정으로 경쟁하지만 이기는 일이나 성공이 힘들다. 그러므로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 즉 기로서 세계 최고 철강회사가 되었다. 야구에서 투수의 직구는 정이지만 변화구인 기로 승부를 내는 일이 많다. 낙동강 전투는 정이고 인천상륙작전은 기로서 쉽게 이겼다. **나폴레옹은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말하였다.**

## 13. 중산층 기준의 발상전환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중산층의 기준은 (부)동산, 연봉(수입), 고급주택, 직업, 자가용, 저축액, 명예 등 가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프랑스는 악기연주 능력, 외국어 사용능력, 요리자격, 외국여행 경험, 봉사활동 등 개인 능력이나 보람 있는 일 등이 기준이 된다. 물질적 행복, 황금만능주의에서 정신적인 행복, 개인역량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 개선 등에 두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물질보다 정신, 마음의 평화, 보람이 중요하다.

중산층의 측정지표인 율프슨 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분산 정도가 클수록, 양극화될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 수치가 0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증가하고 1에 가까우면 중산층이 감소한다. 한국은 2011년 0.254에서 2012년 0.256으로 상승하였다.

#### 14. 성공(행복)의 기준(재산 → 좋은 부모)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설문으로 조사한 성공(행복)의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① 좋은 부모가 되는 것, ② 행복한 결혼, ③ 원만한 인간관계였다. 하위권에 속하는 것은 ① 권력을 갖는 것, ② 부자가 되는 것, ③ 명예를 얻는 것 등이었다. 행복의 기준이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으로 서양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값지다.

#### 15. 다이내믹 코리아 사회 → 사색하는 사회

외면적 물질적 성장, 왕성한 경쟁력, 패기, 정면 돌진 분위기, 빨리 빠리의 속도 문화 등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주도해왔다. 이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내면적 정신적 성숙, 심리적 만족감, 내적 자제력 등과 대조되어 각가지의



악 영향을 끼친다. 깊고 다르게 생각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자기 성찰을 가져오고 창의력의 산실이 되는 마음, 휴식, 힐링, 감성, 공동체 의식은 사색하는 사회에서 나온다.

#### 16. ithinking(내 생각) → uthinking(우리 생각)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Think(생각)의 i(나)를 바꾸면 Thank(감사)가 된다. 나의 생각을 바꾸면 모두가 감사요, 축복이다. 우분투(ubuntu) 정신이 있다. 남아프리카 나탈족의 인사말이다. '자우보냐 :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시코냐 : "나는 여기

있어요.” 누군가 나를 보아주기 전까지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보아 준다면 그때부터 나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분투 정신은 상호존중과 서로의 장점을 보아주어 각자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가족, 사회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킨다.

## 17. 하이테크 시대에서 하이터치 시대로

하이테크(High-Tech) 시대는 과학적, 분석적,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사고이며 치밀하고 좌뇌형 두뇌를 요구하는 첨단 경쟁 기술의 능력이다.

하이터치(High-Touch) 시대는 역동적이며 우뇌형으로 남과 공감하고, 감성적인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하이터치는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의 6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의 향수가 있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다. 디지털 기기 시장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 18. 자기완성 = 관계완성, 충서(忠恕)

충(忠)은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과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다. 충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의 한가운데'를 뜻한다. 가장자리나 변두리에서 헤매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완성이다. 충이란 대상없이 자기 홀로 실천하는 것이다.

서(恕)는 같음을 뜻하는 여(如)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결합된 글자다. 나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과 같다는, 혹은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완성이다. 서란 용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공감이다. 충서란 곧 정성과 공감이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忠) 타인의 마음 또한 충(忠)하다고 믿을 수 있다. 충(忠)하지 못하면 서(恕)하지 못한다. 마음이 가장자리에 머물러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 또한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각박하고 웅졸해진다.



## IV. 나오며

생각이 기적이다. 때로는 역발상이 정발상이다. 고정관념을 발상 전환시키는 것은 프레임, 즉 생각의 틀의 변화이다. 프레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더 효율적인 생각과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정의(定義)이다. 국어 사전에는 거의 모든 사물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사전(辭典)이 사전(死典)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프레임을 바꾸려면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 일상의 간단한 문구나 문장의 정의를 바꾸어 보자.

『복 많이 받으세요. →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복을 짓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어떤 역경이 닥쳐도 사랑해야 한다. 『큰 일(전체)에 강한 사람이 되라 → 작은 일(부분)에 강한 사람이 되라』 Detail에 강한 사람이 결국 큰 일도 잘하여 성공이나 승리를 한다. 『학생으로서의 청소년 → 청소년으로서의 학생』 학력 지상주의, 모범생에서 창의성, 재능, 모험생이 되어야 한다.

『best one → only one 교육, best people → right people이 되자』, 『우연한 성장 → 의도적 성장』 행운보다 노력, 포기보다 인내, 안전보다 위험을 감수, 내일에서 오늘 시작한다. 『학생교육은 지시 명령이다 → 학생교육은 코칭, 격려이다』 일방적인 지시, 통제는 반발, 반항을 유발하나 코칭, 상담은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하고 촉진자, 동반자, 멘토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켜준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이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등이다.

모든 일에는 출구가 있다. 그러나 그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 이와같이 발상전환은 삶의 지혜, 성공의 지렛대, 행복 충전소, 꿈 전도사, 희망의 마중물, 버킷 리스트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나 자신과 생활 단면에서 정의를 바꾸는 프레임의 변화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또한 발상전환으로 선진교육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 IV.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 섬강(蟾江) 이야기 | 유승희

\* “파리”의 재발견 | 한상균

\* 기록은 추억이되어 | 김미애

\*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 홍인희

\*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 풍수원성당 | 윤병철



# 섬강 蟾江 이야기



\* 유승희

## ■ 머리말

나는 황성군 공근면 오산리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으니 섬강의 즐기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특별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라 산이며 들이며, 냇가며 밭 단는 곳이 놀이터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

봄이면 뒷동산에서 진달래꽃을 꺾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놀이, 고기잡기, 달팽이 잡기가 유일한 놀이이며, 가을이면 이논 저논을 쫓아 메뚜기 잡기가 낙이고, 겨울이면 동구밖에 참새떼를 쫓아 참새 사냥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놀이였다.

오십 여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을 찾으면 그 시절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황성교(橫城橋)를 지나 섬강길을 따라 오산리 합수에 다다르니 그옛날의 기억들이 더욱 새로워진다.

농지정리, 수리시설, 사방사업, 무엇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터라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물 난리를 겪고, 냇가에 물구경이라도 가면 홍수에, 집이며 농작물이며 심지어 가축까지 떠내려 가는 것을 연례행사처럼 구경을 하곤 했었다.

어느 때 인기는 긴 뗏목을 몰고 지나가는 것도 본 기억이 나며 어느 소설에서 인지 지금의 갈풍리 합수 지역까지 소금을 가득 실은 나룻배가 드나 드는 내용의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난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면 그 큰 냇가가 조그만 산골도랑으로 줄어 주변은 온통

흰모래와 자갈밭으로 변하여 나름대로의 놀이터를 제공해 주곤 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양동이와 세수대야를 들고 한해대책에 참석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 지금의 섬강은 어떠한가?

산은 울창한 나무숲으로 밀림을 연상케하고, 경지정리가 잘 된 논과 밭, 홍수의 걱정을 덜어주는 영구적인 제방시설, 특히 횡성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농업용수 및 식수를 공급해 주고 있다.

이렇듯 섬강은 많은 세월동안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많이 바꾸어 놓았으며 횡성주민의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섬강은 어디에서부터 형성되어 어느곳으로 흘러가는지 그 발원지부터 찾아보자

## ■ 섬강의 발원지

섬강을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섬강(蟾江):강원도 횡성에서 발원하여 원주 여주 등을 지나는 강으로 92.6km라고 기록되어 있다.

횡성의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횡성읍을 중심으로 오음산(930△) 발교산(998△) 운무산(980△) 태기산(1261△) 청태산(1200△) 사자산(1120△) 매화산(1084△) 치악산(1288△)등의 높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고 남쪽으로 또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개의 물줄기 중에 둔내면을 지나 안흥면. 그리고 강림면을 지나 영월로 흐르는 물은 남한강으로 합류한다.

섬강은 태기산의 서쪽방향으로 흐르는 물줄기로서 몇몇 곳의 산에서 발원, 서로 모여 섬강을 이루고 있다.



섬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먼저 청일면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는 갑천면을 지나 황성읍에 다다르면 공근면에서 내려오는 또하나의 하천과 만나고 황성읍을 지날 때 우천면에서 발원한 하천과 황성읍 갈풍리지역에서 또한 번 만나 섬강의 이름으로 황성을 출발한다.

원주를 지나 부론에서 남한강과 합류, 여주.양평을 지나 팔당호에서 북한강과 합류 후 한강으로 탄생하여 서울을 지나 서해로 흘러간다.

### ■■■ 청일면 · 갑천면 지역물길

청일면 지역은 발교산(998△)과 운무산(980△) 그리고 봉북산(1028△)에서 발원하여 청일천으로 형성되어 갑천면 지역으로 흘러든다.

발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봉명산의 봉명폭포를 만들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봉명리에 이른다.

운무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속실리의 맑은 물로 우리의 식수로도 제공되며

여름철의 휴양지로도 이용되어 많은 피서객이 이 계곡을 찾기도 하며 유동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동리를 지나 하류로 흘러 내린다.

또한 봉복산(1028△)과 태기산(1261△)일부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봉복사와 신대계곡과 소구니계곡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물은 신대리. 갑천리를 거쳐 초현리에 이르며 유동천과 합류, 계천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리와 하대에서 발원한 소하천과 합쳐 횡성호로 흘러 횡성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횡성댐 물은 횡성호에서 잠시 머물며 각종 어류의 성장과 식수 및 농업용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흘러간다.

횡성댐을 지나온 물줄기는 횡성읍에 다다라 궁천리지역에서 갑천면의 태기산(675△)과 어답산(789△)지역에서 발원한 대관대천 물줄기와 합류하여 횡성으로 흘러든다.

어답산 지역은 어답산관광지와 병지방계곡으로 쉼터를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근면 수백리를 지나 마옥리에 이르면 주변은 온통 잘 정리된 넓은 농경지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물줄기는 다시 공근면 지역에서 흘러오는 금계천과 합류하여 횡성 지역으로 흘러든다.

### ■■■ 공근면지역의 물길

공근면 지역은 홍천군 동면의 대학산(876△)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홍천군 동면 좌운리의 좌운저수지에서 잠시 머물며 새로운 물길을 조성한다.

좌운리의 넓은 들을 지나 공근면 지역으로 흘러 들면서 상동리를 지나 부창리를 지날 때 어둔리 오음산(930△)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류하여 가곡리 청곡리로 흘러든다.

이곳에서 공근리의 소하천과 합류 학담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성지봉(791△)과 오음산(930△)에서 발원하여 창봉리를 거쳐 흘러 온 창봉천과 합류하여 금계천으로 탄생하여 매곡리에 이르러 초원리에서 발원한 소하천과 합류하여 오산리에 이르러 태기산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류하여 횡성으로 흐른다.

### ■■■ 횡성읍과우천면지역의물길

횡성읍 지역은 그다지 큰 물줄기를 발원하는 곳은 없으며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우천면 지역은 치악산(1288△)과 매화산(1084△)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학곡저수지에서 잠시 머문 후 범주리를 거쳐 문암리에 이른다.

또한 풍취산(699△) 지역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오원저수지에서 머문 후 오원리를 지나 문암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합류하여 대미원천이라는 이름으로 추동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정금지역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다시 합류하여 조곡리에 이르고 생운리 지역에서 치악산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합류하여 전천으로 탄생하여 갈풍리 지역으로 흘러 횡성천과 합류하여 모평리를 지나 원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듯 크고 작은 산과 들에서 형성된 샘물이 하나하나 모여 작은 도랑을 형성하고 도랑물이 모여 실개천을 형성하고 개천들이 모여서 하천과 강물을 이루워내니 우리의 자연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에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의 시절을 거쳐 성년이 되어 나름 대로의 꿈을 펼치고 노년기를 거쳐 인생의 황혼기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방울의 물이 흘러흘러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맥락 일수도 있을 것 같다.



## ■ 섬강의 역할

그러면 섬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예로부터 산과 강은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 농경지가 형성 되고 그 농경지를 이용하여 자연 부락이 형성되어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지금도 주요 곡창지대의 지형을 보면 맑은 물줄기를 따라 비옥한 토양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맑은물은 숲을 푸르게 하여 우리의 휴식처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항상 힘차게 흐르는 물은 우리생활에서 불굴의 의지 그리고 끝없는 노력과 앞날의 희망을 나타내기도하여 학교에서 교가의 한구절로 활용되기도한다.

청일면 소재 청일초등학교 의 교가중에는

주봉산 정기밭아 들판이루고 내청강 길게흘러 서해로가네

공근면 소재 공근초등학교 의 교가중에는

삼천리 이강산 빛나는곳에 금계천 맑은물은 곱게흐르고

황성읍 소재 황성초등학교 의 교가중에는

덕고산 영긴영기 스며내리고 섬강물 맑은정기 드리워있는

공근면 소재 공근중학교 의 교가중에는

끈기롭고 꿈은크다 금계천 바다가듯이

황성읍 소재 황성중 고등학교 의 교가중에는

금강에 정기밭아 남산은 높고 섬강은 흘러흘러 굽돌아드네

이렇듯 청일면 지역의 학교는 내청강을 공근면 지역은 금계천을 황성읍 지역은 섬강을 학교의 교가의 한구절로 삼아 강물을 교육의 상징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섬강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맑은물과 푸른숲 그리고 높은산을 이용하여 심신의 단련과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둘레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 황성호의 호수길

황성호의 호수길은 2011년 10월 15일 개장식으로 황성호수를 끼고 호수의 푸른 물과 주변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황성호수를 일주하는 6개의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총 27Km의 길이로서 1-4구간 및 6구간은 능선을 따라 물과 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으며 5구간은 물을 끼고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 각구간을세부적으로알아보면

제1구간은 황성담에서 대관대리에 이르는 구간으로 3Km의 거리이며

제2구간은 대관대리에서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으로 4Km의 거리이며

제3구간은 삼거리에서 화전리에 이르는 구간으로 1.5Km의 거리이며

제4구간은 화전리에서 구방리에 이르는 구간으로 7Km의 거리이며

제5구간은 구방리에서 망향의동산 지역으로 4.5Km의 거리이며

제6구간은 구방리에서 황성담 지역으로 7Km의 구간으로서 총27Km의 길이로형성되어있다

각 구간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 체력에 알맞도록 구간을 선정하여 어드레고 수시로 이용하여 체력을 향상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다.

### ■■■■ 섬강의 둘레길과 자전거길

자전거길은 개인의 체력에 따라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달릴 수 있어 어느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의 왕래가 없거나 드물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은 황성교 둔치에서섬강 줄기를 따라 수백교(水白橋)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정말 시원하고 상쾌한 코스가 아닌가 싶다.

섬강 돌레길은 황성교 둔치에서 오산리 냇가 금계천 합수까지의 제1코스는 약8.6 Km의 길이로 섬강 즐기와 능선의 지선을 따라 설치한 코스로서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숲의 그늘과 시원한 강바람을 찾으며 걷는다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며 합수의 징검다리를 건너 공근방향으로 금계천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오산교 나오는데 그 다리를 건너 가면 정자와 맑은 약수물이 나타난다. 호랑이샘물이라고 부르는 이 샘물은 사시사철 맑은물이 흘러 나와 걷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곤 한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기존의 2코스로 걷는 이들도 많이 있다.

또한 체력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제2 코스로서 13Km의 거리로 합수에서 제방둑을 따라 수백교(水白橋)방향으로 강변둑을 따라 더 걸으면 막걸리와 막국수 그리고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으며 반환점 지역에는 원두막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가을철에는 코스모스꽃도 장관을 이룬다.

기본코스는 반대편 강둑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주변의 도로망을 이용한다면 교량에서 수백리 마을로 향하면 유일무이한 동네구판장이 있으며 구판장을 지나 공근방향으로 조금 더 걸으면 아담한 수백초등학교가 나온다. 학교 주변에는 소나무와 잣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잠시 휴식과 땀방울을 식힐수있는 공간이 있어서 더욱 좋은 코스가 아닌가 싶다.

또한 먼거리를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황성교 둔치에서 냇가를 따라 소방서 방향으로 강변도로에 설치된 트래킹코스과 전천교를 지나 남산교, 조곡리에 이르는 강변도로는 냇가에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더욱 활용하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며 전천교를 건너 가담리 지역의 제방둑 길을 따라 반곡리 지역으로 내려가면 새로 단장된 포장길과 가을철 코스모스길이 아름답다.

이러한 몇 개의 트래킹코스를 이용하여 친지들과 우정도 쌓아보고 가족들과 화합의 시간도 마련하고 개인의 건강을 다져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된다.

## ■■■■ 황성의심장 인 황성댐

황성댐은 1987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부대시설 공사 및 댐공사가 진행되어 1999년 12월 28일 담수식을 시작하여 2000년 10월 25일 준공식으로 드디어 황성다목적댐으로 탄생하여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황성댐은 길이 205m 높이 48.5m로서 총 저수량은 8690만<sup>m</sup>³로서 100만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용수공급량은 년 119<sup>m</sup>³로서 원주와 황성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9km<sup>2</sup>의 유역 면적에 95000<sup>m</sup>³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 여름철 홍수시 홍수 조절로 홍수 피해를 감소 시키며 궁천리, 마옥리, 수백리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몰이 된 구방리 일대의 주민은 부득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이주를 하여야 했으며 지금도 구방리 망향의 동산에는 그 시절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망향의 동산과 유물전시관이 설치되어 고향을 찾는 이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있다.

또한 댐을 향하는 입구에는 축구장, 족구장등 각종 운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댐 주변을 따라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 각종 모임 및 단체 활동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 ■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섬강이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젖줄인 섬강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

여름 우기철 홍수라도 나면 온통 냇물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종 쓰레기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던 비닐, 깡통류, 농약병 등 무심코 버린 물건들이며 사용하고 회수하지 않은 물건들이 대부분이다.

평상시 서로 서로 관심을 기울여 환경 보호에 힘쓴다면 섬강은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사철 변함없이 흐르는 섬강처럼 끈기와 인내심 으로 황성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



# 파리의 재발견



\*한상균  
(전 우천초학교 교장)

## I. 들어가는 말

‘파리’ 하면 귀찮고, 더럽고, 때려잡아야 하는 존재로 알고 짐집마다 파리채를 비롯하여 각종 파리잡는 도구를 갖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파리 사진을 촬영하면서 파리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파리가 때려잡아야만 하는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의 청소부로 고마워야 할 존재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횡성지역에서 서식하는 파리의 종류와 특징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파리는 곤충강의 파리목으로 파리류, 모기류, 등애류, 파리매류 등이 속해 있는데 수십 개의 과에 85,000여 종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견하여 기록한 전체기록 종은 64과에 1,099종이다.

완전변태를 하고 다양한 촉각을 갖고 있다. 가운데 가슴에 한 쌍의 앞날개가 발달하여 있으며, 뒷날개는 가는 막대기모양의 평균곤으로 퇴화되어 나는 기능은 없고 몸의 평형과 나는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겹눈은 큰 편으로 종류에 따라 서로 접해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수컷은 완전히 맞붙고 암컷은 떨어져 있어 암수를 쉽게 구별하기도 한다. 홑눈은 보통 3개이다. 구기는 흡수성이면서 먹이를 빨아 먹기에 알맞으며 가슴은 뚜렷하게 나뉘고 몇몇 절편으

로 결합되었다. 다리는 긴 무리와 짧은 무리가 있으며 발목마디는 2~5마디로 끝에 한쌍의 욱반(褥盤)이 있다. 배는 12마디로 된 것이 원형이다. 유충은 ‘구더기’라고 부르는데 다리가 없는 무각형(無脚型)으로 원통형이나 방추형이다. 입에는 갈고리 같은 한 쌍의 이빨이 있으나 씹을 수는 없고 다만 즙액을 빨아먹게 되어있다. 파리류는 육서 및 수서생활을 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여 인간에게는 경제적 위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II. 황성에서 관찰된 파리

황성에서 촬영된 파리는 등애류 21종, 파리류 19종, 파리매류 5종이었다.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카페나 도감, 백과사전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 가. 색깔이 화려한 등에

파리목 중 색깔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벌과 비슷해서 별로 착각하기도 한다.

#### 1. 가로무늬꽃등애(*Ischyrosyrphus laternarius*) - 꽃등애과

가로무늬꽃등애성충



2007년 7월 12일 황성 읍하리 성강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몸길이 12~13mm이다. 배부분에 있는 굵은 가로띠무늬가 특징적이어서 ‘가로무늬꽃등애’라는 이름이 붙었다. 1년에 3~4회 정도 발생하며, 애벌레는 땅속에서 번데기가 된 후 겨울나기를 한다. 애벌레는 작물에 모이는 해충인 진딧물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익충으로 분류된다. 어른벌레는 낮은 산지나 초지의 주로 흰꽃에 많이 모여 자연계에서 화분매개충의 역할을 한다. 한여름에 관찰되지만 자연계에서 밀도는 높지 않다.

## 2. 꼬마꽃등에(*Sphaerophoria menthastr*) - 꽃등에과

몸길이 8~9mm이다. 몸은 가늘고 흑색이며, 가슴등판은 구릿빛 나는 흑색이다. 날개는 비교적 짧고 끝이 굽어 있다. 다리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이다. 배는 가늘고 길다. 성충은 4~9월에 나타나며 땅벌처럼 생겼는데 꽃가루를 먹어 화분매개충의 역할을 한다. 개체수가 많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꼬마꽃등에성충



2007년 7월 31일 횡성 읍하리 섬강주변

## 3. 꽃등에(*Eristalis tenas*) - 꽃등에과

꿀벌처럼 생겼는데 몸의 길이는 14~16mm이며, 배의 체절에 검은 띠가 있다. 성충은 4~10월에 나타나 꽃의 꿀을 빨아 먹고 살아가지만 알을 낳기 위해 오물에 모임으로 전염병을 매개한다. 유충은 더러운 물에 사는데 ‘꼬리구더기’라고 부른다. 몸길이보다 꼬리가 길며 꼬리 끝의 호흡관으로 호흡한다. 사육조의 먹이나 낚시미끼로 쓰기위해 사육하며 성충으로 월동한다.

꼬마꽃등에성충

애벌레



2007년 7월 12일 횡성 읍하리 섬강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4. 끝노랑꽃등에(*Dideoides coquiletti*) - 꽃등에과

몸의 길이는 16~17mm 정도이며 날개는 약간 흐리고 앞 가장자리는 황갈색이다.

다리는 가늘고 황갈색이다. 꽃에서 꽃으로 날쌔게 떠돌아다니므로 떠돌이파리(hover flies)라고도 한다. 꿀과 꽃가루를 잘 먹는다.

20℃에서 암컷은 진딧물을 먹으면서 약 500개 알을 진딧물 밀도가 높은 곳에 낳는데 2~3일 후 부화한다. 유충은 다리가 없는 구더기모양이며, 성충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린다. 약 300~500마리의 진딧물을 먹고 자란 유충은 번데기가 될 때에는 땅으로 떨어져 고치를 만든다고 한다.

끝노랑꽃등에 성충



2007년 9월 25일 횡성 읍하리 섬강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5. 노랑배수중다리꽃등에(*Mesembrius flavices*) - 꽃등에과

몸길이는 약 10-14mm 이며 어른벌레는 4~8월에 야산 높지의 풀밭과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머리는 가슴보다 폭이 넓고, 짧은 갈색을 띤다. 더듬이는 황색이지만, 가슴등판은 흑색이며 2쌍의 황색 줄을 갖는다. 배는 머리와 가슴을 합친 길이보다 짧다. 다리는 흑색이며, 부분적으로 황색을 띤다.

노랑배수중다리꽃등에 성충



2007년 7월 12일 횡성 읍하리 섬강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6. 덩굴꽃등에(*Eristalis arbustorum*) - 꽃등에과

주변의 꽃들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벌처럼 생겼다. 몸길이는 11mm 정도이며, 어른벌레는 7~10월에 출현한다. 봄에서 가을까지 항상 흔히 발견되지만 특히 가을에 국화과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어른벌레는 꽃가루를 먹는다. 유충은 오염된 물속에서 유기물질을 먹는다.

덩굴꽃등에 성충



2005년 5월 28일 황성 읍하리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7. 배짚은꽃등에(*Eristalis cerealis*) - 꽃등에과

몸길이는 12mm 정도이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나타나며 흑색의 세로줄이 뚜렷하다. 주로 꽃이 핀 들판이나 숲에 산다. 꽃에 앉아있으면 꿀벌로 착각할 정도이다. 끈적거리는 주둥이로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준다.

배짚은꽃등에 성충



2010년 7월 10일 황성 읍하리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8. 수선화꽃등에(*Merodon equestris*) - 꽃등에과

몸길이는 13~14mm이다. 어른벌레는 5~7월에 나타나며 유충은 백합, 수선화 등의 구근해충이다.

### 수선화꽃등에 성충



2010년 7월 10일 횡성 읍하리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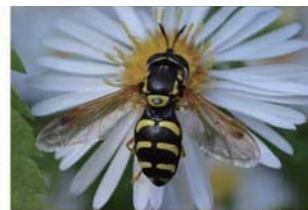
## 9. 수염치레꽃등에(*Chrysotoxum festivum*) - 꽃등에과

몸길이는 12~14mm. 낮은 산자나 초지 애벌레는 농작물의 해충인 진딧물을 잡아 먹는다. 어른벌레는 주로 흰 꽃을 좋아하고 여러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 주는 화분매개충이다.

### 수염치레꽃등에 성충



2010년 7월 10일 횡성 읍하리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0. 수중다리꽃등에(*Helophilus virgatus*) - 꽃등에과

몸길이는 12~14mm이며, 어른벌레는 4~10월 나타나 낮은 산이나 들판에 핀 꽃에서 꿀을 빨며 살아간다. 가슴에 황색 세로줄이 2줄 있으며 가장자리는 황색 털로 둘러싸여 있다. 다리는 검은색이고, 뒷다리 허벅지가 많이 부풀어 있어서 수중다리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성충은 물가에 알을 낳으며, 부화한 애벌레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고인 물에서 생활한다. 애벌레는 배 끝에 숨관이 있어서 숨을 쉴 때 물 밖으로 숨관을 내어서 숨을 쉰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 수중다리꽃등에 성충



2010년 7월 10일 횡성 읍하리 섬강주변



2014년 10월 23일

## 11. 스프스키긴꽃등에(*Spilomyia suzukii*) - 꽃등에과

성충의 몸 길이는 18~25mm 정도이다. 몸은 흑갈색을 띠고 머리는 반구형, 오랜 지색을 띤다.

### 스프스키긴등에 성충



2008년 10월 16일 횡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2. 호리꽃등에(*Allograpia balteatai*) - 꽃등에과

몸길이 10~12mm이며, 낮 은산에서 볼 수 있다. 5~10월에 나타나 꽃에서 꿀을 빨며, 어른벌레로 월동한다. 애벌레는 진딧물을 먹어 농사에 이로운 곤충이다.

### 호리꽃등에 성충



2007년 8월 13일 횡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3. 노랑등애(*Rhagio basalis*) - 노랑등애과

몸의 길이는 15mm 정도이며, 누런 갈색이다. 성충은 물가 부근의 숲에서 발견되며, 작은 벌레 등을 잡아먹는다. 몸은 가늘고 뒤쪽으로 좁아졌으며 머리는 비교적 작다.

노랑등애 성충



2008년 5월 19일 횡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4. 남색멋등애등애(*Sargus nipponensis*) - 동애등애과

몸길이는 11~15mm 이며, 두부는 흑청색으로 앞이마의 밑줄(下緣)양측에 1개의 작은 황백색무늬가 있으며, 가슴과 복부 배면은 광택이 있는 검은 청동색이 특징이다.

남색멋등애 등에 성충



2011년 8월 20일 횡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5. 동애등애(*Ptecticus tenebrifer*) - 동애등애과

몸길이는 13~20mm이며, 몸빛은 흑색이다. 어른벌레는 행동이 둔하고 느려 공중을 나는 도중 다른 개체와 부딪치는 습성이 있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많이 나타나 오물이나 화장실 주위에 많이 모여 산다. 파리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라지만 파리와 달리 스스로 향균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오염의 전파로 부터 안전한 곤충이다. 동애등애의 애벌레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연구에 의하면, '애벌레 1마리가 1일 2.3g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성충 1마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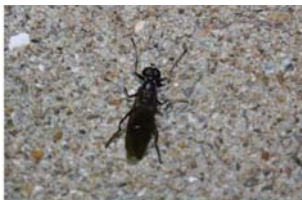
1000개 알을 산란 한다. 또 유충에 의해 처리된 남은 분해산물은 양질의 퇴비, 양계, 양식 등에 이용할 수 있어 자연순환농업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성산읍 신천리는 지난해에 등애등애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분해와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색 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평가에서 2010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등애등애에 애벌레는 필수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포함한 단백질이 풍부해 생물먹이로 활용되고 있다.

등애등애성충

등애등애애벌레



2005년 5월 25일 횡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6. 황등애붙이(*Ochrops bivittatus*) - 등애과

황등애붙이는 생김새가 파리처럼 보이지만 등애과의 곤충이다. 몸길이 12~14mm이며 몸빛깔은 암컷은 황회색, 수컷은 회백색이다. 성충은 8월에 보이는데 흔한 종이다. 암컷은 소, 돼지 등 동물에 피를 빨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염병을 매개하지만 수컷은 식물의 꽃가루나 수액을 빨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식물에 수분을 돕는다. 물가 주변 식물에 알을 낳는다.

황등애붙이 성충



2007년 8월 6일 횡성 섬강 주변

## 17. 왕소등에(*Tabanus chrysurus*) - 등애과

눈이 크고 강해보이는 주둥이에 몸통도 커서 무섭게 느껴지는 왕소등에는 몸길이 16~18mm이다. 성충은 4~9월에 나타나 들관이나 마을에서 소나 말 등 가축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산다. 유충으로 월동한다.

왕소등에 성충



2005년 5월 25일 황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8. 나나니등에(*Cephenius nitobei*) - 재니등애과

몸길이 13~15mm이며, 검은색이다. 배는 누런갈색이고 가슴등판은 세 줄의 황색 인분(鱗粉)이 세로로 있다. 성충은 7~9월 나타나며 산 속의 수목이 우거진 곳에 산다.

나나니등에 성충



2007년 8월 15일 황성 섬강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9. 닳은큰재니등에 (*Ligyra similis*) - 재니등애과

몸길이 12~14mm이다. 어른벌레는 7~9월 나타나는데 몸은 가늘고 길며 다리는 누른빛이고 몸의 등빛깔은 검정색, 배의 빛깔은 황갈색이다.

### 뺨은큰재니등에 성충



2005년 5월 25일 횡성 선감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20. 빌로드재니등에(*Bombylius major*) - 재니등에과

몸길이 7~11mm이며 들판, 숲에서 산다. 연2회, 4~10월에 발생하는데 성충으로 월동한다. 온몸이 벨벳처럼 부드러운 털로 덮였으며, 비행술(정지비행, 급선회)이 뛰어나다.

### 빌로드재니등에 성충



2005년 4월 22일 횡성 선감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21. 탕재니등에(*Anthrax jezoensis*) - 재니등에과

몸길이 9~15mm이다. 성충은 5~7월 나타나는데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다. 성충으로 월동 한 뒤 봄부터 활동을 시작 한다 흰색 꽃에 주로 모이며 긴 주둥이로 꽃 속의 꿀을 빨다. 보통 높이 비행하지 않으며 꽃 주변에서 한동안 정지 비행을 한 후 꽃에 내려앉는다.

### 탕재니등에 성충



2005년 4월 22일 횡성 선감 주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나. 귀찮고 더러운 파리

### 1. 연두금파리(*Lucilia illustris*) 검정파리과

몸길이 5~9mm이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볼 수 있으며 주로 낮에 활동하며 사람,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고기, 썩은 과일 등을 먹는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파리의 소화관으로 들어가거나 몸에 붙어 전파된다. 연두금파리가 속하는 금파리속(*Lucilia*)의 일부 종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상처나 궤양 또는 귀나 코 등에 알을 낳는다. 그곳에서 부화된 애벌레는 조직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갇아 먹는 ‘승저증’이라 불리기도 하는 구더기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두금파리



2005년 9월 8일 황성 선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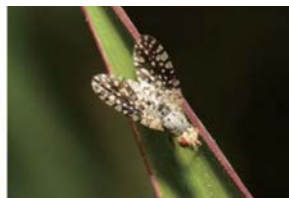
### 2. 국화과실파리(*Campiglossa hirayamae*) 과실파리과

몸길이 3.5~5mm 정도의 매우 작은 파리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다. 애벌레는 먹이식물의 내부에서 잎살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물에 해를 주며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먹이식물로는 동백나무·국화·산국이다.

국화과실파리 성충



2007년 7월 8일 황성 선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3. 벼줄기굴파리(*Chlorops oryzae*) 굴리과

어른벌레는 5월 중·하순, 7월 상·중순, 9월에 연 3회 발생하는데 몸길이는 암컷이 25mm, 수컷이 21mm정도이며, 몸 전체가 황색이다. 옛날에는 벼의 주요 해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

벼줄기굴파리 성충



2007년 7월 12일 황성 선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임용

### 4. 노랑털기생파리(*Servillia luteola*) 기생파리과

몸길이 약 14~16mm로서 누런빛 털이 많고 몸이 뚱뚱한 것이 외형적인 특징이다. 어른벌레는 4~10월 나타나며 산에 피어있는 꽃에 잘 모인다. 주로 산에서 나방류 유충의 등에 알을 낳아 붙여서 유충이 기생하기 때문에 이로움을 주는 파리류로 알려져 있다.

노랑털 기생파리과



2007년 7월 8일 황성 선강변

### 5. 뒤병기생파리(*Tachina jakovlevii*) 기생파리과

몸길이 10~18mm앞가슴등판은 옅은 황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센털이 있다. 배부분은 검은색 바탕에 연한 노란색의 가로줄 무늬가 2줄 있으며 짙은 갈색의 센털이 뽁뽁하게 나 있다. 어른벌레는 4~10월에 볼 수 있고, 애벌레는 나비류의 몸속에서 기생생활을 하면서 자란다. 식성이 좋아 못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아

무거나 잘 먹으며 특히 꽃가루나 꿀을 좋아한다.

뒤병기생파리 성충



2008년 9월 17일 횡성 섬강변

## 6. 꼭지파리(*Sepsis monostigma*) 꼭지파리과

몸길이는 약 7mm이고 성충은 6~10월에 출현한다. 머리가 구형이고 몸전체가 흑색의 흑색의 금속광택을 띠고 있다. 유충은 부식성 곤충이며 성충 또한 썩은 초목이나 부식 물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꼭지파리 성충



2008년 5월 9일 횡성 읍하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2008년 5월 9일 횡성 읍하 섬강변

## 7. 검정수염기생파리(*Hermya beelzebul*) 넓적꽃파리과

몸의 길이는 14~15mm이다. 몸색깔은 검은색이고 날개와 다리는 검은 갈색이다. 가슴의 등 쪽은 잿빛 바탕에 검은색 세로띠가 4줄 있다. 배 등면의 가운데 선과 양쪽은 흰 가루로 덮혀 있고 은백색의 반사 광택이 난다.

검정수염기생파리 성충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2010년 7월 17일 횡성 읍하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8. 빨들파리 들파리과

몸길이 9~11mm 이다. 애벌레는 수서생활을 하며 육식성이다

빨들파리 성충



2007년 7월 22일 횡성 읍하 석강변

## 9. 똥파리(*Scatophaga stercoraria*) 똥파리과

몸길이 약 10mm이며 몸빛깔은 누렇고 머리의 양쪽 겹눈은 갈색이며 이마는 오렌지색을 띤다. 숲이 우거진 산에서 이른 봄과 초가을에 많이 발견되며, 동물과 사람의 분(糞)에 모여든다. 애벌레는 돼지·소 등의 가축 똥이나 퇴비에서 발생하고, 어른벌레도 같은 장소에 모인다. 그러나 어른벌레는 포식성으로, 작은 곤충의 체액(體液)을 빨아먹는다

똥파리 성충



2007년 10월 16일 횡성 읍하 석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10. 검정불기쉬파리 (*Helicophagella melanura*) 쉬파리과

크기 7~13mm 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똥, 죽은 동물과 썩은 물질, 쓰레기등에 잘 모인다.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할 파리다. 야외에 나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른벌레는 4월에서 10월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낮에 활동하고, 집 주위와 산, 들의 쓰레기나 더러운 오물 주위에 다른 파리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른벌레는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과 썩은 동물질에 모이므로 전염성 박테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위생해충이다. 애벌레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에서 자라는데 보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본래 쉬파리과 파리들은 알을 낳지 않고 뱃속에서 알을 품어 구더기를 부화시킨다. 그러다가 적당한 산란터가 보이면 알 대신에 구더기를 낳는데, 좀 더 높은 번식확률을 위한 파리만의 생존방법이다. 이런 구더기를 뱃 파리를 파리체로 잡게 될 경우 살아있는 구더기가 뱃속에서 나와 기어다니게 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큰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검정불기쉬파리 성충



2007년 7월 8일 횡성 읍하 석강변

### 11. 날개알락파리 (*Prosthiochaeta bifasciata*) 알락파리과

몸길이 10mm이며 머리는 짙은 오렌지색이고 날개는 그물망 같은 흑색무늬를 갖는다. 날개에 있는 얼룩무늬와 돼지코처럼 생긴 입이 앞으로 표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주둥이가 특징이다. 짹짹기를 하며 입맛춤을 하는 재미있는 파리다.

날개알락파리 성충



2005년 6월 15일 횡성 읍하 석강변

2005년 6월 8일 횡성 읍하 군청뒤

2008년 6월 22일 횡성 읍하 석강변

## 12. 민무늬콩알락파리(*Rivellia apicalis*) 알락파리과

몸의 크기는 7~10mm 정도이다. 등가슴은 광택이 있는 짙은. 연녹색에 세로로 흰줄무늬가 흐리하게 나있다.

민무늬콩알락파리 성충



2007년 7월 15일 횡성 읍하 섬강변

## 13. 장다리파리(*Dolichopus nitidus*) 장다리파리과

몸길이 5~6mm이다. 몸빛깔은 청색 또는 남청색으로 금속성광택이 난다.

장다리파리 성충



2007년 7월 18 횡성 읍하 섬강변

## 14. 얼룩장다리파리(*Psilopus nebulosus*) 장다리파리과

몸길이 약 6mm이다. 이마는 넓고 광택이 있는 초록색인데 뒷머리와 얼굴은 백색 가루로 덮였다. 더듬이는 흑색이며 주둥이는 황색이고 얼굴 아랫면에 백색 털이 많다. 가슴등판은 금빛 나는 초록색이고 앞 가장자리는 약간의 백색 가루로 덮여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은 연한 갈색인데 바깥가장자리의 앞 절반과 가로맥 주위는 암색이다. 평균곤은 황색이다.

### 얼룩장다리파리 성충



2007년 8월 6일 횡성 읍하 섬강변

## 15. 춤파리(*Empis (Euempis) flavobasalis*) 춤파리과

춤파리들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의 행동으로 먹이를 잡아와 선물을 하는데 수컷의 앞다리에서 뽑은 하얀 실로 포장하는 종과 포장하지 않고 먹이를 가져 오는 종 등 다양하다. 그러나 먹이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녀석은 자신의 분비물을 포장하여 암컷에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 춤파리 성충



2008년 6월 3일 횡성 읍하 섬강변

## 16. 꼬리꼬마큰날개파리(*Homoneura spinicauda*) 큰날개파리과

몸길이 5mm 정도이다.

### 꼬리꼬마큰날개파리 성충



2008년 6월 17일 횡성 읍하 섬강변

2008년 6월 23일 횡성 읍하 섬강변

2007년 7월 30일 횡성 읍하 섬강변

## 17. 검털파리(*Bibio tenebrosus*) 털파리과

몸길이가 대략 11~14mm이며 수컷이 암컷보다 작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지만 머리와 가슴은 광택이 있으며 날개는 어두운 회색이다. 주로 다양한 풀 위에 매달려 있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으며 행동이 매우 느리다. 죽은 개체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바람이나 빗물을 따라 낮은 곳에 모여 있는 경우도 많다. 늦은 봄부터 이른 여름동안 들판이나 숲 가장자리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행동이 느리다보니 교미중인 성충이 많이 발견되며 외국에서는 이런 특성 때문에 'lovebug' 이라고도 한다. 애벌레는 적당하게 썩은 식물질이나 짐승의 배설물, 포아풀과 식물과 야채 등의 뿌리를 먹고산다. 초본들과 잡목들이 썩어 부패한 식물질을 먹는 곤충들에게는 대량발생과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되었다. 애벌레로 월동하며 이듬해 성충으로 우화한다.

검털파리 성충(수컷)



2008년 5월 9일 황성 읍하 섬강변

암컷



애벌레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다. 파리 잡아먹는 파리매 종류

### 1. 검정파리매(*Machimus scutellaris*) 파리매과

몸길이는 22~25mm이며, 몸빛은 검다. 가슴의 등 면에 두 줄의 세로띠가 있다. 사냥솜씨가 대단해서 잠자리, 배추흰나비, 나방, 꽃매미, 파리 따위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산다.



### 검정파리매 성충



2007년 10월 16일 횡성 읍하 섬강변



2008년 8월 21일 횡성 읍하 섬강변

## 2. 광대파리매(*Neoitamus angusticornis*) 파리매과

몸길이 22~25mm 정도이며 산기슭이나 들판에 산다. 황갈색으로 배가 훤히 보이고 길게 생긴 성충은 4~6월에 나타나는데 매미나 팔랑나비의 어른벌레를 잡아 먹는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 광대파리매에 성충



2008년 6월 26일 횡성 읍하 섬강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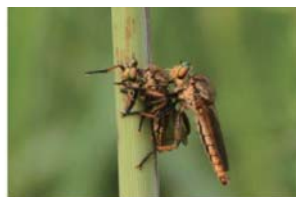
## 3. 왕파리매(*Ommatius chinensis*) 파리매과

몸길이 20~28mm이며 숲, 들판, 개울가에 산다. 7~8월에 성충이 나타나는데 몸에 털이 많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무서운 사냥군답다. 날아다니는 곤충을 새매가 나는 새를 공중에서 낚아채듯 사냥한다. 사냥한 먹이를 먹으며 짹짹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애벌레로 월동한다.

### 왕파리매 성충



2008년 7월 8일 횡성 읍하 섬강변



네이버카페에서 인용

#### 4. 쥐색파리매(*Philonicus albiceps*) 파리매과

몸길이 15~20mm 정도이며, 5~8월에 성충이 출현한다. 몸은 회색, 배는 은빛이다.

쥐색파리매 성충



2005년 9월 7일 황성 읍하 섬강변



2006년 6월 20일 황성 읍하 섬강변

#### 5. 파리매(*Promachus yesonicus*) 파리매과

몸길이 25~28mm 정도이며, 성충은 6~8월에 주로 들판이나 숲에서 파리, 밀들이, 벌, 풍뎅이 등 작은 곤충류를 사냥한다. 수컷은 복부 꼬리 끝에 백색 털다발이 있고 암컷은 꼬리 끝 두 마디가 청람색 광택이 난다.

파리매 성충(수컷)

사냥하는 모습

(암컷)



2007년 6월 22일 황성 읍하 섬강변



2008년 7월 7일 황성 읍하 섬강변



2007년 6월 22일 황성 읍하 섬강변

### Ⅲ. 나가는 말

그동안 촬영한 파리의 이름과 생태를 알아보고 분류하는 동안 파리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편견을 바꾸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파리에 대한 재발견을 한 셈이다. 파리는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우며,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유용하며, 파리는 박멸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잘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파리는 똥과 죽은 동식물로 넘쳐나는 지구를 깨끗이 청소하는 자연의 청소부이고 또 벌이나 나비처럼 꽃과 꽃사이로 날아다니며 꽃가루반이를 해주는 훌륭한 농사꾼이며, 썩은 시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여드는 파리의 종류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파리종의 구더기는 살아있는 조직은 해치지 않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분출하여 괴사조직을 녹임으로써 괴사조직을 제거하며, 괴사조직을 먹이로 취하는 환경 때문에 *Phaeni (Lucilia) Sericata* 의 구더기는 미생물과 독에 대항하는 생존체계로 진화되었다. 따라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파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 기록은 추억이 되어

책읽기 좋은 시절 편지쓰기 좋은 시절이 가을이다

나는 이런 가을에 독서를 많이 하자고 했는데, 뭐가 그리 바쁘지 그러지도 못하고. 편지 한통 우편엽서 10장을 쓰므로 이 가을을 살아가는 기록을 한다



\*김미애

**기록!** 내가 생각하는 기록이란 이런 것들이다 아주 사소하지만 내게 도움이 되고 사방의 유일함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프고 슬픈 일들은 기억하기 싫어서 머리를 흔들며 눈을 꼭 감고 잊어버리자고 한 일이 많았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고 했던가 사람은 누구나 신의 선물을 잘 쓰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 중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더 기록을 하며 살아갈까 나는 관계성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것이라 본다.

나의 기록지는 수첩 달력 가계부 그리고 가끔 몇 자 적는 일기장이다.

그것이 내게는 나의 정신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언제였던가

15년 전에 동네 미용실에서 파머를 하고 있는데 큰애가 나를 찾아 왔다.

큰애도 미용실에 온김에 커트 해 주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랐고 내가 퍼머할 동안 챙겨가서 2만원만 주고 아들 커트 비는 주지 못하고 미장원 원장님은 단골인데 나중에 지나는 길에 달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커트를 잘해 주었다.

나는 퍼머를 이쁘게 하고 아들은 커트를 이쁘게 하고 너무 고맙다고 미용실을

나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주겠노라 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달력에 ‘미용실에 5천원 줄 것’ 이렇게 써놓고 다음 장날에 가는길에 5천원을 주고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둘째가 미용실을 갈일이 생겨서 5천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다녀오라고 했는데, 둘째가 하는말 ‘엄마! 지나번에 엄마가 오빠 머리커트한거 5천원 안주셨다고 아줌마들 많은데 그랬어요.’ 하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 전화를 걸어 지난날 장날에 주지 않았느냐며 했더니 ‘언제요?’ 라고 하는 것이다.

5천원을 줄 때 미용실에 정희엄마가 있었는데 물어보라고 했지만 전화기속에 원장님의 대답은 말이 없었고, 나는 분명히 봤고 내가 그거 5천원 안줄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미용실을 지나면서 ‘생각안나?’ 나한테 받은 거 하고 웃으며 얘기하자 마지못해 ‘알았어요’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기분이 얼마나 찝찝한지 짜증이 나고 속상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달력에 그리고 가계부에 써놓은 것이 생각이 나서 탁상 달력과 지난 가계부를 가지고 가서 여기 미용비 지출한 내용 적은 거라고 11일에 5천원을 적은 달력과 가계부를 보여주니 금방 얼굴 색이 변하더니 ‘어머! 미안해요 언니’ 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다.

내가 꼼꼼한 성격은 아니지만 남에게 줄 물건이나 돈 모든 것은 반드시 적어 놓은 성격이다.

그래서 단돈 천원이라도 남에게 줄 일이 생기면 반드시 적 어두고 꼭 돌려주는데 다행이 몇 일후에 커튼가게하시는 사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동건 엄마는 돈 거래는 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면 서 원장님은 내게 미안한 표정을 하는 것이다.

나는 휴 하고 안심을 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용이고 기본문제이니 오해가 풀렸다니 정말 다행이네’ 라며 말을 했지만 기분이 금방 풀린 것은 아니었다.

다시는 그 미용실에 안 가겠노라 욕을 했지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예 안보고 살수는 없기에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갔다.

원장님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언니 어서와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서운해셨죠’ 하면서 내게 팔장을 끼면서 친절하게 커피한잔 한잔하라고 한다.

‘서운한 거보다는 속상했다, 나는 돈거래는 정확한 사람인데 신용 없는 사람 취급당하니까 너무 속상했고 무엇보다도 크든 작든 어른문제인데 애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는 것이 싫었다’ 라고 말을 했다.

미용사는 연실 미안하다면서 서비스로 머리를 커트를 해준다고 했다 나는 이제 오해 풀렸으니 됐다 하면서 미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오래동안 경험한 건데 크든 작든 거래에 있어서는 기록이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손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하루 수입 지출에 대한 기록하면 또는 갑자기 돈이 준비되지 않을 때 손님에 대한 기록을 해두면 서로 불미스런 감정도 안생기고 인간관계도 좋게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 원장님도 기록을 하는게 어때?’ 라고 하니

‘나는 뭐든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언니 말 들어보니 정말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것이다

나는 근처 문방구에서 노트 한권하고 견출지를 사서 미용실가서 기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지난번 속상한 것은 다 잊을 테니 앞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다

미용실 원장님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누가,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는 거라고 자세히 알려 주니 너무 고마워했다.

그후 나는 미용실을 지날 때마다 ‘기록 잘하고 있는거지?’ 확인 인사를 하니, ‘그럼요 언니가 확인해 주세요’ 하면서 그날 의 발생하는 일들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었다.

“언니, 육하원칙이 뭔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매일 매일 써보니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록이 되니 너무 소중한 자료가 되는거같아 좋아요” 하는 것이다.

그후 2년정도는 지나는 길에 들려서 차도마시고 머리도 다듬고 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냈는데 그 원장님은 남편 직장 따라 경기도로 이사를 가고 미용실자리에는 이런 저런 상점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일이 생각이 나고 지금도 어디선가 기록을 잘 하고 살고 있겠지 라는 믿음이 생겨서 까맣게 잊었던 미용실 원장님이 보고 싶었다.

사소한 기록으로 인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이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이고 또 시간을 거슬러 추억이 되는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소중한 추억, 기억이 기록으로 쓰여지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뭔가 쓴다는 것이, 핸드폰문자, 인터넷이 대신 해주지 못하는 것은 손으로 쓴 기록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언제어디서든 기록은 개인의 역사이고 신용이고 믿음이고 또하나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오늘도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달려과 수첩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대해서 들여다 보며 미용실 원장님을 추억하면서 기록을 해본다

미용실원장님이 보고싶은날 이라고 .....

#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 홍인희  
(작가, 강원대 초빙교수)

## 목민관에 대한 이해

목민관이란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줄인 말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고을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이니 지극히 전제주의적이다. 또한 목민관의 별칭인 목사(牧使)는 ‘인간을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스승’을 일컫는 교회의 목사(牧師)와는 달리 백성을 기르고 부리는 것을 뜻하는 만큼,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질서와 사고방식에서는 가당치도 않을 터다. 그러나 뒤에 밝혀지겠지만 그러한 단순논리와 언어적 해석과는 달리, 목민관의 사명과 역할에 깃들어 있는 기본 철학은 오히려 대단히 민본주의적이다.

목민관의 현실적 형태는 지방관 혹은 외직으로, 크게는 지금의 도지사격인 관찰사와 그 예하의 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및 병사, 절도사 등 여러 벼슬아치의 통칭이다. 여기서 관찰사를 제외한 지방관들을 수령이라 하며 사또, 원님 등으로도 불리우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정원은 부윤 4, 대도호부사 4, 목사 20, 도호부사 44, 군수 85, 현령 및 현감 175명이었다. 한편, 이들을 일컫는 수령이란 중국에서 전해진 바대로 ‘守土養民曰守 奉而行之曰令’(수토양민왈수 봉이행지왈령) 즉 “땅을 지키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수(守)요, 제왕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령(令)”이라는 금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 “백성을 기르고 제왕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규범을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는데,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수령의 역할과 권능이 조선조에 들어 7가지로 범주화된 개념이다. 열거하자면, 수령은 농사와 양잠을 일으켜야 하고, 호구를 늘게 하며,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정을 가지런히 하며, 부역을 공정하게 하고, 소송을 적게 하여야 하며, 아전이 교활하게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왕조시절, 목민관이란 그가 다스리는 고을의 일반적 행정은 물론 교육, 제례, 군정, 사범까지 관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역할과는 그 범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을 백성들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직접 간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런 수순이다. 어찌면 그 시절 민초들에게 있어 나랏님이야 자신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징적 지존이었겠으나 고을의 수령은 자신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 인물이었던 만큼, 그의 행태와 철학이 고을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시절 고을 수령의 자리를 일러 “백성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의미로 근친지직(近民之職) 또는 친민지직(親民之職)이라 하였으며, 〈목민심서〉를 통해 지방관의 자세와 역할을 조목조목 밝힌 다산 정약용도 “다른 벼슬은 구해도 가하나 목민지관은 스스로 구할 바가 못된다.(他官可救 牧民之官 不可救也)”고 설파한 것이다. 무릇 목민관이란 그에 합당한 자질과 소양은 물론 이요, 고을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경건한 자세가 요구되는 만큼 사사로이 자신의 영달이나 호구지책으로 취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적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목민심서>에는 목민관들의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 등 12분야별로 지켜야 할 6개씩의 조항을 밝힘으로써 총 72개의 실천수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민관의 임기는 조선조 초기에 대체로 3년(삼기법)이었으나 세종은 잦은 교체로 인한 폐해를 들어 수령구임제로 불리는 육기법(6년)을 시행하였으며, 성종때 이르러 <경국대전>에 5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는 규정상의 임기일 뿐으로 조선조에 수령 임기가 제대로 채워진 경우는 10여%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는 명목상의 임기조차 유명무실해져 평균 1년 6개월 정도에 그쳤다. 그만큼 고을 수령의 과도한 업무범위, 생활의 불편함, 빈번한 감찰과 평가, 장기 외직근무에 따른 인사상 불리 등으로 외직 기피심리가 심화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목민관들의 빛과 그림자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목민관이란 전제주의 시대의 가부장적 위상을 갖고 있던 외직 벼슬아치들로 관념상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은 틀림없다. 허나 세종이 봉건사회의 군주였음에도 비민주적 인물로 치부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목민관들의 행적을 상고해 보면 당대 백성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따라 명암은 극명하게 나뉘어 진다. 수백년이 흐른 오늘에까지 역사에 기록되고 회자되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탐관오리의 전형이 있는가 하면, 감동적인 선치로 세월이 갈수록 향기를 발하고 있는 인물도 즐비하다. 결국 “선정이나 폭정이나”의 명제가 제도적 차원 이전에 대민 의식과 철학에 달려있다는 선연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제 빛과 그림자로 갈리운 목민관의 대표적인 사연들을 회고해 본다.

## 씻기지 않는 오명의 그림자

다산 정약용이 목민관들의 바이블인 <목민심서>를 저술하게 된 데는 자신이 수차례 지냈던 수령생활의 경험과 천재적 통찰력 등이 밑거름이 되었음은 틀림 없는 일이나, 무엇보다 강진 유배시절 목도한 탐관오리들의 작태와 피폐한 민초들의 생활상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삼정문란이 극에 달하던 19세기초, 관아의 무차별적인 가렴주구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성기까지 잘라야 했다는 ‘애절양’(哀絶陽)에 얽힌 비통한 사연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조선조에 이른바 지방관들의 요직으로 불리운 곳은 평안감사, 의주부윤, 과천현감 등이다. 이중 과천현감의 경우는 “과천부터 긴다”는 말이 시사하듯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입경세(入京稅)를 토색하고 중앙의 고관대작들을 접대하거나 친교를 틀 기회가 많아 일거양득의 자리였던 것이다. 자연스레 그작태를 상징하는 “今日送此盜 明日來他賊 此盜來不盡 舉世皆爲盜”(금일송차도 타일래타적 차도래부진 거세개위도)라는 비아냥이 이를 함축하고 있다.

조선조에는 수령들의 탐학이 극심해도 백성들의 합법적인 탄원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억울한 민초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이란 익명을 이용한 掛書, 擧火, 投書, 訛言, 山呼투쟁이 고작이었다. 이중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강원도 원주 일원에 있는 ‘옥바위’로 산호투쟁의 한 방법이었다. 악정을 편 수령이 체임되어 고을을 떠나는 날을 기해 길목의 높은 언덕에 올라 온갖 욕설을 퍼부음으로써 자신들의 한을 달래고 수령도 이를 묵묵히 감내하며 재임중의 여론을 스스로 돌아보는 척도로 삼았던 전통이었던 것이다.

조선사에 대표적인 탐관오리로 낙인찍힌 19세기말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경우는 수탈이 극에 달한 경우였다. 무고한 고을 백성을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하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 필요도 없는 보(洑)를 쌓아 물세를 징수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아버지가 현감을 지냈던 인근 고을 태인에 까지 공덕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천냥을 수탈하자 분노한 민초들에 의해 동학 농민혁명이 촉발, 역사의 물꼬를 뒤바꿔 놓았다. 그의 악행의 유산은 130여년이 지나도록 김해, 정읍, 천안, 함양 등지에서의 공덕비 철거, 후손의 정부 고위직 진출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세월이 갈수록 발하는 빛

고려 충렬왕때 승평태수였던 최석은 임기를 마치고 도성에 오르게 되었다. 고을을 떠나던 날 자신을 보좌하던 향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추렴하여 전별금조로 말 7마리를 바치려 하였다. 이에 최석은 “모두 돌려주라”고 역정을 내었으나, 향리들은 관행이라며 막무가내였다. 부득이 이를 가지고 도성에 당도한 후 중도에 낳은 새끼를 포함하여 8마리의 말을 고을로 돌려보냈고 이후로는 수령이 이임할 때 말을 마련해주는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백성들은 그의 오만한 청렴정신을 기려 사은의 표석을 세우니 이것이 현재 전남 순천에 자리한 ‘八馬碑’로서 우리나라 선정비의 효시를 이루고 있다.

전남 여수에는 채 1m도 안되는 ‘墮淚碑’가 있다. 전국 각지에 선정, 공덕, 영세불망, 청덕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고 크기도 거창한 수많은 수령 칭송비들에 비하면 왜소하고 볼품없는 듯 보이나 거기에 깃든 사연은 숭고하기까지 하다. 주인공은 충무공 이순신이다. 임란당시 국가 안위를 위해 분투하면서도 수하 장졸의 부상 치료까지 일일이 챙기고 모여드는 피난민들까지 보듬던 진정한 성웅이었다. 그의 인간적 면모에 감동한 군졸과 백성들이 충무공 서거 6년이 지난 후 십시일반으로 각축하여 비를 세우고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뜻을 담아 기린데서 유래한다.

세종재위 5년차이던 1423년, 전국이 대가뭍에 시달리고 있었고 강원도는 더욱 심해 굶어죽는 자가 속출했다. 이에 임금은 예조판서로 있던 황희를 관찰사로 내려 보낸다. 황희는 임지에 당도하자마자 특히 피해가 심한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관곡을 풀고 죽실밥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급기야는 사재까지 털어가며 구호에 진력한 결과 아사자는 더 이상 발생치 않게 되었다. 1년 남짓만에 황희가 중앙으로 떠난 후 삼척 백성들은 “황감사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며 그가 넘나들던 정승고개 위에 조약돌을 주워다 쌓아 올린다. 돌로 쌓은 유일한 선정비였고, 세월이 흘러 이를 기리는 ‘召公臺碑’가 세워진다.

태산가로 유명한 양사언은 함흥, 평창, 강릉, 철원 등 8개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평창 군수시절에는 삶이 피폐해진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고 유리결식함에 인구가 500여호 1000여명 남짓이었다. 그나마도 토굴같은 곳을 의지삼아 짐승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목도하고는 그 실상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당기간 부역, 공물, 세금 등을 면제해줄 것을 진언한다. 상소 내용에 감동한 명종은 진정한 애민의식의 발로라며 강원 감사에게 선처를 명한다. 백성들간에는 평창을 거쳐간 역대 수령중 최고의 선정을 펼친 인물로 기억되고 급기야 그의 호 봉래를 딴 지명 ‘蓬峯’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관직에 나가는 자들이 지켜야 할 자세와 실천적 과제 72개항을 망라하였다. 그 시절이 봉건체제하였던 만큼 상당수가 고도로 민주화된 오늘과 어울리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공간을 넘어 관통하는 기본철학이 있다. 다산은 이를 이도(吏道)이라 했는데, 핵심은 ‘척제현람’(滌除玄覽)과 ‘염결’(廉決)의 정신이다. 척제현람은 백성의 고통을 몸소 보듬는 것이요, 염결이란 공무에 임하는 자기 자신의 엄중한 잣대이다. <목민심서>(율기6조 청심)는 이에 대해 ‘廉者天下

之大賈也 故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라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목도하는 청문회 광경이나 공직사회의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접할라 치면 현실감있게 다가오는 금언이다. 어찌겠는가? 일각의 유혹과 탐욕을 넘어 서지 못해 결국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지혜의 부족이 낳은 자업자득의 결과인 것을.....

o 글쓴 이: 홍인희 (강원대 문화예술대 초빙교수)

o 저서: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교보문고, 2011.5)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두 번째」(교보문고, 2013.2)

「배움도 깨달음도 길위에 있다」(교보문고, 2013.9, 공저)



#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 풍수원성당

☞ 안녕하세요.

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윤병철입니다.



\*윤병철

☞ 먼저, 우리고장 횡성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내에 앞서 횡성군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 우리 횡성군은 명품 횡성한우와 횡성더덕 그리고 안흥전빵으로 유명한 고장이면서, 예로부터 애국의 고장으로 충신과 의병,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특히 강원도내 최초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유서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였던 풍수원성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풍수원성당」의 역사입니다.

「풍수원성당」은 초기 천주교 박해의 산역사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이후 1802~1803년 경기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 등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해마다가 정착한 곳으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입니다.

1866년 병인박해와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치며 관헌들의 눈을 피해 많은 신자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었고, 화전과 토기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1888년 강원도 첫 본당이 돼 프랑스 성직자 르메르 신부를 초대 주임신부로 맞았습니다.

당시 원주, 춘천, 홍천, 양평 등 인근 12개 시군을 관할하는 본당이었고, 신도수는 약 2,000명에 달했으며, 초가집 20여간을 성당으





로 사용하였습니다.

1896년 풍수원 본당에서 원주 본당이 독립하고, 르메르 신부가 원주 본당으로 부임하자 풍수원 본당 보좌로 부임했던 정규하 신부가 2대 주임신부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풍수원성당 건물은 정규하 신부(아우구스티노) 재임시 중국인 기술자 진 베드로의 설계와 신도들이 자력으로 벽돌을 굽고 주변에서 나무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벽돌 연와조 120평의 건물을 1905년에 착공해서 1907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자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고, 국내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고딕양식의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강원도 지방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횡성군의 자랑입니다.

##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풍수원성당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관광기능의 접목을 통해 국민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명상, 휴양의 문화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중에 있으며 유물전시관, 강론광장, 진입로 및 기반시설 중심의 1단계사업이 지난해 완료되었고, 가마터, 원터 복원을 비롯해 봉헌의 벽, 순례자의 길, 성당마을 조성 등의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헌문화관광지」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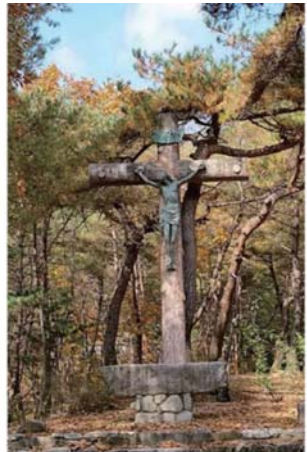
- ▶ 성당 앞의 느티나무는 107년전 건물 완공시 정규하 신부가 기념식수로 심은 것으로 당시 심은 22그루의 나무중 일부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 ▶ 먼저 “사제관”입니다. 사제관에는 성경 필사본과 풍수원성당을 거쳐가신 신부님들의 유품과 성당에서 쓰이던 각종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 다음은 “풍수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죽임을 당했던 과정을 재현해 놓은 고난과 슬픔의 길입니다.





➡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 정규하 신부의 묘소가 있어 이곳을 찾는 천주교 신도들이 참배하고 있으며, 정상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의 형상과 묵주 동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십자가의 길 반대편 산자락을 돌아 내려오면 “강론광장”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풍수원 성체현양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을 맞아 매년 6월에 이곳 풍수원성당에서 개최되며, 1920년부터 시작되어 6.25동란 중 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고, 금년에 9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1만명의 신도가 참석하며, 천주교 최대행사중 하나라고 합니다.



➡ 강론광장을 지나면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풍수원성당 신도인 최수범씨가 30여년동안 전국에서 모아온 귀중한 민속문화자료들을 기증하

여 이를 전시하기 위해 지어져 지난 2013. 4. 30일 개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옛 선조들의 생활용품 등 수천점의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 ▶ 유물전시관을 지나면 “가마터”와 “원터”가 나옵니다. “가마터”는 과거 천주교 박해를 피해 풍수원으로 은둔한 신자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숯을 구워 팔고, 성당 신축시 벽돌을 구웠던 것을 복원해 놓았고, “원터”는 옛날 여행자들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있었던 원(院)을 복원해 놓은 곳으로 말을 매어놓는 장소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 ▶ 풍수원성당 앞쪽에 자리한 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산타의 1년과 예수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을 통해 예술공간으로 바뀐 마을로 풍수원성당을 찾는 신도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당 주변마을에서는 지금까지 30명의 천주교 신부님을 배출하였고, 지금도 주민 모두가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천주교의 진정한 신앙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주차장 주변에는 “농산물판매장”이 자리하고 있어 이곳 농민들이 재배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내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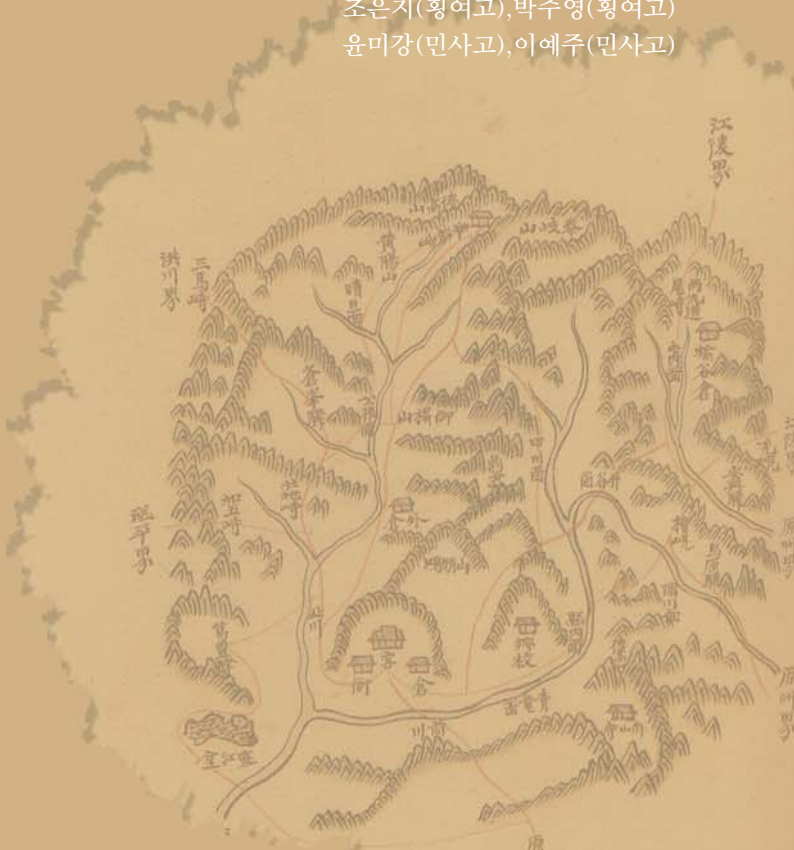
☞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 최초의 신앙공동체인 풍수원성당과 이를 모토로 국민문화관광 일번지로 발전하고 있는 유현문화관광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곳에서 명상과 휴양을 통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V. 문화탐방기행

- \* 호남 문화권 전주와 익산을 답사하다 | 조기동
- \* 2014년 관외 전통문화 학습현장을 다녀와서 | 이송운
- \* 2014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조은지(횡여고), 박주영(횡여고)  
윤미강(민사고), 이예주(민사고)



횡성 문화원에서 횡성군 후원을 받아 호남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의 한옥마을과 익산의 문화를 탐방하러 떠나는 날이다. 문화원의 전 현직 임원 28명이 함께 하는 탐방길, 설레는 마음으로 횡성 문화원 앞으로 나갔다.



\* 조기동

전날 연 이틀이나 장대같이 퍼붓는 가을비로 오늘 남부지방에 비 온다는 예보를 걱정하며 떠나는 답사 길이라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화원에 도착하여 버스에 오르니 한결 마음이 들뜬다. 전주로 향하는 버스 차창에 비친 하늘을 보니 비 온 뒤의 맑게 갠 하늘이 정말 명경지수 같다는 생각 속에 무거운 내 마음이 기우라는 생각으로 맑게 피어오른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임원 몇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 23명이 떠나는 호남의 문화 답사가 기다려진다.

달리는 버스가 대전을 지날 즈음 흐려지는 하늘에 다시 우울한 마음이 호남 제일의 도시 전주의 톨게이트를 지날 때 맑아지는 하늘 따라 내 마음도 맑음이다. 더욱이 전주의 깨끗이 단장 된 시가지와 길가에 늘어선 고운 단풍이 반갑게 맞이하는 전주에 도착이다.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전주의 대표적 음식 문화인 전주비빔밥이 우리를 맞는다.

한국의 대표 음식, 그것도 전주 본점인 한국관의 전주비빔밥이라 그런지 입안에 번지는 밥맛이 새롭다. 음식도 문화유산이라 다른 곳에서 먹는 맛과 차별성을 느낌이 확실하다.

언젠가 통일 되면 평양이나 함흥에 가서 냉면을 맛볼 날을 그려 보며 횡성의 대표음식을 생각한다. 전주 사람들에게 횡성을 아느냐며 물어 보니 횡성 한우와 함께 횡성의 민사고를 많이들 이야기 한다.



고등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증거요, 미래 평생 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 기쁨과 흐뭇함에 감개가 무량하다. 한편으로는 횡성 한우의 음식을 더 발전시킴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값싸고 맛있는 전통음식이 그려진다. 횡성의 메밀 촌떡과 그 옛날 어머니가 맛나게 만드셨던 올챙이국수가 내 머리에서 감돈다.

### 점심을 마치고 곧 이어진 전주 한옥마을 탐방이다.

해설사의 안내로 전주 한옥 마을을 둘러보았다. 팔각지붕에 휘영청 늘어진 곡선의 용마루가 펼쳐진 한옥 마을은 약 700여 채로,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서울의 한옥과 달리 새롭게 조성된 전주 한옥마을은 모든 집들이 상업성을 갖고 살아 숨 쉬는 마을이다. 소리문화관, 한옥마을 체험관, 공예 공방촌 지담, 전통 술 박물관, 전통 한지원, 공예품 전시관, 최명희 문학관, 600년을 살아 이어온 은행로길의 은행나무 모자 등을 탐방하며 걷는 골목길들은 현대화된 한옥 마을이다.

특히 인상적인 명품관에 둘러보니 입이 크게 벌어진다. 전라도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작품들인 소목, 나전칠기, 한지 공예전통자수, 목기, 도자분야와 장구,



전주의 한옥마을

징, 꿩과리, 거문고등의 국악기들, 두드려 소리 내는 좌종 등 볼거리도 좋지만 그 가격이 놀랍다. 명인들의 작품인 부채 한 개가 무려 150-300만원이라니..... 5,6백만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명인들의 작품을 보니 입이 딱하고 그냥 벌어진다. 그런 작품들이 팔리고 있다는 해설가의 말을 들으니 누가 그런 명품을 살까 궁금해진다.

큰 거리에 흐르는 물길도 인상적이지만 좁은 골목길과 담 너머 탐스런 감나무는 절로 전통문화 마을이다.

원래 한옥 마을은 1905년 을사늑약이후 물밀듯 잠식해 오는 일본인들과 그들에 의해 전주와 군산을 잇는 전군가도를 만들며 전주성곽을 헐면서 일본인들이 전주 시내로 진출해 와 집을 짓게 되고, 1930년대 이에 반발한 한국인들이 교통과 풍남동에 한옥 촌을 형성했으며 일본인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의 발로로 지어졌다니 전주인들에게 고개가 숙여진다.

또한 천 삼백년 전 견훤이 세운 후백제 건국의 완산주가 바로 이곳 전주가 아닌가? 멀지 않은 곳에 견훤성이 있고 한 나라의 왕업이 발전한 고도로 오랜 전통 문물이 매우 발달해 왔단다. 한지와 관련된 전통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전주의 한지로 만든 부채는 물론 인쇄술의 발달, 조선 왕조 실록의 사고지가 된 이곳 전주이며, 오늘날에는 한지로 만든 옷감은 물론 수의까지 발달한 곳이란다.

600년을 지켜온 은행나무를 마지막으로 동학 혁명 기념관을 둘러보지 못하고 한옥 마을을 지나 옆 경기전 답사로 향하는 촉박한 일정이 무한 아쉽다

전주는 조선을 일으킨 태조 이성계의 조상들이 살던 뿌리가 있는 곳이다. 바로 전주 이씨의 본향으로 조선의 왕조가 태동되던 경사스러움의 터라는 경기전이다.

경기전에서 새로이 만난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경기전 앞의 하마비의 가치, 경기전의 내력, 경기전 내부에 있는 예종대왕의 태실, 전주 사고의 역사등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를 이어 나갔다.

경기전은 1410년 봉안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기 위하여 지어진 건

물이다. 또한 전주 이씨의 시조이신 이한(李翰) 과 시조비(始祖妣)경주김씨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영조47년(1771년)에 세운 조정묘가 있다.

또한 주변 경관이 수려해 보는 이의 감흥을 일으키기에 뛰어나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역사 드라마 촬영장으로도 많이 쓰인다 한다.



경기전 앞의 단체사진

경기전 앞의 하마비의 받침돌과 비 갓머리의 문양 또한 특이하며 귀한 석재로 제작됨이 신비롭기까지 하다.

해설사의 설명중 하마평의 어원이 옛날 하마비 아래 모인 하인들끼리의 대화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그럴 듯하다. 또한 이곳 경기전 정전도 선조 31년 정유재란(1598년)때 소실 된 것을 광해군6년(1614년)에 중건하였다 한다. 경기전 주변도 일제 때 일본인에 의해 소실과 폐허가 된 뒤 그들에 의해 소학교를 건립하였다가 해방 후 다시 복원하였다는 해설이다.

예종대왕의 태실비 또한 원래 완주의 태봉산에 있었으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한다. 해설사는 태의 소중함과 한국적 나이를 설명한다. 한국인의 나이는 태의 나이를 계산하는 관계로 태어나며 한 살이 된다는 이야기다. 왕릉은 궁궐과의 거리가 있어 위치가 제한적이지만 왕실의 태실묘는 전국의 명산에 모셔졌다는 설명이다.

전주의 예종대왕의 태실묘비는 정말 멋진 거북이의 살인적인 미소라는 극찬을 듣고 바라보니 그 미소가 멋스럽다. 태실 또한 사각의 하대석 위에 놓인 작고 아담한 석종형의 몸돌을 놓고 그 위에 팔각 지붕돌을 놓았는데 주위의 난간석으로 보아 수도의 석공의 솜씨로 짐작한다고 한다.

이어서 나타나는 전주 사고를 둘러보았다. 기록에 의하면 1439년(세종 21) 사헌부의 건의로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던 경기전(慶基殿) 안에 설치되었

다. 처음에 실록들을 여러 차례 옮겨 보관하다가 1445년 12월 서울 춘추관, 충주·전주·성주(星州) 사고에 각 1부씩 봉안하게 했다. 따라서 세종실록부터 편찬할 때마다 주자(鑄字)로 인쇄하여 각 사고에 1부씩 보관하도록 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두 병화(兵火)로 불타고 4대 사고 가운데 전주사고의 실록만 남았는데, 이는 안의(安義)·손홍록(孫弘祿)의 공이 컸다. 이들은 태인(泰仁)의 선비로 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금산(錦山)에 침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곧 전주로 달려와 실록과 태조영정을 수호하던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 등과 상의해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대에 걸친 실록 804권과 태조영정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겼다. 다음해 7월 조정에 인계할 때까지 14개월 동안 무사(武士)들이 번갈아가며 지켰다. 조정에서 사관을 내장산에 파견해 실록과 영정을 해주·강화도·묘향산으로 옮겼다가, 1603년 7월부터 다시 출판하여 전주사고의 실록원본과 교정보본 및 새로 출판한 3부를 합해 5부를 서울 춘추관과 마니산·태백산·묘향산·오대산에 사고를 지어 봉안했다고 한다. 전주사고의 실록원본과 마니산에 보관된 내용이 멋진 모형과 실물 그리고 영상으로 놀랍게 전시되니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기행으로 전주 사고의 가치가 조선 왕조 실록을 있게 한 아주 귀한 가치임을 절실히 느끼며 역사의 존귀함에 내 마음은 절로 숙연해진다.

이어서 태조 어진 박물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속에 둘러보는 답사 여행이라 시간이 부족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당시 어진 행열도의 장엄한 모습과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세종대왕 영조 철종 고종, 순종등 조선 시대 어진들을 살펴보며 다시 전주를 찾아 역사 기행을 하리라 마음에 다짐을 한다.

정해진 시간으로 경기전 앞에 급히 나오는 중에도 나를 찾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기어 기념촬영에 간신히 참가 했다.

잠시후 한옥 마을의 김명옥 숙박문화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점심 식사 후 잠시 둘러 방 배정 후 짐을 던져 놓고 나온 숙박 장소지만 자세히 둘러 볼 여유는

없었다.

전통 문화의 도시답게 방 이름도 특이하게 세종대왕, 이성계, 교태전, 율곡방, 이황방, 신사임당 방이란 방호가 이채롭다. 방 이름처럼 화려하진 않고 이층 다락방으로 비좁고 불편했지만 한옥의 멋스러움에 좀 불편함을 견뎌 보기로 했다.

저녁식사는 전주의 막걸리 하우스 달빛 소리라는 곳으로 이동해 갔다.

판소리의 본고장과 어울리는 전주의 국악 공연을 즐기며 막걸리와 함께하는 달빛소리에서의 저녁은 저절로 흥이 나는 만찬이다. 멋진 남도창과 함께 장구의 장단에 흥겨움이 섹스폰과 하모니카의 음률로 이어지니 고전과 현대가 함께하는 문화 기행 식사답다. 진도 아리랑의 흥얼거림으로 전주의 하룻밤이 깊은 꿈나라 속으로 젖어 들었다.

다음날 새벽 6시. 식사는 8시라고 한다. 새벽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니 어제 미처 둘러보지 못한 이목대와 오목대를 둘러보기로 마음먹고 아침 산책 겸 탐방 길에 나섰다.

상큼한 공기가 내 머리를 상쾌하게 한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다리를 건너 20분 정도 걸으니 나타나는 조그만 정자하나와 비석, 이목대다. 안내판을 살피니 이목대는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이안사의 출생지라고 전해지는 곳이라 한다. 줄곧 이곳에 살다가 함경도로 이사했다고 적혀 있다. 고종 황제의 친필로 (목조 대왕 구거유지)라는 비석이 있고 원래는 오목대 동쪽 옆에 비각이 있었는데 도로 확장으로 이곳으로 옮겼다고 적혀 있다.

이 안내문을 보니 뭔가 틀린 듯하다. 이 안사는 전주에서 주지사와 기생 때문에 투옥될 위기에 그를 따르는 170여 가구의 집안과 노복을 이끌고 강원도 삼척 땅 활기리로 갔고 그곳에 그의 부친 이양무께서 돌아가시어 지금의 준경묘가 있고 모친의 영경묘가 있다.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 후 옛날 전주의 지주사가 관동 안렴사로 부임하여 온다는 소문으로 이안사는 다시 함경도로 이주했다. 강원도 삼척에 살다가 함경도로 갔다는 안내문이 바르지 않는가? 또한 고조부를

4대조로 기록한 곳과 5대조로 기록한 곳이 있으니 자주 혼동이 된다. 작은 문구지만 고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만동의 골목길을 걸으니 이곳 또한 벽화마을로 색다른 볼거리였다. 오늘따라 생각지도 못한 벽화 그림을 감상하며 흥취에 빠져보니 전주의 새벽길이 즐겁기만 하다. 다시 뒤돌아 오목대로 발길을 옮겼다.

오목대의 새벽 청소를 하시는 청소원들의 수고로움에 반갑게 인사하며 오목대



에 올랐다.

이곳 오목대는 전주의 한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기가 막힌다. 오목대 누각에 올라 황산 전투의 승전 축하연과 그분의 4대조 이 안사님의 호랑이 잡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누각에서

전주의 오목대 내려섰다. 안내판을 살피니 오

목대는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이성계가 운봉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르고 돌아가던 중 자신의 고조부인 목조가 살았던 이곳에 들러 승전을 자축한 곳으로써,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목대 주위를 천천히 돌아 내려오며 전주에 문화 체험이 무척 멋진 답사이며 소중한 남도민요가 이곳이 중심 지임이 실감난다.

숙소에 들려 함께한 일행과 전주의 별미인 콩나물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 후 익산으로 출발이다.

한 시간 남짓 달려 간 곳에서 버스는 멈추고 버스에서 내린 곳엔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었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 있는 왕궁리 석탑이다.

아니, 이곳 익산에 무슨 왕궁이 있던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기억엔 없

다. 그런데 이곳이 왕궁의 터란다. 백제의 수도는 위례성, 그리고 공주의 웅진성, 마지막으로 사비성이 아닌가? 안내자를 따라 유적 전시관으로 들어섰다.



왕궁리 석탑

아! 이곳이 백제 무왕이 새로운 위용과 대국의 용지를 펼치려고 조성된 백제의 왕궁이다.

왕궁리 유적 전시관에 들어서며 무왕에 꿈의 궁전인 왕궁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가로 250미터에 세로가 약 500미터나 된다. 중국의 북경에 있는 자금성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규모면에서는 어느 왕궁보다 대단하고 짜임 또한 왕궁으로서는 으뜸이라 생각이 든다.

전설 속에 싸여 있는 마 캐는 소년과 선화 공주의 주인공이요, 의자왕의 부모가 이곳에서 백제 재건의 큰 꿈을 꾸던 곳이 바로 이곳 왕궁일 줄이야.

드넓은 구릉지대에 조성된 백제왕궁의 흔적을 찾아보니 경이감마저 느껴 신비롭다. 더욱 특이한 것은 백제의 대형 화장실이 남아 있고 당시의 화장실임을 증명하듯 기생층 알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의 기와 막새와 치미를 볼 때는 대단한 건물의 위용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왕궁리의 거대한 왕궁이 별로 사용한 역사적 기록은 없고 부여성을 재 보수하여 마지막을 부여성으로 마감한 백제의 역사 속에 왕궁리의 궁궐은 주춧돌만 남고 흔적없이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한 모양이다.

승리자인 소정방은 의자왕을 비롯한 백제의 유민 5만명을 당나라로 끌고 갔으며 백제의 혼을 없애려고 모든 것을 불사르거나 와해시켰음을 미루어 짐작이 간다. 왕궁리의 궁궐이 백제인의 혼이 담긴 5층 석탑과 절로 뒤바뀐 것을



미륵사지

엿볼 수 있다. 왕궁리의 석탑속에서도 많은 유물이 나왔지만 오층 석탑의 모양은 날아갈듯 날렵한 백제탑의 양식인데 제작 시기는 아직도 미궁속에 있어 하루 속히 미지의 베일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랄 뿐이다.

애잔한 마음으로 왕궁리를 둘러보는데 함께한 이사 한분이 지세를 살피며 한 말씀 하신다. 궁궐터는 큰데 배산 임수를 이루지 못해 거대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명당의 조건에서 산과 강의 중요성이 느껴진다.

우리 일행은 다시 버스에 올라 그리 멀지 않은 미륵사지로 이동을 했다. 이곳 미륵사지는 왕궁리와는 다르게 미륵산을 뒤로하고 넓게 자리한 곳이다. 어찌보면 명당 같기도 하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이 100여년 만에 새롭게 복원작업 중이었다. 몇 년 전에 이곳을 지날 때 한번 들러 보려고 하다가 보수가 끝난 후 보려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아직도 해체된 채로 우리를 맞는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무왕과 선화 공주와의 창건 설화가 남아 있는 곳 미륵사지는 대표적인 백제시대의 석탑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석탑이다. 원래



는 9층 석탑이었으나 오랜 세월 훼손과 방치로 파괴되어 일제 강점기시대에 한 쪽 탑면을 시멘트로 보수해 흉물스런 불구의 탑이 되었다.

1980년부터 16년 동안 발굴 조사가 이루어 졌고 1997년 석탑을 보수가 시작 되었으며 2009년엔 내부의 중심기둥에서 백제 사리장엄이 발견되어 그 속에 있던 금동제사리호와 금동사리 봉안기를 해독해 보니 미륵사가 무왕 때인 서기 639년에 창건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금동제 사리호에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12점이 출토되었고 한다. 또한 사리장엄 안에서 당시의 귀족들과 신하들이 헌납한 여러 가지 장신구가 함께 나와 백제인 들의 염원을 알게 되고 사리봉안기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위대한 타임캡슐임이 증명되었다.

천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탑 속에 숨어 있던 백제인의 타임캡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둘러 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으리라.

유물 전시관을 나와 미륵사지 석탑 보수 장소로 이동해 거대한 보수건물 속에 들어가 보니 탑이 있던 바닥의 흙을 옛날 방식으로 다지기를 하는 인부들과 계획된 기초 돌들이 보였다. 웅한 건물을 나와 넓디넓은 절터 공간이 과거 미륵사의 위용을 느끼게 해 준다. 국보제11호인 미륵사지 석탑이 하루빨리 복원 되어 웅장한 자태를 자랑할 날을 기대하며 넓은 공간에 누워있는 탑신의 석재에게 하루 빨리 미륵사지의 석탑이 되어 달라고 기원해 본다. 더 나아가 천 오백 년 전 백제인 들의 기원으로 만들었던 미륵사의 옛 모습이 완전히 복원될 날을 우리 모두 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안고 미륵사를 나와 익산의 문화원으로 이동을 했다.

친절히 맞는 익산 문화원 사무국장의 안내로 문화원을 둘러보았다. 익산의 문화원 또한 시설 면이나 활용 면에 잘 꾸며진 문화원으로 여러 임원들 모두 흥성군 문화원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말들을 나누었다.

연건평460평의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전시 면적은 216평의 3개실로 운영된다.

전시실은 유물자료와 전통생활상, 유적의 소개와 생활 자료 전시된 생활 자료 실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통과 의례 과정을 모형으로 제작전시로 전통 의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획 전시실엔 익산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한 눈에 보아도 앞서가는 문화원으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면이 돋보인다.

익산 문화원의 안내로 익산의 전통음식을 찾아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의 메뉴는 서동요의 혼이 숨쉬는 서동마 한정식이다. 마로 이루어진 전라도 음식이라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니 익산의 고장에 흠뻑 친근감을 느낀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익산의 보석 박물관으로 이동을 했다. 보석 박물관엔 진귀한 보석이 즐비했으며 보석 채광의 과정과 활용 모습 등 여러 볼거리가 많았지만 나는 보석엔 문외한이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고 밖에 나와 주위 경관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멋지게 갖추어진 정원이 나에게 보석보다 더 관심이 가니 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촌부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싣고 호남의 문화권을 밟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문화원장님의 수고로움과 유관기관에 고마움을 느끼며 문화 탐방의 의미를 되 새겨 본다.

한나라의 문화를 잇는 길은 매우 중요하다. 저 중국 대륙을 보면 자명한 일이다. 몽고인들이 세운 대 제국 원나라도 중국을 비롯한 거대한 땅덩이를 장악하고도 자기 조국인 몽고의 문화를 던져 버리고 한족의 문화에 빠져들어 결국은 지금 이 땅에 미미한 존재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가? 몽고뿐이 아니라 여진족이나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는 멸망과 함께 민족의 뿌리까지 없어져 가는 것도 자신의 문화를 천히 알고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중국 한족 문화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지 않는가?

지금 중국인들은 자기의 문화는 소중히 하며 다른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는가? 우리민족의 고인돌 문화속에서 나온 명도전의 출



토로 명백한 고조선의 문화를 그들은 무시하고 덮으려 하지 않는가?

그보다 찬란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도 자기 것 인양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광개토대왕의 유적지. 우리 것을 말살하려 단동 요녕에 있는 고구려의 박작성은 형태로 보나 지리적 역사로 보나 고구려 성인에도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이 시작 되는 자기들 성이라고 문화 찬탈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동북 공정은 우리나라의 문화 말살 정책임이 자명하다. 우리 조선 건국의 태조 이성계마저 중국인으로 문화를 날조하니 중국인들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민족 모두가 아주 작은 조그만 문화라도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들을 우리 황성 문화원 회원들이 앞장서 해 나가야 함을 마음에 담은 때 버스는 벌써 강원도 땅을 달린다. 호남 문화 답사와 황성 문화원의 새로운 변화에 큰 힘을 주시는 황성군수님과 의회에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 본다는 문화원장님의 마지막 인사의 말씀이 함께한 우리 문화원 임원들의 머릿속에 아로 새겨진다. 뭇지 모를 뿌듯함과 사명감을 가슴에 담고 호남 문화의 깊은 의미를 아로새기며 답사를 마감한다.

## 2014년 관외 전통문화 학습현장을 다녀와서

**지난** 10월 7일 화요일 황성문화원 문화 학교 수강생 135명이 버스4대로 2014년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장에 다녀왔다.

아침일찍 일어나 정암리 농장에 가서 닭20여 마리 사료를 주고 읍상리 집에 도착하여 간편한 복장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7시 40분경 문화원광장에 도착하니 벌써 문화원회원님, 문화학교 수강생 분들이 나오셔서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문화원에서 성의껏 준비한 음료수 간식을 직원들과 같이 차에 운반하고 1호차에 배정 받았다. 오늘 날씨는 일교차가 심한 가을계절이라 좀 추운 날씨지만 학습탐방 하기에는 좋은 날씨다.

내가 승차한차에는 45인 좌석에 원장님을 비롯 34명뿐 나는 혼자 앉게 되었다.

8시 10분 문화원을 출발하여 향교근교 어사매로 회전교차로를 지나 새말IC로 가는데 문화원장님 인사말씀과 사무국장님의 학습탐방에 대한 설명과 회원증을 받아 목에 걸고 절편떡과 과자, 음료수를 받아들고 맛있게 먹으면서 차장 밖을보니 논마다 벼이삭이 황

금물결을 이루고 있다. 금년 가을에는 태풍이 없고 좋은날씨 덕분에 농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볍다.



\* 이 승 운

평창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강릉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는 터널이 많고 도로가 꼬불꼬불 하지만 도로 주변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가을 안개가 조금 끼었지만 잘 지어진 농촌주택 전지(剪枝)하여 잘 가꾸워 놓은 소나무숲 물들어가는 단풍잎, 들국화, 구절초 꽃들이 조화를 이룬 대자연을 감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冥想)에 잠겼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버스는 강릉단오문화관 정문을 10시에 도착하였다.

단오문화관은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전승활동과 일반인들에게 단오관람관 전통문화체험 교실운영 시민공간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건립되었다.

전시관에는 신과 인간의 만남, 대관령 산신 김유신설화, 대관령국사성황, 범 일국사설화 단오굿 단오놀이와 난장 관노가면극 난장사진과 모형으로 전시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2층 전시장에는 양구백자는 언뜻 보기에는 투박하게 보이지만 향아리에 표현된 어진맛 흰바탕색 전통과 현대를 이어온 소중한 예술품이다.

원주 옷칠공예 원주는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라 옷나무재배가 잘되는 곳이다. 강원 감영이 원주에 있는 동안 행정관청과 기관에 종이를 공급하기위해



자연스럽게 한지 부락과 “인쇄문화”가 발달했다. 강릉 방짜수저(무형문화재 14호) 방짜란 구리와 주석(朱錫)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참쇠를 말한다. 사흘 동안 두드리고 반복하여 만들어진다. 김우찬 전수조교에 의해 4대로 전승되고 있다. 고성각자 이창석은 1978년 각자(刻字)를 해온 장인(匠人)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었다.



각자란 글을 새기는것 즉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긴 목각판을 이루는 말로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목판과 목활자 건물에 거는 편액(扁額) 시판(詩板) 현판루(懸板)등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그는 월인석보(月印釋譜)권 22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解例本)과 집왕성교서(集王聖敎書)등의 목판전체를 복원한 강원도의자랑 각자장 이창석이다.

11시30분까지 문화탐방을 마치고 다음 학습장인 제1마당 대도호부(大都護府) 관아에 12시 도착하였다. 제1마당 가설무대에서 애오개 산대놀이 가면극을 중간부터 관람하여 처음 스토리는 못봐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 애오개란 서울서대문 아현동 일대를 말하고 산

대(山臺)높이는 탈을 쓰고 공연하는 가면극 양반에 대한 조롱모욕 과제승에 대한조소 등 풍자적 색채를 띤 가면극이다.

공연은 열심히 하고 재미있는데 관중이 너무 없다.

12시50분까지 관람하다가 제2마당 행사장 임영관 후문으로 나와 오솔길식당을 찾는데 두번째 방문이다 기억은 나지만 좁은 골목에 꼬불꼬불 50여 미터를 나오니 강릉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2층 식당이다. 미리차려 놓은 밥상에 10가지 반찬과 명태국이 시장(撕腸)한 참에 더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임영관 후문으로 들어가 각자 자유관람과 체험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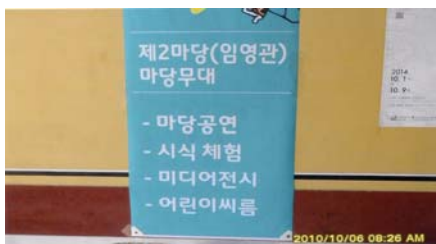
제2마당 임영관 마당무대에는 민속체

협, 시연(侍宴) 전시 놀이 등 20여 곳이 있다.

커피시연체험, 향토 음식전시 전통주 전시 및 시식, 수공예체험, 다문화체험 등 동헌(東軒) 전시관 작가 이이남은 제2 백남준으로 평가받는 한국 미디어아트리스트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각지에서 전시회를 개최 한국미디어아트 선봉주자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한국의 전통 동양화를 현대적 어법으로 차용 새롭게 해석하여 전통이라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영상의 융합을 의도한다. 이번 임영관 중대청에 전시되고 있는 “아사천에 꽃이피네”는 신사임당작 초충도(草蟲圖)을 새로이 해석한 작품이다. 각자인출(刻字印出) 체험학습장에는 이창석각자장이 직접 목판 목활자를 이용하여 학습체험하는 곳이다.

이번 국제민속예술축전 마스크드 그림과 “강원도를 하나로 신명을 세계로” 수강생을 실습시키면서 그림1점씩 준다. 목판활자에 먹물을 고르바르고 문창오지를 덮고 마른 붓으로 고무문지르면 된다. 그 밖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차 모형 활쏘기놀이 원판에 원반 세



개던져넣기 회원들과 즐기고 상품도 받았다.

4행시 소원쓰기 주제는 “강원민속” 나는 강원축제민속대회축전을 축하하면서 원없이 체험하고 탐방하니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긍지를 갖고 문화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소원을 써서 꽂아 놓았다. 제2임영관 마당 무대에서 축하공연 민속놀이 한마당을 관람하고 있는데 문화원원장님께서 다음 공원삼척술비놀이가 취소됐으니 오죽헌박물관 탐방하기로 결정하여 공연도중 3시에 출발하여 율곡로에 위치한 강릉시립박물관에 3시20분에 도착하였다.

박물관에는 일상생활용구, 생업용구,



김영숙선생이 기증한 유실물(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중요문화재 제11-과 호인 강릉농악전 과정축소 전시되어있고 향토민속박물관에는 강릉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유물과 옛무덤 및 석조미술품이 야외전시장에 있다.

오죽헌(烏竹軒) 15세기후반(1450~1500)년에 지어진 건물로 이곳에서 사임당(1504~1551)과 율곡(1536~1584)이 탄생한 곳이다.

사임당어머니가 넷째 딸의 아들 권처균에 현재의 오죽헌을 물려주었는데 권처균이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지은데서 비롯됐다. 오죽헌(보물 제165

호) 몽룡실에서 율곡선생이 1536년에 태어났다. 호는 율곡이며 덕수가 본관이다. 대표저서는 격몽요결(보물 제602호) 성학집요동호문답 등이 있다.

1584년 향년49세에 생을 마치고 파주 자운산 덕수이씨 선조묘정에 모셔져있으며, 파주자운서원을 비롯하여 20여개 서원에서 제사지낸다. 오죽헌(보물105호)조선초기에 지어진 건물 문성사 율곡선생의 영정을 모신곳 율곡매(栗谷梅) 천연기념물 제 484호 수령이 600년 추정 홍매(紅梅) 높이가 7미터 3월초순 꽃이핀다. 어제각 율곡선생의 친필(격몽요결) 사랑채 손님을 접대하는곳 율곡기념관 오죽헌에 역사 또 600년이상 된



배롱나무(百日紅)지금은 강릉시화로 지정된 나무이다.

4시까지 오죽헌 탐방을 마치고 강릉 시내로 들어오는 양쪽 도로변에 시에 가로수로 심은 감나무에 주황색감이 주렁주렁 오가는 객의 눈길을 끈다.

4시20분 제2마당 임영관에 도착하였다. 마당무대공연 관람석 의자에 짙을 이어 마든 깔판이 특이하다. 외줄타기 명인 김원태는 중요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이수자(履修者)다. 영화 왕의남자에서 줄광대역을 대역하여 널리 알려진 명인이라 그런지 정말 잘 탄다. 사회자와 주고받는 대화가 참 재미있다. 많은 박수와 함성이 그치지 않았다.

오늘 피로가 싹풀리는 기분이다. 다음 공연은 국립국악원 연희“난장르”다 난장르란 장이 열린다는 뜻이다. 선조들이 장터놀이판에서 울고 웃으며 삶에 고단함을 풀어냈던 민속연회를 한자리에 모은 공연이다. 백의민족(白衣民族) 후예답게 흰옷에 청(靑) 황(黃) 홍(洪) 띠를 두르고 흥겹게 노는모습 쾅가리, 징, 북, 장구, 소고에서 울려 퍼지는 강한 멜로디(선율곡조) 정말 멋지고 재미있다. 우리나라 농악놀이는 보면 볼수

록 흥이 나고 춤이 절로 추워진다. 타지역관중과 많은 박수치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5시20분 사무국장님의 안내로 임영관 정문을 나오니 버스4대가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무(歌舞)가 중단되어서 그런지 차에 TV도 아예 켜지 않았다.

평창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길에 우천 대래막국수집에서 막국수로 식사하고 8시경 문화원에 도착하였다. 오늘 전통문화학습은 한분도 낙오자 없이 잘 다녀오고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단오문화회관에서 단오제 절차를 확실히 이해했고 오죽헌에서 많은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각자장 소재 이창석명인을 만나 목관 인쇄를 직접 체험했고 작가 이이남선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강릉시는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생각해 본다. 오늘 전통문화 현장학습 및 탐방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주신 박순업원장님과 홍성진사무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하신 직원들께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횡성군 향토 문화유적지 답사를 다녀와서

\* 조은지 (횡여고)

**횡성.** 내가 태어나 18년을 살아온 이곳을 나는 당연히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답사에서 나는 나의 고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천면에 위치한 횡성참전전우기념공원이다. 이 공원에는 한국전에 참전하여 희생된 네덜란드 군을 추모하는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와 6.25참전 및 베

념공원은 알고 나서 보니 참 다르게 와 닿았다. 커다란 기념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아빠를 보는 듯한 슈퍼맨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으로 우리는 강림면에 있는 태종대에 갔다. 태종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작았다. 태종대는 조선시대 태종의 즉위 전 스승인 원천석과 태종의 설화가 남아있는 유적이다. 원



트남 참전전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참전 기념탑이 있다.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와본 기억이 난다. 어린 나에게 그곳은 네덜란드 풍차가 있던 곳이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기

천석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아들 끼리 왕권 다툼을 하자 관직을 거부하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후 옛 스승인 원천석에게 정사를 의논하

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원천석은 이방 원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였다. 이방 원이 원천석이 간 곳을 물어 바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스승이 나타나 지 않자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루했던 유적지가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금 향토 사료관에서 횡성 회다지소리에 대해 배웠다. 회다지소리는 장례행사 중에서 망자를 금정에 묻고 묘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역자들이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소리로 율동이 곁들여 있다. 처음엔 느린 가락으로 시작되어 점차 빨라진다. 전시관에는 화려한상여와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 토우가 장례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회다지소리는 아직 나에게 조금 낯설다, 무섭기도 하고 죽음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다음으로 갑천면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갔다. 이곳에는 중금리 3층석탑이 있는데, 이 탑은 신라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신라시대에 거찰이 있었으나 도둑이 들끓어 불태워 버렸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사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두 탑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곳에서 할아버지 한분의 설명에 의하면 탑 사이에 있는 돌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 돌들을 가져가려하다가 무너져 탑재가 주변과 인근의 민가 등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수습하여 복원한 것이라고 하셨다. 답사를 하며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사신 분을 만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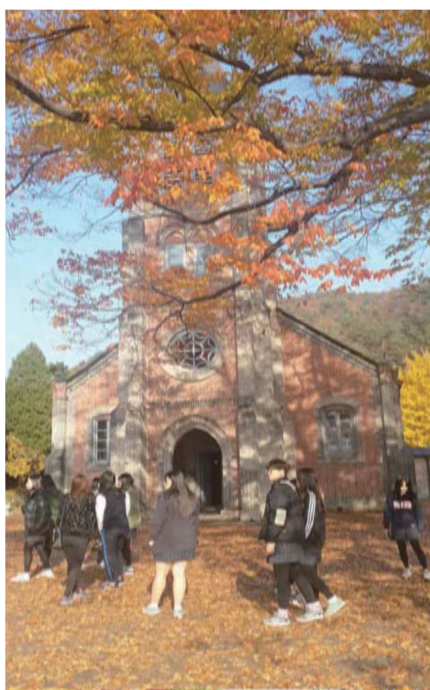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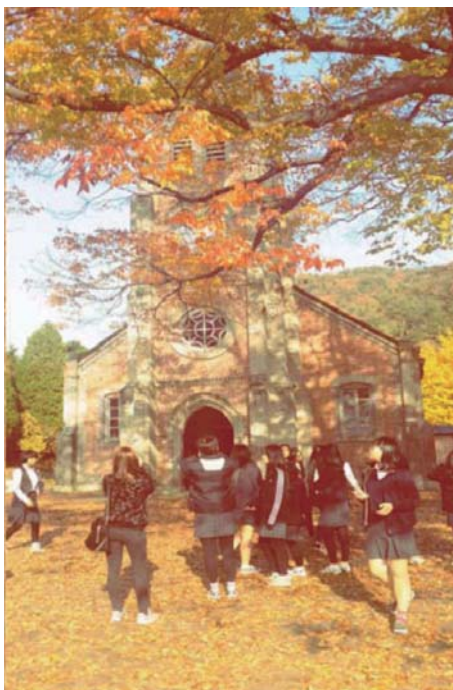
를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답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점심으로 김밥과 국수를 먹고 우리는 상동리로 향했다.

상동리에는 석불좌상과 삼층석탑이 있었다. 이곳도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왔었던 곳이다. 터가 넓은 것을 보니 옛날 절의규모가 매우 컸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불상의 머리 불두는 도난을 당한 이후 새로 만들어 놓았으나 원래의 것보다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보면 불상의 몸부분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있는데 반해 머리 부분만

깨끗하다. 이러한 부분은 너무 속상했다. 그 옆에 있는 삼층석탑도 3층 몸돌을 잃어버려 없어진 것을 탑을 복원하면서 새로 끼워 넣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풍수원천주교회에 갔다. 저번 어사랑 답사 때 한번 가 본 곳이다. 여름에 갔을 때의 파릇파릇한 느낌 보다 울긋불긋한 가을느낌이 물씬 나는 성당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풍수원천주교회가 위치한 이곳은 조선 신유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탄압받던 천주교 신도들이 피난





온 곳으로 고종 27년 프랑스인 르메르 신부가 초가 사랑방에 초대신부로 부임한 한국의 네 번째 천주교회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나는 횡성의 문화유적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애향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나의 고향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안타

깝다. 답사가 ‘지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답사란 즐거운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문화재들이 오랫동안 보존되어 나의 자식들도 오늘 내가 느낀 감정과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2014.10.29

# 횡성군 향토 문화 유적지 답사

\* 박주영 (횡이고)



엄마의 고향이자 내가 나고 자란 횡성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한우가 유명하다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 답사를 통해 나도 '애향가'라는 제목을 갖고 싶었고 타 지역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작지만 강한 고장인 횡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답사를 가기로 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횡성참전전우기념공원이었다, 자주 우천에 부모님과 함

께 목욕을 하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곳에 기념공원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 혼자 공원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그런데 내 상상과는 다르게 근린공원의 모습은 매우 한적했다. 특히나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솟은 두 개의 탑과 탑에 새겨진 '이 생명 다바쳐 조국을 지켰노라'라는 문구에 나도 모르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두 번째로 도착한 강림의병총은 이 작은 횡성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라웠다. 일본군과의 전쟁

을 생각하면 강화도나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부근을 생각하고는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황성에서도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아쉽게도 일본의 불의의 기습에 민공호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이 많이 전사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빨빨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않고 싸워주신 것에 큰 감동을 느꼈다.

언젠가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황성에도 왕의 스승이 몰래 숨어살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야기가 오늘 갔던 태종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태종의 스승인 원천석은 태종과 그 형제들의 왕권을 두고 벌인 싸움에 분노를 느끼고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숨어 살았다고 한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 전 스승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논하고자 운곡을 찾았지만 원천석은 태종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는 치악산으로 들어가며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노파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노파의 거짓말에 속은 태

종이 운곡을 기다렸다하여 그곳을 주필대 즉 태종대라 부른다고 한다. 태종과 그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지만 내가 따로 관심이 간 이야기는 바로 그 거짓말을 한 노파의 이야기였다. 후에 자신이 감히 왕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을 안 노파는 절벽에 올라 강물에 뛰어들었고 때문에 그 강물이 흐르는 마을을 노구소 마을이라 부른다 한다. 어떻게 보면 노구소 마을에서는 노파의 임금을 향한 충성스런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를 구했으면 지금쯤은 그 노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남기기도 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정금의 향토 사료관이었다, 처음엔 향토 사료관이라 하여 농업기술이나 여러 농사와 관련된 곳일 줄 알았는데 향토 사료관은 인간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장례에 대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나 정금의 회다지 소리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얼마 전 정금에 사는 친구에게 황성에서도 깊숙이 있는 시골에 산다며 장난을 치기도 하



고 정금에서는 모두 판소리를 배우며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창이나 판소리 같은 민요를 잘하는 것도 정금에 사는 것도 내가 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사료관에서 장례를 하는 모습과 회다지소리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니 더욱이 친구를 놀리기 보다는 그 친구가 사는 마을이 대단한 곳이라는 것을 도리어 알려주고 싶다.

향토 사료관을 지나 도착한 곳은 중금리 삼층석탑이었다. 두 개의 쌍탑과 그 사이에 누워있는 돌들의 모습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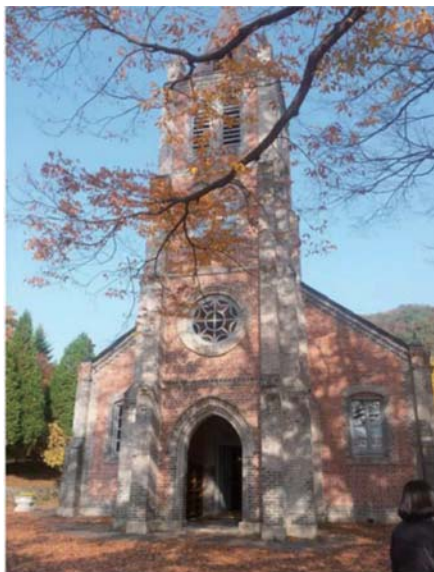
기했다. ‘왜 다 부서진 돌들이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주민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말리자 해체한 석탑들을 그냥 그 자리에 던져놓고 갔고 때문에 부서진 탑의 조각들을 바닥에 두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벌어지듯 나라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기 마련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다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문화재를 보니 참 안타까웠다.

삼층석탑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상동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 지붕돌에 새겨진 계단같이 생긴 조각이 4개밖에 새겨져 있지 않아 신라시대의 중금리 삼층석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나 상동리 삼층석탑의 옆에 있던 상동리 석불좌상은 비록 곳곳을 현대에 새로 붙이고 조각해 넣은 것이기는 했지만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돌에 새겨진 연꽃의 문양이나 여러 문양이 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이런 탑이



라 불상이 있던 곳은 주로 주위에 절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주위의 넓은 초원이 모두 절이 있던 곳이라 생각하니 당시의 우리나라에 불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새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풍수원 성당은 우리 말고도 다른 신자들이나 관광객들로 붐빌 만큼 꽤 유명한 곳이다. 천주교박해가 성행하던 그때에 많은 신자들이 몰래 숨어들어와 신앙을 키우던 곳이 바로 이 풍수원 성당이었고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 고딕 양식의 건물이기엔 성당에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벽돌 하나하나에도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건축기술들이 쓰인 것 같았고 특히나 지붕에 있는 철판은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게다가 성당 옆에 느티나무를 세우신 정규 하 신부는 성당을 무려 45년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미에서도 뜻 깊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꽤 작은 곳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힘쓰시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신앙과 관련된 건물이나 문화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다. 비록 작은 땅과 적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황성이지만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꽤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황성에서 나고 자란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다시 답사를 다녀오고 싶다.

## 2014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 답사

# 태종대에서



\* 윤 미 강 (민사고)

###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4년 11월 8일 오전 8:20 ~ 오후 4:40

장소 : 횡성군 향토문화유적지 (태종대, 강림의병총, 풍수원 성당, 횡성댐, 구방리 망향의 동산, 중금리 3층 석탑, 봉복사, 신대리 3층 석탑)

### 2. 답사 일정

기숙사 정문에서 학교 출발: 08:30 A.M

태종대, 강림의병총 답사 : 9:00 A.M~10:00 A.M

풍수원 성당 답사 : 10:50 A.M~12:00 P.M

점심 식사, 횡성댐 관람 : 12:30 P.M~13:30 P.M

구방리 망향의 동산, 중금리 3층 석탑 답사 : 13:50 P.M~14:50 P.M

봉복사, 신대리 3층 석탑 답사 : 15:10 P.M~16:10 P.M

귀교: ~16:40 P.M

### 3. 답사에 대한 소감

월 8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 민족사관고등학교 11학년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 기숙사 정문 앞에 섰다. 당일치기로 횡성문화탐방에 다녀오기 위해서였다. 지난 밤 부터 내린 비가 멈추지 않아 답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우려는 뒤로하고 모두들 버스에 올라 타 첫 목적지인 태종대로 향했다.

첫 행선지는 횡성군 강림면에 위치한 태종대였다. 지난 학기 한국사 시

간에 고려 말, 조선 전기를 공부하면서 선생님께서 ‘태종대’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떠올라 반갑기도 해서, 더 유심히 보기도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태종대에 얽힌 이야기는 이방원과 그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과 관련되어있다. 원천석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관직을 거부하고 태종대가 세워진 강림리에 은거하였다. 이런 그를 관직에 복귀시키고자 했던 이방원은 강림리까지 찾아왔으나, 이 사실을 미리 안 원천석이 피신하여 치악산으로 들어갔다. 피신하던 중 만난 노파에게 자신의 목적지를 거짓으로 알리고, 후에 이방원이 노파에게 원천석이 간 곳을 묻자 노파는 원천석이 알려준 대로 거짓 행선지를 가르쳐주었다. 이방원은 그곳으로 가 원천석을 찾았지만 지금은 태종대라고 알려진 바위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 이방원이 기다리던 바위를 말이 기다리던 바위라는 뜻에서 ‘주필대’라고 부르다가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태종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천석은



태종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왕의 아들의 스승이었으므로 만일 관직에 올랐다면 평생 왕이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념과 뜻을 굽히지 않고 제자 이방원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의지를 높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태종대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니 멀지 않은 곳에 노구소가 있었다.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에 근처 강에 투신자살한 노구할미를 기리는 곳이다. 친구들과 답사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노구할미의 자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 당시 성리학적 유교질서가 엄격한 조선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조금 오

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친구들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왕’에게 거짓을 고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노파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난 다음 서로 느낀 점은 달랐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는 횡성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민공호 의병장과 의병들을 기리는 강림의병총과 풍수원 성당을 답사했다. 강림의병총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의병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순국하신 의병들에 대한 묵념을 드렸다. 가이드분의 설명에 따르면 횡성 지역은 의병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곳 중 하나다. 내가 생각해도 횡성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만큼 일본군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었을 만한 요충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병운동의 탄압도 더 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강을 뒤로 배수진을 친 후 끝까지 일본군의 공격에 저항했던 부분이 매우 와 닿았



풍수원성당에서

다. 풍수원 성당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성당으로, 천주교인들의 마을인 풍수원에 베드로를 비롯한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다 정착한 곳이다. 사실 횡성에 대한 내 인식은 한우로 유명하고 매우 전원적이라는 점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강림의병총과 풍수원 성당을 답사하면서 횡성 지역이 활발한 의병 활동이 전개되고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하고도 그 신앙을 이어간, 역사적으로 뜻 깊은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근처 웨딩홀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갑천면에 있는 횡성댐을 견학했다. 물 절약에 관한 홍보영상을 보고 횡성댐을 둘러보았는데, 수면이 무척 낮아져있었다. 댐 주변 골짜기의 지면이

흰히 드러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낮았던 것인지 갈색 흙 부분에 풀이 듦성 듦성 자라있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수면위로 드러나 흙먼지 폴폴 날릴 것 같은 부분들이 무척 아련하고 안타까웠다. 곧바로 구방리 망향의 동산과 중금리 3층 석탑을 둘러보았다. 망향의 동산은 횡성댐 건축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을 기리는 곳이다.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었다. 재봉틀부터 지금은 사라진 초등학교의 상장들까지, 작은 지역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었다. 더불어 수몰되는 지역에 있던 석탑을 해체하여 옮겨와 복원시킨 중금리 3층 석탑을 볼 수 있었다. 화려하고 섬세하게 조각된 탑은 아니었지만 굽고 균형 잡힌 절제의 미를 느낄 수 있었다. 탑을 해체하고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훼손된 부분이 보였다. 아무리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이라도 보호하고 최대한 그대로 복원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역의 특징 없는 탑이라고 성의 없이 대충 옮겨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유적에만 첨단 장비들을 동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중과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종의 쇼라는 생각이 들어, 유적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다.



수면이 낮아진 횡성댐

차로 이동하는 동안 신대리 3층석탑을 둘러보고, 마지막 유적지인 봉복사에 도착했다.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세운 절이며, 그 당시에는 큰 규모를 자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절이 모두 파괴되고, 지금은 법당과 부속 건물 1동만이 남아있다. 둘러보니 건물 복원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쉽게



봉복사에서

도 새로 칠해진 대웅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현존하는 법당 건물만큼 옛스러움과 웅장함을 재현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졌지만 조금 경박스럽고 주변 산세와 절의 느낌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절의 이름은 지리적으로 봉황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봉복사라고 지어졌다고 한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한적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스님이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인지 건물의 처마아래 스피커가 달려있고, 벽 한편에는 가스통이 놓여있고, 멀리서는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다. 이질적이

었다. 선생님께 여쭙보니 지금은 폐허로 남은 건물 주변 일대가 과거에는 모두 절의 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터만 남아 복원하기가 힘들 것이라 하셨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귀중한 유물들을 약탈당했다. 더불어 다른 나라에서는 1000년의 시간을 통해 이룩할 것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초고속으로 달성하다 보니, 우리의 역사와 문화, 다양한 유적지들을 보존하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웠다.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부터라도 흩어지고 파괴된 우리 문화

유신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횡성군 문화 유적 답사의 긴 여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다. 각각 유적지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답사를 통해 느낀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좁은 횡성군에만 해도 가치 있고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유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놀랐고, 이런 유적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녀온 횡성문화탐방과 같은 답사나 견학 프로그램이 점차 체계화되어가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횡성에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횡성의 역사를 한번 짚 둘러보고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 제2의고향 횡성

민사고는 '산골' 학교다. 학교 자체가 공기 좋고 물 맑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골 학교 민사고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시골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나무와 풀이 도처에 널려 있고, 창문만 열면 드넓게 펼쳐지는 산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횡성문화유적 탐방은 내게 아주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살펴보지 못했던, 버스에서 눈으로만 스쳤던 횡성의 유적지들을 살펴보면 '내가 이곳에, 횡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탐방을 시작하며 30여분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봉복사였다. 절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단청과 수려



\* 이에주 (민사고)

한 경치가 눈에 띄었다. 가이드 선생님의 절에 관한 설명을 듣는데, 이 곳이 횡성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고 1901년과 6.25 전쟁 때 손실된 것을 다시 중건한 것이라니 새삼 봉복사의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설명을 듣다 귀를 기울여보니 옆에 마련된 스피커에서 불경을 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절 특유의 경건함까지 느껴졌다. 학교 바로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놀랍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다. 또 절에서 나오는 길에는 옆에 세워져있는 신대리 3층석탑까지 구경해볼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석탑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둘째로 가본 곳은 구방리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과 중금리 3층 석탑이었다. 위용을 간직하고 있는 중금리 3층 석탑을 구경한 뒤 바로 앞 건물에 들렀다. 그곳은 망향의 동산이었는데 이곳은 수물민들의 고향 사랑을 간직한 곳으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옛 물건들을 전시해놓았었다. 내가 직접 사용해본 적은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고, 옛 추억의 적적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옆에는 무인 판매소가 있어 맛있는 한과와 약과를 판매하고 있었다. 바구니에 돈을 집어 넣고 한과와 약과를 사서 먹었는데, 나와 내 친구들 모두 입을 모아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 뒤 점심시간을 겸하여 황성댐에 들렀다. 사실 '황성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견학 시설 역시 잘 구비되어 있어서 놀라웠다. 전시되어 있는 각종 그림도 관람할 수 있었고, 후에는 영상실에 들어가 물이 정수되는 과정과

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마시는 물, 쓰는 물이 모두 이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니 놀라기도 했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곧 물 기근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숙사에서 막 쓰던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황성댐을 견학한 뒤에는 근처 뷔페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점심마저 무척 맛있었다. 또 점심을 먹은 뒤에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동네를 구경해보았는데, 시골 특유의 정겹고 고향의 향취가 묻어나는 거리를 거닐어볼 수 있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서는 풍수원 성당으로 향했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에서 4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었는데 영화 촬영지로 유명할만큼 경치가 무척 예뻐고 순교의 역사에 대해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볼 수 있었다. 성당에 직접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뒤편에 위치한 박물관에도 둘러보고, 친구들과 이곳 저곳에서 사진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 곳이었다니, 무지했던 내 자신을 반성해보는 동시에 새삼 자랑스러움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강림의병총과 태종대였다. 강림의병총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워주신 의병들께 묵념을 드리고 태종대에 들려 태종을 가르치던 원천석의 강직한 신념에 대해 알아가며 이 두 곳 역시 역사의 진한 발자취가 묻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황성에 살면서도 이 뜻 깊은 유적들에 대해 무지했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바로 근처에 민족을 위해 싸워주신 선조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몰랐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주 가까이에 있던 것들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얼마나 좁은 곳에서 살아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어찌보면 민사고 학생들에게 황성은 '제 2의 고향'이다.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법적으로 '황성군민' 으

로서 3년을 보내기 때문이다. 또 얼마 전에는 황성군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 황성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이 아닌지 이번 탐방을 통해 반성해볼 수 있었다. 동시에 황성에 이렇게나 숨겨진 명소가 많았던 것에 감탄하며 이곳저곳 요모조모를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뜻 깊은 장소들을 친구들과, 또 가이드선생님과 함께 둘러보며 직접 우리 고장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탐방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를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어렸는지를 느꼈다. 그런만큼 이런 기회를 주신 황성군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 고장 황성에 대해 앞으로 더 알아가고, 배워가야겠다고 새삼 다짐하게 되었다.

# VI. 문예마당

\* 포토에세이 - 황성호에 탈곡기 소리를 듣다 | 정재영

\* 시조 - 빙열백자 氷裂白磁 | 김성수

\* 시 - “어릴 때 사계절 I, II | 진광수

\* 수필 - 은퇴 설계사 | 최보정

\*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7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산문 - “무지개 처럼” | 박우영(황성초)

동시 - “무지개” | 이현아(공근초)



# 횡성호에서 탈곡기 소리를 듣다.



\*정재영

'와룽틀'이라고 불렀다.  
그때  
어린 꼬맹이들은  
탈곡기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와룽 와룽'  
소리 난다고 해서.  
그 당시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기계였고.

타작날은  
두레에서 받아졌다.  
논 마지나 있는 집이 먼저고,  
탈곡기 있는 집이 대개 앞순서였다.  
산골 고래실 논 다랭이 몇마지기 있는 집들은  
맨 꼬래비.  
된서리 지독히 내린 날이 순서로 돌아왔다.  
그게 관례였다  
우리 동네에서는.



대학을 떨어지고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을 때였다.  
난.

신 새벽.  
사위는 어둠이 걷히지 않은터라  
고양이 발톱처럼  
어둡기만 했다.  
타작날 아침은.

춥다. 맨 손으로 서리 앉은 벧단 만질때는  
오싹  
전율이 전해져 온다.  
절로 오줌 젼젼.  
아무리 늦어도



새벽 5시면  
타작하는 집에 도착해야 한다.

전기 없던 때라  
타작마당 한켠에는 관솔불이  
솔향기 솔솔 풍기며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다.

명석위에는  
이미 새벽 전누리(새참)가 기다리고 있다.  
구수한 장칼국수에 막걸리 한 사발.  
빈 속이라

장칼국수를 안주로 마시는 막걸리에  
초작부터 핑 돈다.  
제기랄.

탈곡기 밟는 건 짧은 장정뭉이다.  
다리힘 튼튼하기에.  
2인 1조로.  
탈곡기 두 대는 '와룽' 소리 요란스레  
내 지르며 고요가 내려앉은 마을을 뒤흔들어 댄다.

그렇게 새벽부터 부지런 떨어야  
하루 열 마지기를 털 수 있다.

탈곡기를 거쳐 간 벧단은  
마당 한 권으로 옮겨지고,  
뒷목은 도리깨질로  
알뜰살뜰  
그야말로 벼 한톨 남김없이 털어진다.  
도리깨질은 중년들 뭉이다.

타작밥은 동네사람들 모두 함께 먹는 자리였다.  
아이들은 타작밥 얻어먹기 위해  
십리 길 멀다양고 쫓르르  
달려오곤 했고.

빨간 자전거 탄 우체부도,  
남녘에서 온 체 장수 아줌니다.

히연 이밤(쌀밥)에  
장떡,  
꽂치 간스메(통조림),  
더덕 구이,  
건포 튀김 등  
그야말로 푸짐하다.  
타작밥은.

저녁 해는 짧기만 했다.  
6시 넘으면  
타작마당에는 다시 관솔불이  
타오르고  
배부른 아줌니 닳은 벼들이  
마당에 남산만 하게 쌓여간다.

신바람 난 주인은  
저녁 전누리 막걸리에 취해  
등에다 지게작대기를 짊고  
땀새춤으로  
흥을 돋운다.  
'땅가라땅'





제기랄.  
짓곳은 일꾼들은  
그런 주인을 덜렁 들어다  
타작마당 벧가리에 집어 던지고,  
신이 난 주인 아줌나는  
씨암땀 모가질 비틀어 안주로  
대령하고.

그렇게 타작마당은  
주인도 ,품앗이 일꾼도  
마냥 흥겹고 신명나는 잔치마당이였다.

그런 흥겨움이 사라졌다.  
콤바인 등장으로.

시나브로..  
타작밥도 함께.

아슴 아슴.

엇그제  
가을이 성큼 내려앉은  
황성호를 다녀왔다.  
너른 화성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가을을 맞고 있었다.  
그렇게.

물속에 거꾸로  
치박힌  
가을 들녘  
고샅길 길썬.  
어디선가 아련히  
'와릉 와릉' 소리 들리는 듯 해  
난  
연실 뒤를 돌아봤다.  
눈시울 붉히며.  
이 가을  
정녕  
타작밥이 그럽다.



\*\*\*\*\*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고 문예사조 중편소설부문 신인상 받으며 등단

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회장(중앙위원)

한국소설가 협회 회원

장편소설 '아름다운 것들 '

중편소설집 '물속에 뜬 달'

소설집 '비우'

포토에세이 '섬강에서 그리움을 만나다' 외

## 빙열백자 氷裂白磁



\* 김 성 수

유리에 실금 가듯 얼음에 잔금 가듯  
갈라진 자국마다 아픔이 서리었다  
그 균열 사이사이로  
기물거리는 흰 연기.

머언 먼 세월의 낮은 구름 위에서  
가마에 타고르던 도공陶工의 맑은 혼이  
백학의 나라가 되어  
천년을 날아간다.

옥양목 치마 입은 만삭滿朔의 규중 여인  
후원의 뒷마루에 조심스레 앉아서  
예혼藝魂의 태동을 느끼며  
은은하게 웃고 있다.

\* 장승모 선생의 도자원에서 쓴 시조  
제1회 한국시조사랑문학상 수상작.

## 어릴 때 사계절 1



\* 진 광 수  
(문화원이사)

개나리 피어나고  
노랑나비 춤추면  
봄이 왔다고 동생과 함께  
머들피리 만들어  
빼리빼리 노래 불렀는데

언제 날아 왔는지  
피꼬리 매미들 동네 어귀  
느티나무 숲에 숨어  
피꿀 피꿀, 찌울 찌울  
여름을 노래하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삼라만물에 사랑을 심어주고  
종족번식 결실 맺으라며  
창공 蒼空 을 열어 주는데

겨울 알리는 동장군  
백설공주 모시고 와  
욕심부리던 삼라 만물에  
눈 이불 덮어주고  
바람으로 감싸 안아주며  
내년의 희망을 꿈꾸라 잠재우네

## 여름 때 사계절 II

아지랑이 아물대고  
나비들 춤추는 봄이 오면  
누나 따라 뒷산 올라  
진달래 한 아름 꺾어  
꽃병에 꽂고

집 앞 미루나무에  
매미들 울어대는 여름오면  
친구와 함께 여봉수강에 나가  
친구들의 고추보고 깔깔대며  
물장구치고 놀았대요

마당가득 고추잠자리 날고  
툑툑 알밤 떨어지는 가을 오면  
꼭두새벽 누나따라 일어나  
알밤 주어 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미채들고 잠자리 따라 뛰었지요

핑핑 흰눈 내리는 겨울오면  
누나와 함께 눈 굴러 눈사람 만들고  
큰 것은 누나 작은 것은 나라고  
이름 지어주고 깔깔깔 웃어댔지요



# 은퇴 설계사

## - 은혜를 갚는 퇴비



\* 최보정

(문예창작교실, 시낭송교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향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뚫다.’

/F.W. 니체

면접시험 결과, 떨어졌다. 떨어지고 나니, 니체 말씀이 퍼뜩 떠오른다. 빨간 수첩을 뒤져 맨 마지막장을 열고 지갑을 뒤지듯 곰곰이 새겨본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가슴에 새기며 크게 읽어본다.

설날 밑이다.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오후, 온 천지는 며칠 사이 폭설로 하얗고, 갓길에는 쌓인 눈들이 무덤처럼 늘어서있다. 눈발 경계가 지워지도록 들판에는 눈이 두텁게 쌓여있다. 세(歲)밑이라 그런지 쌓인 눈이 과줄로 보인다. 뜯어먹으면 파삭파삭한 과줄 같을 것이다. 창을 열고 눈발을 밟고 싶지만, 문자편지를 기다리고 있어 나가지는 못하고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불러들인다. “선생님,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래요.” 고운 마음이 담긴 문자통보였다. 나의 답장은 조금 더 긴 문장이었다.

“고마워요. 면접실에 들어선 순간 잘못했다 싶었어요. 어린 딸 같은 젊은 지성들이 그리 많을 줄 몰랐어요. 젊은이가 말아야죠. 진심입니다.”

웬지 똑똑한 고급인력들의 실업률이 체감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곳에 온 대학졸업자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성실해보였다.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주책을 부린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작은 기름 값 정도의 봉사자리나 다름없는 방과 후 강사자리였다. 그래도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내심, 떨어질 줄 알았지만,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천근만근 무겁던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게 느껴져, 낙선(落選)편지에 기다리던 답장을 날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길가 하얀 발으로 들어서서 눈을 밟았다.

*‘사방사방,’ 과줄(학과) 부서지는 소리가 좋았다. 부풀대로 부풀 눈덩이를 자기자근 밟았다. 동래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 땀이 눈 낀 하나 살쾅 손등을 친다.*

정말, 제출서류를 준비 할 때는 살맛이 났었다. 나이 제한이 없으니 신나는 휘파람을 불며 강의안을 썼다. 요즘 아이들은 사진을 좋아하니 역사사건들의 화보집도 꾸몄다. 아이들을 또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꿈을 꾸는 듯 기뻐다. 경력도 꽤 두툼한 서류몽치였다.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그들의 교육에 늘 마음이 쏠려 있는 나는, 지방 공무원 십 여 년 세월을 접고, 늦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동화책을 읽게 되자, 얼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로 나섰다. 다년 간 집집마다 방문하며, 이곳 저곳 헤매듯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국어, 수학, 한자, 영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기에 바빴다. 지금은 세분화 되었지만 이십 여 년 전에는 종합 교육이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였는지 모른다. 아이들 교육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닌가, 더욱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그 집 자녀를 지도 한다는 것은 호랑이 앞, 사슴의 형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자신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것을 알아주게 되면 고역이 아니라 행복한 보람 된 일이 되었다. 작은 수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까지, 밤늦게 까지를 마다하지 않고 다녀야 한다. 태백지부에서 경북 울진까지 차로 가서는 흠어져 아이들을 가르치고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 때가 되곤 하였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이들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즐겁기만 하였다. 그때만 해도 젊은 삼십대여서 열정이 모든 노역을 이길 수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퇴직 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어떤 지혜이든, 무수한 책속의 비밀이든, 숨어있는 정보를, 교훈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다. 나만의 견해인지 모르지만, 직장을 그만 둘 때도, 홀로 계신 시아버님 조석(朝夕)과 살림이 걱정되어 낸 사표였지만, 오롯이 태교와 자식교육이 염려되어 가난해도 직장을 그만 둘 수 있었다. 결혼당시에 남편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산사에 들어가서 취업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 나의 결정은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크셨다. 모험이라면 모험이었다. 혼자 몸도 아니고, 경제력이 없는 시골 농사집에서 아이를 어찌 키울지가 어른들은 큰 걱정거리였다. 남편은 산사에서 아기나 한 번 보러 일주일에 한 번 씩 내려오고는 하였다.

우리아기는 어른들의 염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지 무럭무럭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다. 새벽부터 장작불을 때고, 삼십여 명의 모내기 밥도, 참도 들고 나가고, 리어커에 아기를 실어 나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부드러운 바람, 포근한 바람, 뜨거운 땅의 입김, 찬바람, 다 받으며 긴 세월을 노동 속에서도 아이교육에 고삐를 놓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분주했다. 이제는 읽는 책들은 바로바로 아이교육에 접목되는 산교육의 지침서가 되어주었다. 직장을 그만 둔지 아직도 30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책과 실습을 한 것은 진정한 나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느

껴진다. 유치원 보모, 학습지선생, 학원강사, 독서논술지도사, 시낭송가, 아동 글쓰기지도사. 또래상담사. 등등 배우는 곳은 어디든지 다닌 것 같다. 유능한 분들의 강의실을 찾아가 얼마나 열심히 청강을 했던가, 그 뿐이라 인터넷 정보 망은 얼마나 넓고 깊은가. 스스로 찾아다니며 배우는 것은 기쁨도 주지만 보물을 차곡차곡 내면에 숨겨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진다.

이제 오늘 독서논술강사 한 명 뽑는데 젊은 지성들 다섯 명, 나까지 여섯 명이 경쟁하여 멋지게 떨어졌다. 하여,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차창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와이퍼로 지우며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나섰던, 다소 부끄러운 마음을 저 밖의 쌓인 눈 더미 속에 푹 감춰두고도 싶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은퇴를 생각할수록 내 속에 있는 진짜 힘을, 진정한 것을 진솔하게 사용하고 싶은 것이다. 그동안 인생에서, 책에서, 온갖 세상사에서, 배우고 익힌 진짜배기를 베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재능 기부란 훌륭한 말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은퇴를 요즘 아이들처럼 아이콘을 만들어본다. ‘은퇴는 은근한 퇴비’ 아닐 까. 아는 것을 베풀라, 몸이든, 재능이든, 꿈이든, 은근과 끈기로 거름을 줘라. 은근히 뜻을 전하는 남은 세월을 살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숨은 덕행을 펴보고 싶은 것이다. 앞으로 무엇으로 이 사회와 시간에게 빛진 것을 갚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

이제 머지않아 내년 후반기에는, 남편이 퇴직을 한다. 우리는 저녁밥상에 앉아서 은퇴 후 설계를 연속극 얘기하듯이 하고 또 한다. 내가 은근한 퇴비가 될 길을 찾는다고 하면, 남편은 ‘은혜를 갚는 퇴비’가 되고 싶다고 한다. 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고, 남편은 진짜 거름이 되고 싶다고 한다.

남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밭둑머리에 원두막 같은 작은 다락방을 매달고,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산 아래 밭머리에 원두막 같은 집을 짓

고 진짜 농사꾼이 되려고 한다. 과일 나무를 몇 가지 심고, 상추, 고추, 호박, 배추 등을 심어서 찾아오는 이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다고 한다. 또한 한쪽 모서리를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태극권을 가르치고 명상호흡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한다. 60여 생에서 익혀오던 건강법을, 마음 깨치는 지름길로 믿어오던 신념을 퇴직 후에 아낌없이 베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원두막을 서너 채는 지어야 될 듯싶다고. 내가 응수하면, 남편은 정말로 좋아서 환한 얼굴이 된다.

나와 남편은 퇴직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종종 저녁밥상머리에서 때로는 전래동화 얘기하듯, 또는 연속극 얘기하듯 진지하게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 하나의 은덕(隱德)을 어떻게 남모르게 펼 칠 것인지 고민해 보았다.

내가 가난해도 일찍 퇴직을 하고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듯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갈고 닦고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은근한 퇴비가 되려고 준비 할 것이다.

목표가 다시 확고해지니 가슴이 펴진다. 오늘의 실패를 기분 좋게 생각하며, 니체가 말한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뚫다.’ 를 읊조리며, 시동을 건다.

내후년에 남편이 퇴직하면 그의 뜻을 받들어 찬이슬에 긴바지를 적시며 부지런히 농사일도 거들고 남편에게 태극권도 배우고, 찾아오는 이들과 원두막에서 상추쌈도 싸고, 늘 즐겁게 살 것이다. 내게 무엇이든 가르쳐달라면 정성껏 가르쳐 줄 것이다. 나도 남편처럼 ‘은혜를 갚는 퇴비’ 가 될 마음 자세다.

산 아래로 난 들레 길을 돌아가면, 밭가에서 포도와 옥수수를 팔던 원두막들이 서 있다. 늘 정겹고 향수를 불러일으켜 주는 원두막들이 오늘은 더욱 살갑다. 하얀 왕관을 쓴 것처럼 가로등 아래서 의기양양해 보인다. 개선문처럼 길가를 지키고 있는 원두막을 보며 은퇴설계를 한다. 우리 밭가에는 의젓한 원두막을 두 채를 지어 꽃향기에 흠뻑 젖게 해주리라. 그러면 땀에 젖은 우리 부부를 시원하게 감싸줄거나.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7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산문부 (최우수)

## 무지개처럼

\* 박우영 (횡성초등학교)

“따르르릉!”

이른 아침, 나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고 잠시 침대 위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나는 주말인 오늘 왜 일찍 일어나야 했는지 궁금하여 먼저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엄마께 여쭙어 보았다.

“엄마, 오늘 왜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단다.”

오랜만의 할머니 댁 방문 소식에 나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오르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파랗고 맑은 하늘 아래서 곤충들을 관찰하며 여유를 부리는 내 모습이 상상이되어 마음이 설레었다. 그러나 내 상상을 일부러 깨뜨리더라도 하는듯이 차가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먹구름에 뒤덮인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울상을 지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도 우울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두 시간 정도 지나고 지루하게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우영아, 비 그쳤다!”

내가 우울해 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던 아빠의 말씀에 나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보았다. 정말로 비가 그쳐있었다. 비가 그친 것에 좋아하던 나는 두 산 사이를 이어주던 무지개를 발견하였다.

빨주노초과남보가 조화롭게 합쳐져 만들어진 그 무지개는 그 어떤 풍경보다

도 아름다워 보였다.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모듬별 음식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우리 모듬은 지난 번 세운 계획대로 카레 떡볶이를 맛있게 완성하였지만 어떤 모듬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인지 음식을 망치고 말았다. 나는 그 모듬을 보고 '모듬원들이 무지개처럼 힘을 합쳐 노력했다면 활동을 잘했을텐데' 하고 생각했다.

요즘은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이 많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모듬 활동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활동에서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면 무지개처럼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중에 모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위 방법으로 모듬의 무지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故)이연승선생추모비설립 17주년 기념 글짓기대회 동시부 (최우수)

# 무지개

\* 이 현 아 (공근초등학교)

알록알록  
달록달록  
비는 신랑  
해는 신부

알쏭알쏭  
달쏭달쏭  
아들 무지개를 낳았네

오붓오붓  
도란도란  
비군과 해씨는  
딸 무지개를 낳았네

우리들이 모이면  
쌍무지개

사람들은  
하하 호호  
사진을 찍어 주네



# 2014 문화 사업실적

## 지역사회문화사업

### ♣ 전시회

#### ● 2014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12.17. ~ 19. / 문화관지하전시실)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 한문)를 일년동안 배우고 익혀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 ♣ 음악회

#### ● 2014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음악회" (11.27. / 황성문화관)

뉴트리팍스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황성군민과 대입 및 취업 수험생들을 위한 2014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음악회"가 열렸다. 이번에 진행된 화려하고도 가득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뉴트리팍스오케스트라만의 자랑이며 연주프로그램 또한 클래식에서 가요, 영화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가수 최현아, 세대가 함께 공



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다시 한번 음악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멋진 공연이었다.



## ♣ 문화예술공연

### ● 트로트 마당극 『심봉사의 딸』(09.16. / 황성문화관)

고전이야기인 ‘심청전’을 극의 줄거리로 삼고 판소리가 아닌 마당극 형식으로 극을 구성 했으며, 노래를 트로트풍으로 제작하여 공연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MR로 제작된 트로트 음악에 타악기반주를 라이브로 입히며 다양한 효과음과 함께 연주되었다.



## 향토문화교육사업

## ♣ 문화강좌

### ● 2014 황성문화원 문화강좌 (11.27. / 황성문화관)

관내 황성고, 황성여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홍인희님을 초청해 “은혜를

입는다는 것, 은혜를 갚는다는 것”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 ♣ 문화유적지순례

문화원은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차례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관내·외 문화유적지답사를 다녀왔다.

#### 〈관내 문화유적지답사〉

1차:	2014. 4. 9.(수)	둔내고등학교	38명
2차:	2014. 4. 14.(월)	청일중학교	19명
3차:	2014. 4. 17.(목)	강림중학교	39명
4차:	2014. 10. 29.(수)	횡성여자고등학교	38명
5차:	2014. 11. 1.(토)	민족사관고등학교	135명



〈둔내고등학교〉



〈청일중학교〉



〈강림중학교〉



〈황성여자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 〈관외 문화유적지답사〉

- 1차 ● 일 시 : 2014. 5. 9.
- 참가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20여명
  - 답사지 : 경북 예천군 일원 문화유적지  
(회룡대, 선몽대, 용문사, 초간정, 금당실전통마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등)
- 2차 ● 일 시 : 2014. 10. 7.
- 참가대상 :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35여명
  - 답사지 : 강릉시 · 2014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행사장 일원  
(단오문화관, 대도호부, 임영관 등)



회룡대



용문사



단오문화관



대도호부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2.14. / 교항리 전천 둔치)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횡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

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2월 14일 교항리 전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민속놀이 행사를 가졌다.



### ● 제19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7.11.)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여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강원도 시·군별 13개 문화원팀의 경연 및 시연이 있었으며 황성문화원 어사매풍물패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 ● 황성희다지소리민속문화제(4.12. ~ 13.)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정금리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28회 황성희다지소리민속문화제에서 식전공연으로 황성문화원 어사매 풍물패공연을 갖고 세명대학교와 을지대학교의 학생들이 강원민속마을 체험행사로 참여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전승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생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고 있다.

## 애향활동 전개사업

### ● 애향지 발간

횡성문화원 애향지 통권 제29호로 발간되는 『2014횡성문화』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의 숨결, 향토문화 탐구,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문화융성학습 정보, 문화탐방기행,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애향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향토인물 선양, (故)이연승선생추모 동시비건립 제17주년기념 어린이글짓기대회(5.14.)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故(고)이연승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화 활동을 창달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금년에도 어린이글짓기대회가 동시비가 위치해 있는 횡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5월 14일 열린 글짓기 대회는 횡성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교, 약200여명이 참가해 동시부문 141편중 48명, 산문부문 52편중 26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다.



## 시설관리 유지사업

문화원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 향토사료조사사업

###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횡성전투 전적지에서는 조국을 위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자취를 남겨서 훗날 횡성전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향토사료 제27집으로 『횡성전투 전적지를 찾아서』를 발간하였으며, 전국문화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으로 배포해 향토자료로서의 귀중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 ❁ 향토사 연구

#### ● 제24회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 발표회(8.29.)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금년에는 한국가스공사정선연수원(정선군 소재)에서 열렸으며 횡성문화원은 홍주민님이 “조선 초기 각림사의 변창과 그의 미”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 **향토사연구비교답사(10.22~23)**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횡성문화원임원 20명은 전주문화권의 한옥마을, 경기전과 왕궁리 유적지,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화석박물관 등 향토문화유적들을 비교답사 연구하였다.



● **향토사료자료 '강림면 문화유적지 일원' 발굴조사(10.14.)**

향토사료자료 발굴조사사업에 일환으로 향토문화유적지인「강림면 문화유적지 일원」※태종대, 횡지암, 민공호 의병장 피체지 및 전적지, 강림의병총 등 답사조사. 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인식을 고취시키고 보존 및 계발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답사조사 하였다





## 문화학교 운영사업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역량을 높여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 2014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서예교실(한문)	한문필법	천금용	3.10. ~ 12.19.	19	11
서예교실(한글)	한글필법	김해동	"	14	10
유학교양	논어해설	김인규	"	15	12
어르신풍물교실	장구,북,징,꽹과리 사물 및 기능	김혜숙	"	28	15
사물놀이(야간)	장구,북,징,꽹과리 사물 및 기능	송세영	"	12	7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	15	11
가야금교실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김연옥	"	21	17
탐댄스교실	탐댄스 기초 스텝	김영진	"	9	4
장수춤	장수춤사위 실기	김영아	"	11	11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	46	41
황성회다지소리	황성회다지소리·상여소리·울동	양재학	"	12	9
문예창작 및 시낭송	시낭송필법	최보정	8.20. ~ 12.19.	14	9
계	12개 과목		4,8개월	216	157



〈서예(한문)교실〉



〈서예(한글)교실〉



〈유학교양교실〉



〈어르신풍물교실〉



〈사물놀이교실〉



〈국악(판소리)교실〉



〈가야금교실〉



〈탭댄스교실〉



〈장수춤교실〉



〈실버에어로빅교실〉



〈황성화다지소리교실〉

## ● 제15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제19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장려상)
- 제17회 남도민요 전국 경창대회(장려상)
- 제4회 아시아 에어로빅체조 선수권 대회 시범
- 제10회 황성한우축제 공연참가 (장수춤, 국악, 실버에어로빅, 사물놀이 등)
-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에어로빅대회(대상)
- 제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에어로빅대회(대상)
- 제8회 강원도 에어로빅스 연합회장기대회(2위)
- 제9회 한반도미술대전(우수상1명, 입선1명)
- 제2회 원각서예대전(입선2명)
- 제9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삼체상1명)
- 제24회 강원서예대전(입선2명)
- 제1회 대한민국사비서화예술대전(입선2명)
- 제17회 김삿갓 문화제 전국회화대회(특선2명, 입선2명)

- 제2회 전국회현(안향)선생 휘호대회(입선1명)
- 제2회 원주한지휘호대회(입선1명)
- 제4회 여주세종휘호대회(한글)(입선2명)
- 제4회 의암유인석선생 전국휘호대회(입선2명)
- 제23회 강원 국악 경연대회(장려상2명)
- 제11회 횡성 여성대회(은상)
- 제24회 강원서예대전(특선4명, 입선8명)
- 제5회 강원서예문인화대전(특선4명, 입선4명)
- 제9회 운곡서예문인화대전(특선2명, 입선2명)
- 제8회 서희선생전국서예대전(삼체상1명)
- 제4회 의암유인석선생 전국휘호대회(특선1명, 입선3명)
- 제2회 대한민국 한지서예 문인화대전(특선1명)
- 제15회 석봉한호선생 전국휘호대회(특선1명, 입선3명)
- 제10회 탄허대종사 선서함양 전국휘호대회(대상)
- 제33회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입선1명)
- 제2회 전국회현(안향)선생 휘호대회
- 제17회 김삿갓 문화제 전국휘호대회(입선4명)

## 전통문화체험학습

(7.28.~8.8./문화사랑방)

한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학습이 열렸다. 사물놀이, 가아금 배우기, 하회탈 만들기 체험, 탈춤 배우기, 국악 배우기(판소리·남도민요), 횡성회다지소리체험관 현장학습, 천연염색 체험, 한지공예, 전통 떡 만들어 먹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60명이 2주 동안 참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기타지원 문화사업

### ● 2014년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6.13. / 황성 문화예술회관)

황성 어르신 노래자랑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황성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6월 13일 열렸다. 총26팀이 참가하여 10팀 입상자들에게 시상금과 부상을 수여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 ● 국악예술대공연(12.11. / 황성문화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지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4 황성군민을 위한 국악예술대공연' 이 문화원 주관아래 12월 11일 열렸다. 특히 KBS김준호 손심심의 신바람인생 MC 김준호님과 중요 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전수보조자 손심심님의 '오락가락' 을 포함한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아쟁대금산조 시작으로 경기민요, 부채춤, 가야금병창,

윤충일의 각설이타령, 남도민요/육자베기, 태평무 등 여러 장르의 국악예술대 공연이 진행됐다



## 어르신문화학교사업

### ●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학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은퇴 후 생활을 문화예술 건강 콘텐츠인 전통예술문화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양성과정을 통해 향후 어르신 풍물패 봉사공연단을 조직하여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등의 공연을 통해 세대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제·축제 등에서 시연공연활동을 해왔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총 28명의 풍물단원들이 관내 행사 및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공연을 펼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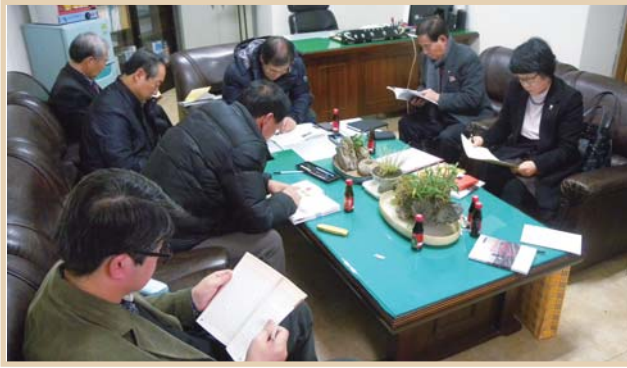








## 횡성문화 통권 제29호 편 · 집 · 후 · 기



섬강 물줄기가 동에서 서로 도도히 흘러가는 상서로운 횡성은 애국 애족의 고장이요, 평생학습도시로서 교육과 복지의 금자탑을 쌓아가며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정체성을 제고시키는 ‘횡성문화’ 통권 제2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횡성 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牛(우), 人 + 十 = ‘소’, 사람의 열 배 힘을 갖는 소, 사람보다 열 배나 참을성이 있고 입이 무거우며, 사람보다 열 배나 근면 성실하며 순종을 다하는 소입니다. 횡성의 사람들도 한우처럼 우직한 힘으로 인내하고 말보다 실천하며 부지런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질 때 찬란한 횡성문화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21세기에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를 표방하는 군민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隨處作主 立處皆眞,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선 그 자리에 최고가 되라’ 이 고장의 주인정신을 함양하고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군민이 되는 것이 횡성문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문화가 국력이고 21세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며 문화 강국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우리 지역 문화의 융성으로 횡성이 강원도 미래 중심 세상이 되리라 확신하며 ‘횡성문화’ 지에 옥고를 보내오신 분들과 편집위원님들의 집필에 감사를 드리면서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 12. 03.  
횡성문화 통권 제29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 원 명**

- 편집위원장 : 현원명
- 편집위원 : 김인규, 박현숙, 이영식, 정재영, 진광수, 한상균

## 2014 **황성문화** (통권 제29호)

발행일 \_ 2014.12.30

발행처 \_ 황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박순업

기 획 \_ 홍성진

디자인 · 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황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